Kingdom of
Cambodia

캄보디아 개황

2022. 8

외 교 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hnom Penh
Kingdom of
Cambodia

캄보디아 국기

- 가운데 백색 그림은 캄보디아의 대표 문화유적 앙코르와트를 형상화한 것이며, 찬란한 크메르 문화와 부를 나타낸다.
- 바탕에 쓰인 적색은 불의에 대한 투쟁과 강인한 캄보디아의 정신을, 청색은 캄보디아의 농업과 환경을 상징한다.

캄보디아 개관

가. 일 반

국 명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수 도	프놈펜 (Phnom Penh : 인구 220만 명, 면적 678km²)
면 적	181,040km² (한국의 1.8배, 한반도 전체의 약 80%) • 남북 450km, 동서 580km, 해안선 340km
위 치	인도차이나 반도 동남부 (베트남·라오스·태국과 접경) • 동경 103-107°, 북위 10-14°
인 구	약 1,634만 명 (2021)
인 종	크메르족 97%, 소수민족(베트남·중국·참족·고산족)
언 어	크메르어(90% 이상),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시 차	우리나라보다 2시간 늦음

나. 정 치

정 체	입헌군주국으로 국가원수는 국왕이나, 정부 수반인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운영 • 국가원수 :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국왕 ※ 2004년 10월 29일 즉위 • 정부 수반 : 훈센(Hun Sen) 총리(캄보디아국민당 소속)
형 태	의원내각제
의 회	양원제 • 국회(National Assembly) 125석 (임기 5년) • 상원(Senate) 62석 (임기 6년)

다. 경 제

(2021년 기준)

GDP	262억 달러
1인당 GDP	1,654 달러
실질 GDP 성장률	7.25% (2018), 2.2% (2021)
물가상승률	3.0%
총 교역액	476.4억 달러
무 역	수출 : 182.6억 달러 수입 : 293.8억 달러
환 율	1달러=4,109리엘

라. 기 타

국경일	1월 7일 : 승리의 날(크메르루즈 정권 붕괴 기념일) 4월 14~16일 : 전통설(쫄츠남) 5월 4일 : 노로돔 시하모니 현 국왕 생일 9월 24~26일 : 전통 추석(퍼춤번) 10월 29일 : 현 국왕 즉위일 11월 7~9일 : 물축제 11월 9일 : 독립기념일
기 후	열대몬순, 고온다습 (계절 및 지역에 따라 상이) • 3~5월 : 북서풍, 고온건조 (최고 기온 35~45℃) • 6~8월 : 남서풍, 고온다습 • 9~11월 : 다습 (우기) • 12~2월 : 건조 (최저 20℃~최고 30℃)
종 교	불교(95%), 기타(5%)

연표로 본 캄보디아 약사

1~6세기
후난 왕조 지배
6세기 말
첸라 왕국, 후난 왕국 제압
고대 크메르 왕국 시대
(802~1431)
802
후난 왕국 멸망. 자야바르만 2세의
앙코르 왕조 시작
1431
시암의 침략으로 앙코르 왕조 쇠퇴
프랑스 통치 시대
(1863~1953)
1863
프랑스 보호령으로 편입
1884
노로돔 국왕, 명목상의 왕위만 유지하고
프랑스에 통치권 이양
시하누크 시대
(1941~1970)
1941
프랑스, 시하누크를 왕으로 즉위시킴
1945
시하누크, 일본 후원 하에 독립 선언
1953
시하누크, 프랑스로부터 독립
1955
시하누크 국왕 양위 및 총선 승리
크메르공화국 시대
(1970~1975)
1970
론놀 장군, 시아누크 공 외유 중
쿠데타로 집권
4월 10일 크메르 공화국 수립 선포
민주 캄푸치아 시대
(1975~1978)
1975
폴포트의 캄푸치아공산당 집권
(크메르루즈 정권)
1978
베트남, 무력으로 캄보디아 침공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시대
(1979~1989)
1979
헹삼린·체아심·훈센이 이끄는
베트남과의 연합군,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수립

캄보디아국 시대
(1989~1993)

1989 캄보디아국민혁명당, 나라명을 캄보디아국으로 바꾸고 탈공산주의 추진(4월)

1989 베트남군 철수(10월)

1990 유엔 안보리, 포괄적 캄보디아 평화안 채택

1991 파리평화협정 서명

캄보디아 왕국 시대
(1993~현재)

1993 UN 주관 하에 1차 총선 실시, 제헌의회 소집, 헌법 공포

1997 라나리드 제1총리와 훈센 제2총리 간 무력충돌

1998 2차 총선 실시, 훈센 단독 총리 취임

1999 아세안 가입, 제1기 상원 개원

2002 제1대 기초 행정구역 평의회 선거

2003 3차 총선 실시, 제3기 연립정부 수립

2004 ASEM 가입

2006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 출범

2008 4차 총선 실시, 국민당 압승, 제4기 정부 수립

2013 5차 총선 실시, 제5기 정부 수립

2018 6차 총선 실시 , 국민당 압승, 제6기 정부 수립

2023 7차 총선 실시 예정

목 차

Ⅰ 역 사

1. 고대 및 식민지 시대 12
2. 캄보디아 공화국 및 왕국 시대 13

Ⅱ 정 치

1. 정치 체제 18
2. 정 부 19
3. 의 회(양원제) 20
4. 정 당 24
5. 지방정부 28
6. 사법 제도 30
7. 군 사 31
8. 주요 정세 33

Ⅲ 외 교

1. 개 관 46
2. 주요 외교 사안별 입장 48
3. 지역 협력 51
4. 다른 나라와의 관계 53
5. 국제기구 가입 현황 65
6. 주요 협정 체결 현황 67
7. 수교 및 공관 설치 현황 68

IV | 경 제

1. 개 관 72
2. 경제발전 전략 74
3. 경제 현황 76
4. 무역 동향 82
5. 투자 환경 85

V | 사회·문화

1. 사회 일반 92
2. 교 육 93
3. 치 안 95
4. 교통 및 통신 96
5. 언 론 97
6. 보 건 98

VI | 개발협력

1. 개 관 100
2. 연 혁 101
3. 개발협력 실행 계획 102
4. 주요 원조공여국 지원 동향 105

VII |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기본 관계 108
2. 조약 체결 현황 110
3. 주요 인사 교류 112
4. 정치·외교 관계 117
5. 경제·통상 관계 119
6. 개발협력 관계 126
7. 영사·문화 관계 130

VIII | 북한과의 관계

1. 기본 관계 144
2. 최근 동향 145
3. 주요 인사 교류 146
4. 경제협력 관계 147

IX | 부 록

1. 주요 인사 인적사항 150
2. 제6기 내각 명단 155
3. 캄보디아 공휴일 160
4.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161
5.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161
6. 캄보디아 왕국 헌법 162

I

역 사

1. 고대 및 식민지 시대
2. 캄보디아 공화국 및 왕국 시대

1. 고대 및 식민지 시대

가. 고대~앙코르 왕조 (~1863)

- 1세기부터 6세기경까지 메콩 델타 유역을 중심으로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은 후난(Funan) 왕조와 첸라(Chenla) 왕조 존재
- 802년 자야바르만(Jayavarman) 2세가 스스로 신왕(神王)으로 칭하고 앙코르 왕조를 열어 1431년 시암(현 태국)의 침략으로 쇠퇴할 때까지 크메르 민족의 전성기(고대 크메르 왕국 시대) 구가
- 1431년 시암의 침략 후, 19세기 중반 프랑스 식민지가 되기까지 시암과 베트남의 지배를 번갈아 받으며 왕국의 명맥만 유지

나. 프랑스 통치 시대 (1863~1953)

- 1863년 캄보디아는 시암과 베트남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자진해서 프랑스 보호령으로 편입
- 1884년 노로돔(Norodom) 국왕은 프랑스의 강압으로 명목상의 왕위만 유지하고 통치권을 프랑스에 넘겨주는 협정에 서명

2. 캄보디아 공화국 및 왕국 시대

가. 시하누크 시대 (1941~1970)

- 1941년 프랑스는 당시 19세의 노로돔 시하누크(Norodom Sihanouk)를 왕으로 즉위시켰으나, 시하누크는 1945년 일본의 후원 하에 독립 선언
- 일본이 패전한 후 프랑스가 지배권을 회복하였으나, 1953년 11월 시하누크에게 군사·사법·외교권을 허용, 사실상 독립
- 1955년 시하누크 국왕은 현실정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아버지 수라마리트에게 왕위를 이양하고 인민사회주의공동체당(Sangkum Reastr Niyum) 총재에 취임, 같은 해 총선에서 압승하여 1970년까지 캄보디아 정국 주도

나. 크메르공화국 시대 (1970~1975)

- 1970년 3월 28일 시하누크 공의 외유 중에 론놀(Lon Nol)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 시하누크를 모든 공직에서 축출하고 귀국 불허
- 1970년 4월 10일 크메르공화국 수립 선포
- 론놀은 반정부세력을 공산주의자로 간주해 탄압, 크메르루즈의 성장 초래

다. 민주 캄푸치아 시대 (1975~1978)

- 1975년 4월 17일 폴포트(Pol Pot)가 이끄는 캄푸치아공산당(크메르루즈, Khmer Rouge)이 프놈펜에 입성, 급진혁명 추진
- 1978년 12월 베트남군이 무력으로 캄보디아 침공

라.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시대 (1979~1989)

- 1979년 1월 친베트남 세력인 헹삼린(Heng Samrin), 체아심(Chea Sim), 훈센(Hun Sen) 등이 이끄는 베트남과의 연합군이 프놈펜에 입성,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수립
- 1989년 10월 소련·동구권 몰락과 캄보디아 운영의 경제적 부담, 국제사회 비난에 따라 베트남군이 캄보디아에서 철수

마. 캄보디아국 시대 (1989.4.~1993.5.)

- 1989년 4월에 캄보디아 국민혁명당은 국명을 캄보디아국(State of Cambodia)으로, 당명을 캄보디아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으로 바꾸고 사유재산 인정, 민영화 추진 등 탈공산주의 추진
- 1990년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포괄적 캄보디아 평화안 채택
- 1990년 10월 4개 정파, 최고국가평의회(SNC) 구성에 합의
- 1991년 10월 캄보디아 분쟁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파리평화협정 서명, 캄보디아 과도행정기구(UN Transitional Authority of Cambodia, UNTAC)와 최고국가평의회(SNC)에 18개월 동안 통치권을 위임하고, 총선을 통한 신정부 구성 추진
- 1992년 3월 총 45개 국 2만 2천 명으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이 파병되어 정전협정 준수 여부 감시

바. 캄보디아 왕국 시대 (1993.5.~현재)

- 1993년 5월 23~28일간 UNTAC 주관 하에 1차 총선거 실시
- 1993년 6월 제헌의회가 소집되어 헌법을 채택하고(1993.9.23. 공포), 시하누크를 국가수반으로 선출, 캄보디아 왕국 시대 출범(1993.9.24. 시하누크 국왕 즉위)

- 1993년 총선 결과, 훈신펙당과 캄보디아국민당 간 연정이 구성되어 훈신펙당 라나리드(Norodom Ranariddh) 왕자가 제1총리, 캄보디아국민당 훈센이 제2총리에 취임

- 1998년 7월 2차 총선 결과에 따라 라나리드 왕자를 국회의장으로, 훈센 캄보디아국민당 부총재를 총리로 하는 제2대 국회 및 제2기 연립정부 출범

- 2003년 7월 3차 총선 이후 1년가량 새 정부 구성이 지연되다가, 2004년 7월 라나리드 왕자를 국회의장으로, 훈센 캄보디아국민당 부총재를 총리로 하는 제3대 국회 및 제3기 연립정부 출범

- 2008년 7월 4차 총선에서 캄보디아국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90석의 의석을 획득하고 제4대 국회 및 제4기 연립정부(훈신펙당 연립) 구성

- 2013년 7월 5차 총선에서 캄보디아국민당이 승리하였으나 의석수가 대폭 감소(68석)한 반면, 야당인 구국당(CNRP)은 55석을 차지하며 약진

- 2014년 9월 국민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의 국회 등원 거부로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하고 신정부 출범

- 이후 여야 영수 회담을 통해 야당 국회 등원 합의 등 여야 관계가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15년 하반기부터 여야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회귀

- 2017년 6월 제4대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국민당 50.76%, 제1야당인 구국당 43.83%의 득표율로 선거구와 의석수 면에서 국민당이 승리하였으나, 2012년 지방선거와 같은 압도적인 승리(90% 이상 선거구에서 승리)는 거두지 못해 '국민당의 절반의 승리, 구국당의 약진'으로 평가

- 2017년 9월 3일 구국당의 켐 소카(Kem Sokha) 대표가 모반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16일에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국당이 해산되고 구국당 소속 주요 인사들(118명)에 대한 5년간의 정치활동 금지령 선고

- 2018년 7월 29일, 주요 야당(구국당)이 부재한 상황에서 비민주적 선거라는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 치러진 6차 총선에서 국민당은 76.85%를 득표하며 국회의 전 의석(125석) 차지

- 2022년 6월 4일 제5대 지방선거 총 득표율에서 집권당인 국민당이 74.32%, 제1야당인 촛불당이 22.25% 차지
  -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전 구국당 수뇌부의 계파 갈등 심화, 군소 야당의 연립 실패 등으로 구국당을 대신할 강력한 야당의 부재로 인해 국민당이 압승, 평의회 단체장(동/면장) 의석 총 1,652석 중 1,648석 획득(촛불당 4석, 그 외 군소 야당은 의석 확보에 실패)

- 2023년 7월 23일 제7대 총선 실시 예정
  - 구국당 해산 이후 집권여당과 경쟁할 강력한 야당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 구국당 계열 인사들이 참여한 신생 정당의 연립 여부, 2022년 11월부로 5년간의 정치활동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전 구국당 인사들(당시 118명)의 정치참여도, 이에 따른 집권여당의 대응 정도에 따라 총선 결과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

II

정 치

1. 정치 체제
2. 정 부
3. 의 회 (양원제)
4. 정 당
5. 지방정부
6. 사법 제도
7. 군 사
8. 주요 정세

K I N G D O M O F C A M B O D I A

1. 정치 체제

가. 정체 : 입헌군주제

나. 국왕

- 현 국왕 :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 공식 명칭 : His Majesty Preah Bat Samdech Preah Boromneath Norodom Sihamoni, King of Cambodia
- 즉위일 : 2004년 10월 29일
- 시하누크 전 국왕은 2012년 10월 15일 서거
- 지위 및 권한
  - 국왕은 생존 기간에 국가원수 지위 유지하며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다원주의에 따라 나라를 통치
  - 국회 동의에 따라 각료 등 고위직 공무원·군인·대사·법관 임명에 대한 서명권, 군 최고통수권, 국제조약에 대한 최종 서명 및 비준권 등 보유
- 승계
  - 국왕 사망 또는 퇴위 시 7일 이내에 '국왕 선출위원회'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단순 과반수로 후계자 선출
  - 국왕선출위원회 : 상원의장(위원장), 국회의장, 총리, 불교 종정(2명), 상원 부의장(2명), 국회 부의장(2명) 등 총 9명
  - 왕위계승 자격 : Ang Duong, Norodom 또는 Sisowath 왕가 출신의 30세 이상 남자 자손
  - 국왕 유고 또는 부재 시 상원의장이 국가원수직 대행

2. 정부

가. 형태 : 의원내각제

나. 내각

- 구 성
  - 총리, 부총리(10명), 선임장관(15명), 장관(29명)
- 임 명
  - 국왕은 국회 제1당의 추천에 따라 국회 제1당 소속 고위 인사 한 명을 총리 내정자로 지명
  - 총리 내정자가 국회의원 또는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신임투표 후 국왕이 총리를 포함한 내각 일괄 임명

다. 총리

- 현 총리 : 훈 센(Hun Sen)
- 공식 명칭 : Samdech Akka Moha Sena Padei Techo Hun Sen, Prime Minister of the Kingdom of Cambodia

3. 의 회 (양원제)

가. 국회 (National Assembly)

-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로 선출하는 125명(6대 내각)으로 구성
- 각 정당이 25개 선거구별로 선정하는 후보 중에서 득표 수에 따라 의석 배분(지역적 비례대표제)
-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2/3 다수제 투표로 선출
- 현 국회의장 : Heng Samrin (캄보디아국민당 명예총재)
  - 제1부의장 : Cheam Yeap (캄보디아국민당)
  - 제2부의장 : Khuon Sodari (캄보디아국민당)
- 임기 : 5년 (새 국회 개회 시 종료)
  - 전시에는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임기 1년 연장 가능
  - 총선거 실시 후 60일 이내 개원
-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 임기 종료 6개월 전 실시(선거 일자는 총리가 결정)
  - 단, 12개월 이내에 두 차례 이상 내각이 불신임되고 총리의 제안과 국회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왕이 국회를 해산하고, 해산 후 60일 이내 선거 실시
- 국회 약사
  - 1993년 5월 1차 총선 결과 훈신펙당 58석, 국민당 51석, BLDP(불교자유민주당) 10석, 몰리나카당 1석 획득 (총 120석으로 제헌국회 구성)
  - 1998년 7월 2차 총선 결과 국민당 64석, 훈신펙당 43석, 삼랑시당 15석 획득(총 122석으로 국회 구성)

- 2003년 7월 3차 총선 결과 국민당 73석, 훈신펙당 26석, 삼랑시당 24석 획득 (총 123석으로 국회 구성)
- 2008년 7월 4차 총선 결과 국민당 90석, 삼랑시당 26석, 인권당 3석, 라나리드당 2석, 훈신펙당 2석 획득(총 123석으로 국회 구성)
- 2013년 7월 5차 총선 결과 국민당 68석, 구국당 55석 획득 (총 123석으로 국회 구성)
- 2018년 7월 6차 총선 결과 국민당 125석 전석 획득
- 2023년 7대 총선 실시 예정

2018년 7월 29일 총선 결과

정 당	총 득표수	%	의석 수
캄보디아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4,889,113	76.85	125
훈신펙당(FUNCINPEC Party)	374,510	5.88	-
민주리그당(League for Democracy Party)	309,364	4.86	-
크메르의지당(Khmer Will Party)	212,868	3.35	-
크메르국가통합당(Khmer National United Party)	99,377	1.56	-
풀뿌리민주당(Grassroots Democratic Party)	70,567	1.11	-
기타 (14개 야당)	406,442	6.39	
합 계	6,362,241	100	125

※ 집권여당인 국민당(CPP)과 19개의 야당 포함 총 20개 정당이 총선에 참여
※ 전체 유효표 : 6,362,241표, 총 투표율 : 83.02%

• 전문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명 칭
인권·소송·수사·상하원조정위원회	Sar Chamrong (써 쩜롱)	제1위원회
경제·재정·금융·감사위원회	Chheang Vun (치응 분)	제2위원회
기획·투자·농업·농촌개발·환경·수자원위원회	Loy Sophat (로이 소팟)	제3위원회
내무·국방·인사위원회	Kep huktema (까엡 쭈떼마)	제4위원회
외교·국제협력·정보미디어위원회	Suos Yara (쑤오 야라)	제5위원회
입법·사법위원회	Paen Panha (빠엔 반냐)	제6위원회
청소년·교육·체육·종교·문화·관광위원회	Hun Mani (훈 마니)	제7위원회
보건·사회·퇴역군인·청소년갱생·직업훈련 위원회	Laok Kheng (라옥 켕)	제8위원회
공공사업·운송·교통·정보통신·산업무역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위원회	Nin Saphon (닌 사폰)	제9위원회
반부패수사위원회	Paen Simon (빠엔 시몬)	제10위원회

나. 상원(Senate)

• 1999년 3월 상원 신설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 재적의원 122명 중 111명 출석, 찬성 106명, 반대 5명으로 국회 통과

- 1999년 3월 25일 상원 개원

• 상원은 40세 이상 6년 임기의 선출직 의원 62명(4대 상원, 국회 재적의원의 절반)으로 구성

- 국민의 직접 선출이 아니라 면(commune) 평의회 의원들의 선거로 선출되었으며, 각 정당별 총 유효득표 수에 따라 58명을 선출하고 국회 및 국왕이 각각 2명씩 지명하여 총 62명으로 상원 구성

• 상원은 정부와 의회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며, 상원의장은 국왕 부재 시 국가원수의 역할 대행

• 현 상원의장단

- 의 장 : Say Chhum (캄보디아국민당)
- 제1부의장 : Sum Ka (캄보디아국민당)
- 제2부의장 : Tep Ngorn (캄보디아국민당)

• 상원 약사

- 제1기(1999~2005) : 상원은 정당별 국회 의석 비례에 따라 CPP 31석, 훈신펙당 21석, 삼랑시당에 7석을 배정하고, 국왕이 2명을 지명하여 총 61명으로 구성
- 2006년 1월 제2기 상원의원 선거 결과 CPP 45명(74%), 훈신펙당 14명(23%), 삼랑시당 2명(3%) 당선
- 제3기(2012~2018) : 상원은 CPP 46명, 삼랑시당 11명 당선자와 국왕이 임명한 2명, 국회 지명 2명 총 61명으로 2012년 3월 24일 출범
- 제4기(2018~2024) : 상원은 CPP 소속 58명 당선자와 국왕이 임명한 2명, 국회 지명 2명 총 62명으로 2018년 4월 23일 출범

다. 입법 절차

• 캄보디아의 법률 제정은 정부 발의 법안과 국회 발의 법안으로 대별

• 정부 발의 법안(Draft Legislation)의 입법 과정

- 부처에서 법령안 입안 → 부처 내 입법검토위원회 검토 → 법률전문가 위원회 심사 → 부처 간 위원회 검토 → 각료회의 검토 후 승인되면 총리가 국회의장에게 제출 → (이후 국회 제안 입법 절차와 동일)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 제출 → 국회 상임위원회 → 국회 전문위원회 → 국회 심의·의결 → 상원의장에게 제출 → 상원 상임위원회 → 상원 전문위원회 → 상원 심의·의결 → 헌법위원회의 헌법성 검토 → 국왕 서명 후 발효

- 국회 발의 법안(Proposed Law)의 입법 과정
  - 하원(국회) 또는 상원에서 법률안 제안 → 법률전문가위원회의 심사 → 국회의장에게 송부 → (이후 정부 발의 입법 과정과 동일)

※ 단, 상원에서 반대 의견 있을 경우, 하원(국회)으로 송부 → 하원 재검토 → 상원 재검토 → 헌법위원회 → 국왕 서명 후 발효

※ 국왕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이 없으며, 법안 서명 보류 불가

4. 정당

가. 개요

- 1997년 캄보디아 정당법 제정(10.28. 국회 통과, 11.18. 상원 통과)
- 1998년 2차 총선 당시 총 39개 군소정당 총선 참여
- 2008년 제4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은 캄보디아국민당(CPP), 훈신펙당, 삼랑시당, 인권당, 라나리드당 등 5개
- 2013년 제5대 선거를 앞두고 삼랑시당과 인권당이 통합된 캄보디아구국당(CNRP)이 만들어져 여당 국민당(CPP)과 함께 양당 구도 형성
- 2018년 제6대 총선에 구국당(CNRP)이 해산(2017.11.)된 가운데, 국민당과 19개의 소수 야당이 참여하였으며, 국민당이 국회 의석 전석(125석) 차지

나. 주요 정당

1) 캄보디아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CPP)

- 캄푸치아국민혁명당(Kampuche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의 후신, 1991년 캄보디아국민당(CPP)으로 개명

- 1993년 유엔 주관 하의 1차 총선에서 왕당파인 훈신펙당에 이어 2위 차지, 1998년 2차 총선부터 2018년 6차 총선까지 득표율 최다 정당으로 2018년 총선에서는 국회 125석 전석 차지

- 임 원
  - 총 재 : 훈센(Hun Sen) 총리
  - 부총재 : 사켕(Sar Kheng)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
    사이춤(Say Chhum) 상원의장
  - 명예총재 : 헹삼린(Heng Samrin) 국회의장

2) 캄보디아구국당(Cambodian National Rescue Party, CNRP)

※ 2017년 11월 해산

- 2012년 삼랑시당과 인권당이 통합된 정당으로, 2017년 9월 켐소카(Kem Sokha) 당 총재가 반역죄로 긴급체포되었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정부 전복죄 혐의로 당 해산 및 118명 당원의 5년간의 정치활동 금지 판결

- 구국당 지지자들은 2018년 1월 삼랑시 전 구국당 총재를 주축으로 미국에서 캄보디아구국운동(Cambodian National Rescue Movement, CNRM)을 설립하여 켐소카 총재의 반역 혐의 취하 및 정치활동이 금지된 구국당 인사들의 정계 복귀를 위해 투쟁했으나, 해외(프랑스)에 체류 중인 삼랑시 지지파(派)와 국내에서 반역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켐소카 지지파 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2022년 6월 5일 실시된 제5대 지방(기초평의회) 선거 준비 과정에서 양 계파 간 갈등이

심화되어 삼랑시는 삼랑시당의 후신인 촛불당 지지 표명, 켐소카는 지방선거 투표 불참

- 임 원
  - 총 재 : 켐소카(Kem Sokha, 현재 가택연금 중)
  - 총재 대행(2018.12. 선출) : 삼랑시(Sam Rainsy) CNRM 총재
  - 부총재 : 뽈 함(Pol Ham), 무 속후아(Mu Sochua), 엥 차이 이응(Eng Chhay Eang)

3) 촛불당 (Candle Light Party, CP)

- 1995년 크메르민족당으로 창당, 이후 1998년에 삼랑시당으로 개명했다가 2017년 구국당(CNRP) 해산 이후 2018년 촛불당으로 재개명한 이후 정치활동이 전무하다가 2021년 10월부터 정치활동 재개

- 2022년 6월 4일 실시된 제5대 지방선거(=기초의회 선거)에서 전체 득표율 22.25%를 차지하면서 제1야당으로 부상했으며, 삼랑시 전 구국당 대표대행이 지지 표명

- 당 부대표(손차이)는 6월 4일 실시한 제5대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국민당)과 선관위의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후 국민당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태이며, 현재 해외 체류 중

- 임 원
  - 총 재 : 띠우 반놀(Teav Vannol)
  - 부총재 : 탓 세타(Thach Setha), 손 차이(Son Chhay)

4) 훈신펙당(민족연합전선, FUNCINPEC)

- 훈신펙(FUNCINPEC)은 'National United Front for an Independent, Neutral, Peaceful and Cooperative Cambodia'의 프랑스어 표기 약자

- 훈신펙당은 베트남 투쟁을 위해 시하누크 공이 이끌었던 정파로, 1993년 유엔 중재 하에 치러진 1차 총선에서 최다 득표로 승리한 후 노로돔 라나리드 왕자가 당 총재로서 국민당(CPP)과의 연립정부 구성, 삼랑시당과의 연대 등을 통해 집권 경쟁

- 당 총재였던 라나리드 왕자가 2006년 10월 당 총재에서 해임되면서 별도의 '노로돔 라나리드당'을 창당하였으나 2008년 정계은퇴 선언, 이후 2015년에 훈신펙당 총재로 정치활동을 재기하였으나 2018년 6월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부상 치료를 위해 태국을 거쳐 프랑스 체류 중 2021년 11월 29일 향년 77세로 사망(현재는 라나리드 전 총재의 장자인 노로돔 차크라붓(Norodom Chakravut) 왕자가 당 총재직 수행 중)

- 제1야당이었던 구국당(CNRP)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해산된 후, 2018년 총선에서 19개의 군소 야당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하였으나, 지지율은 6% 정도에 그쳤고, 단 한 석의 의석도 얻지 못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하여 주요 정당으로 미인정

다. 그 밖의 정당

정 당	대 표	창당 연도
크메르국가통합당(KNUP)	Nhek Bun Chhay	2016
풀뿌리민주당(GDP)	Yeng Virak	2015
캄보디아애국당(CNLP)	Chiv Cata	2020
캄보디아청년당(CYP)	Pich Sros	2015
캄보디아주의당(CNP)	Yem Ponhearith	2021
민주사회벌집당(BSDP)	Mam Sonando	2015

5. 지방정부

가. 행정구역

- 전국을 24개 주 및 1개 수도(프놈펜)로 나누고, 그 아래 시·군·구가 있으며, 다시 면과 동으로 구분

  ※ 수도 및 각 주 이하 행정구역 단위

  - 프놈펜 : 구(khan) - 동(sangkat) - 촌(village/phum)
  - 주(Province) : 군(district/srok) - 면(commune/khum) - 촌(village/phum) - 시(municipalities) - 동(sangkat) - 촌(village/phum)

나. 지방선거

- 지방정부 책임자는 중앙정부에서 임명하여 왔으나, 지방의회 선거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02년 2월 최초로 대도시의 동과 각 주의 면 평의회에 대한 지방선거 실시(국민에 의한 직접선거)
  - 1,621개의 면에서 인구에 따라 5~11명의 평의원이 선출되고, 최다 득표 정당이 해당 후보자 명부에서 면장 겸 평의회 의장을 지명
  - 상위 행정구역 '주, 수도-시, 군, 구' 평의회 선거는 미실시

- 2008년 4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2009년 5월 '주, 수도-시, 군, 구' 평의회에 대한 선거를 실시
  - '주, 수도-시, 군, 구' 평의회 선거는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가 아닌 동/면 평의회 의원 등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

- 2014년 5월 18일 제2대 시군구 및 도의회 선거 실시
  - 결　과 : 캄보디아국민당 2,540석(76.4%)
    캄보디아구국당 765석 (23.6%)
  - 도 의회 : 캄보디아국민당 306석, 캄보디아구국당 86석, 훈신펙당 1석

- 시·구·군 의회 : 캄보디아국민당 2,234석, 캄보디아구국당 679석, 훈신펙당 17석 및 민주연맹당 1석

※ 2017년 11월 구국당 해산 후, 구국당의 765 의석은 국민당에 717석, 훈신펙당에 48석 배분

• 2017년 6월 4일 4대 지방선거 실시

- 1,646개의 면/동 선거구에서 1만 1,527명의 지방의원 선출
- 여당인 국민당이 1,156개 선거구에서 다수당을 차지(총 의석수 6,503석), 제1야당인 구국당이 489개 선거구에서 다수당 차지(총 의석수 5,007석)

※ 2017년 11월 구국당 해산 후 구국당의 총 의석 5,007석 중 4,548석은 국민당에, 239석은 훈신펙당에, 나머지 의석들은 지방선거 당선 순위대로 소수여당에 배분

• 2022년 6월 5일 5대 지방선거 실시

- 1,652개의 면/동 선거구에서 1만 1,622명의 지방의원 선출
- 여당인 국민당이 1,648개 선거구에서 다수당을 차지(9,376석), 제1야당인 촛불당이 4개 선거구에서 다수당 차지(2,198석)

6. 사법 제도

- 기존 법률 중 신법에 저촉되거나 무효로 되지 않은 법률은 유효
  - 1989년 이전 법률은 거의 사문화
  - 1989~1993년 UNTAC 통치 당시 프랑스 시민법을 모델로 제정한 법령은 대체로 시행

- 3심제 채택 및 운영
  - 지방법원 : 프놈펜과 각 주에 설치
  - 고등법원 : 프놈펜과 3개 주(뜨봉크뭄, 쁘레야시하누크, 바탐방)에 설치
  - 대 법 원 : 프놈펜에 설치

- 국왕이 주재하는 최고사법위원회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법부가 사실상 행정부(법무부)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평가
  - 최고사법위원회가 모든 법원의 판사 및 검사의 임명권을 행사하고, 사법제도 관련 법안 심의 권한을 보유
  - 위원(11명) : 법무장관, 대법원장, 대법원 검찰총장, 판사 또는 검사 출신 또는 관련 분야 최소 15년간의 경력자 중 상원에서 1명 지명, 하원에서 1명 지명, 헌법위원회에서 1명 지명, 법무장관이 검사들 중 1명 지명, 고등법원 법관 중 1명 선출, 대법원 소속 검사 중 1명 선출, 지방법원 대표 1명, 지방법원 소속 검사 중 1명 선출

- 헌법위원회는 하위법의 위헌 여부만을 심사하나, 선거 관련 분쟁(부정 선거 등)은 헌법위원회가 최종 판결 가능

7. 군사

- 캄보디아의 군사 조직은 육·해·공군, 헌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병력 수는 현역 약 12만 명(예비군 70,000명)으로 전 세계 102위 수준 (2018년 통계)
  - 군 총사령관 : Gen. Vong Pisen
  - 육군참모총장 : Lt. Gen. Hun Manet (중장, 훈센 총리의 장남)
  - 해군참모총장 : Gen. Teah Vinh (대장, 띠으반 국방장관의 동생)
  - 공군참모총장 : Gen. Soeung Samnang (대장)
  - 헌병사령관 : Gen. Sao Sokha (대장)

- 1999년 1월 훈센 총리는 시하누크 국왕에게 군·경찰 조직 축소를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자신의 군 최고사령관직 사임을 건의하였고 국왕이 인사 칙령에 서명함으로써 군 최고사령관직에서 퇴임

- 1996~1998년 총 3만 1,500명의 병력을 감축하고, 1999년 12월까지 병적카드 작업 완료
  - 병적에 등록된 총 14만 693명에게 ID 카드를 발급하고 1만 5,551명의 유령 병적과 16만 3,346명의 유령 군가족 삭제

- 1999년 5월 캄보디아 군개혁위원회 설치, 5년간 약 5만 5,000명의 추가 병력 감축을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감군을 추진하였으나 제대자 퇴직수당 및 직업훈련 예산 부족으로 2003년 이후로는 병력 감축 연기

- 국방 예산은 2020년 6억 3,500만 달러 (출처 : World Bank)

- 대외적으로 캄보디아군은 UN 평화유지(PKO) 활동에 적극 참여 중
  - 2006년부터 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가

- 2006~2022년간 9개국(수단, 남수단, 차드, 레바논, 시리아, 키프로스, 말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예멘)에 총 8,302명(여군 580명) 파병
- 2022년 6월 기준 남수단, 레바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에 800여 명 파병 중

• 2010년 이래 미국 태평양사령부와 캄보디아군 공동 주관으로 캄보디아에서 합동군사훈련 Angkor Sentinel를 실시 중이었으나, 캄보디아 정부는 2017~2018년간 선거를 이유로 합동훈련을 중단한 후 2022년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과는 2016년부터 'Golden Dragon'으로 명명한 합동군사훈련 실시

※ Golden Dragon 합동군사훈련 :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총 4차례 실시.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자연재해 문제로 중단 발표

- 인권문제 등으로 소원해진 캄보디아-미국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와 캄보디아의 친중 행보와 관련 있다는 분석

8. 주요 정세

가. 1차 총선과 제1기 연립정부(1993.9.~1998.7.)

- 1993년 5월 23~28일간 UNTAC의 주관 아래 470만 명의 등록 유권자 중 90%가 투표에 참여, 1차 총선거 실시
  - 국회 120개 의석 중 훈신펙당이 58석(45.47%), 국민당이 51석(38.23%) 차지
  - 크메르루즈는 국민통합당을 구성했으나 선거에는 불참
- 1993년 6월 14일 제헌의회가 소집되어 시하누크를 국가수반(국왕)으로 선출
- 1993년 9월 23일 제헌헌법을 공포하고, 9월 24일 시하누크 왕 즉위, 중앙과 지방의 모든 권력을 분점하는 독특한 연립정부 구성
  - 라나리드 훈신펙당 총재와 훈센 국민당 부총재를 공동 총리로 임명
- 1993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UNTAC 요원 캄보디아 철수
- 1994년 7월 2일 차크라퐁 왕자(전 부총리)와 신송 前 내무장관이 연립정부의 크메르루즈 유화 정책에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기도하였으나 실패하고 해외로 도피
- 1995년 11월 21일 시하누크 국왕의 이복동생인 시리부드 공(외교장관 역임)이 훈센 총리 암살미수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프랑스로 망명)
  - 망명 중 궐석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1996년 말과 1997년 4월 귀국을 시도하여 훈신펙당과 국민당 간의 무력시위로 위기 상황 초래

- 1997년 1월 라나리드 제1총리와 훈센 제2총리가 각각 세력 확장을 위해 군소정당과의 제휴를 추진하면서 양 정파 간에 무력시위가 격화되는 등 정국 악화

- 1997년 4월 15일 훈신펙당의 일부 중진 인사들이 라나리드 총재의 독선적인 당 운영에 불만을 품고 불신임 선언

- 1997년 4월 이래 국회 의정 활동이 중단되고 양 정파 간의 무력시위가 계속되던 중 1997년 7월 5~6일 훈센 제2총리와 라나리드 제1총리 간에 무력충돌 발생

  - 라나리드 제1총리 국외로 축출

나. 2차 총선과 제2기 연립정부(1998.7.~2003.7.)

- 1998년 7월 2차 총선 결과, 국민당 64석, 훈신펙당 43석, 삼랑시당 15석 획득

- 1998년 11월 30일 훈센 당시 제2총리는 라이벌인 라나리드 왕자를 국회의장에, 자신은 단독 총리에 취임하는 연립정부를 출범시켜(양당간 50:50의 권력 배분) 최초로 캄보디아 전역을 중앙 행정력으로 통제하는 통치권 장악에 성공

- 1999년 3월 국회를 상원과 국회로 구성하는 헌법 개정과 1999년 4월 아세안 가입으로 국내 정치의 안정과 국제사회 복귀를 통한 국정 개혁과 경제발전 추구

- 대내적으로는 2002년 2월의 지방선거, 대외적으로는 2002년 제8차 아세안+3 정상회의와 2003년 제10차 ARF 및 아세안 PMC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국내외적 안정과 발전 이룩

- 훈센 총리는 ▲평화 정착과 국내 정국 안정 ▲국제사회에의 편입 ▲경제 개발과 개혁을 통한 빈곤 타파라는 '삼각전략(Triangle Strategy)' 정책

기조 하에, 훈신펙당과 마찰 없는 연정 유지,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및 WTO 등 국제기구 가입 및 경제·사회 각 분야의 개혁 정책 추진

다. 3차 총선과 제3기 연립정부(2003.7.~2008.7.)

- 2003년 7월 3차 총선 결과 국민당 73석, 훈신펙당 26석, 삼랑시당 24석 차지
  - 국민당은 의석수에서 훈신펙과 삼랑시당의 합계(50석)를 훨씬 넘는 73석을 획득하는 압승을 거두었으나, 헌법 규정상 단독정부 구성에 필요한 총 의석수의 2/3(82석) 확보에 실패

- 총선 결과 발표 후 훈신펙당과 삼랑시당이 연대하여 민주연합(Alliance of Democrats) 결성, 훈센 총리의 퇴진을 요구함에 따라 총선 이후 1년 가까이 새 정부 구성 지연
  - 2003년 9월 제3대 국회 개원식 개최(체아심 상원의장 주재, 훈신펙당 및 삼랑시당 소속 의원 전원 불참)
  - 2003년 10월 제3대 국회의원 당선자 선서식 개최(당선자 123명), 전원 참석

- 2003년 11월 시하누크 국왕 주재 아래 3당 대표자회의에서 3당 연립정부 구성(총리 지명권은 국민당이 보유)과 라나리드 훈신펙당 총재를 국회의장으로 임명한다는 차기 정부 구성 원칙에 합의
  - 민주연합 측의 비협조로 새 정부 구성이 지연되자 시하누크 국왕은 훈센 총리의 총리직 계속 수행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신병 치료차 출국

- 2004년 6월 초 훈센 총리와 라나리드 훈신펙당 총재 간의 여야 영수회동을 통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한 데 이어, 내각 구성을 위한 26개 부처 각료직 배분 및 연정 운영 방안 합의
  - 국회 원 구성 및 연립정부 내각 인준안 동시 표결

- 체아심 국민당 총재는 상원의장, 라나리드 훈신펙당 총재는 국회 의장으로 추대
- 훈센 총리를 정부 수반으로 하는 국민당-훈신펙당 간 연립정부 구성
- 복수장관제로 운영되는 내무·국방·재경부의 3개 특별부처를 제외한 23개 일반 부처는 국민당에서 14명, 훈신펙에서 9명의 장관을 임명

• 2004년 7월 8일 여야 합의로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국회 원 구성 및 내각 인준안 동시 표결에 관한 헌법 절차 마련
- 양당 소속 전체 의원(99명) 중 96명 참석(삼랑시당 소속 의원 24명은 전원 불참), 참석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

• 2004년 7월 15일 국회 원 구성 및 내각 인준안 국회 통과, 제3대 국회 및 제3기 연립정부 공식 출범(총 26개 부처와 2개 외청)

라. 4차 총선과 제4기 정부(2008.7.~2013.7.)

• 2008년 7월 실시된 총선에서 훈센 총리가 소속된 국민당이 득표율 58.11%로 전체 123석 중 90석을 차지하는 압승
- 최근 3개년간 평균 11%의 경제성장을 통한 국내 경제 안정, 10개 야당이 선거에 참여한 데 따른 야당 분열, 각 지방까지 장악한 여당의 확고한 조직력, 프레아 비헤아 사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 훈신펙당은 기존 26석에서 2석만을 차지하는 참패를 하고, 삼랑시당은 26석, 신생 정당인 인권당과 라나리드당이 각각 3석과 2석을 획득

• 총선 압승 이후 구성된 제4기 정부의 첫 각료회의(2008.9.)에서 훈센 총리는 지난 3기 정부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사각전략' 2단계에 착수하여 지속적 경제발전 추진
※ 사각전략은 75쪽 참고

- 2008년 7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당 중심의 친정 체제가 구축되면서 훈센 총리의 입지 더욱 강화
  - 훈센 총리는 강력한 통치 스타일과 친기업 정책으로 캄보디아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6% 이상의 경제성장 달성

마. 5차 총선과 제5기 정부(2013.9.~2018.7.)

- 2013년 7월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당 국민당은 과반수 의석을 얻기는 했으나 의석수가 68석으로 줄어든 반면, 통합야당 구국당은 변화를 모토로 하여 55석을 차지하는 약진

- 선거 후 야당 구국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등원을 거부하여, 국민당은 9월 23일 국회를 단독 개원하고 새 정부 출범

- 약 1년간의 여당 단독 국회 운영 후, 여야 영수회담(2014.7.22.)에서 구국당이 국회 등원에 합의하여 2014년 8월 5일에 국회 정상화

- 2015년 하반기 이후 ▲켐소카 구국당 부대표 국회 부의장직 박탈(2015.10.) 및 체포 시도(2016.5.) ▲삼랑시 구국당 대표 체포영장 발부(2015.11.) ▲야당 의원 체포(2015~2016) 등 여야 정치적 갈등이 다시 심화

- 2017년 지방선거와 2018년 총선을 앞두고 캄보디아 정부가 국가안보 저해, 국가 분열 초래 등 사유로 정당 해산을 가능토록 한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야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여야 긴장 국면 심화
  - 미국·EU 등 서방측은 일련의 조치가 민주적 선거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캄보디아 정부에 문제 제기

바. 제6차 총선과 제6기 정부 출범 (2018.9.~2023.7.)

- 제1야당이었던 구국당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해산(2017.11.16.)되면서 비민주적 선거라는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서 2018년 7월 29일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당 국민당은 국회 총 의석 125석을 모두 차지

- 2018년 9월 5일 국회 개원, 9월 6일 제6기 정부 출범 및 훈센 총리 연임

- 훈센 총리는 비민주적 총선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완화하고자 여·야·정 대표 30명으로 구성된 '최고자문위원회'를 창립(9.9)하여, 야당의 국정 참여를 유도

- 2017년 9월 반역 혐의로 긴급 체포된 켐소카 구국당 총재는 2018년 9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되어 현재 자택에서 지내면서(국내 이동 자유, 정치활동 금지) 반역 혐의에 대한 재판 진행 중

- 제6대 정부 출범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일부 야권 인사 및 인권운동가 석방, 정당법 개정(2019년 1월 국왕 재가,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던 118명의 前 구국당 인사들의 정계 복귀 가능성 확보) 등 유화적 조치 시행

- 2019년 8월, 구국당 대표대행 삼랑시와 지도부는 2019년 11월 9일(캄보디아 독립기념일)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이에 대해 여당측이 주변국에 삼랑시 경유 금지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대응으로 입국 실패
  - 캄보디아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삼랑시와 귀국 시도 조력자들에 대해 반역죄 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궐석재판에서 20~25년형을 선고, 삼랑시 포함 전 구국당 고위 인사 일부는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
    ※ 캄보디아 정당법은 범법자의 정치참여 금지를 명시

- 2018년 프랑스 체류 중 구국운동(CNRM)을 출범시키고 해외 체류 구국당 인사들 간 투표를 통해 구국당 부대표로 선출되었음을 발표한 삼랑시에 대해 켐소카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이후 구국당은 삼랑시지지파와 켐소카지지파로 분열되는 양상을 지속하는 가운데 2022년 6월 4일 제5대 지방선거(기초의회 선거) 준비 과정에서 갈등 심화

- 삼랑시의 지지를 받은 촛불당이 5대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으로 부상하면서 2023년 제7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당과 유일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 야당들에 대한 국민의 지지 미약

- 2023년 제7대 총선을 앞두고 2017년 11월 구국당의 해산과 함께 대법원이 118명의 구국당 인사들에게 내렸던 5년간의 정치활동 금지 판결이 2022년 11월 해제됨에 따른 야권 인사들의 활동 재개 예상

사. 주요 이슈

1) 크메르루즈 문제

크메르루즈의 와해

- 크메르루즈는 시하누크 주도의 망명정부(1982), 파리평화협정(1991)에 참여했으나, 1993년 1차 총선에는 불참
- 시하누크 국왕은 크메르루즈에 무조건 휴전을 제안하고, 1994년 5월과 6월에 각각 평양과 프놈펜에서 원탁회의를 개최했으나 합의하는 데 실패
- 1994년 7월 캄보디아 의회는 크메르루즈를 대학살 책임자, 범죄 집단, 불법 단체로 공식 규정
  ※ 1994년 7월 11일 크메르루즈는 자체 정부 수립 발표
- 1996년 중반까지 크메르루즈는 캄보디아 북서부 태국 접경 밀림지대로 잠입, 그 지역 일대의 보석과 목재를 태국으로 밀수출한 재원으로 무력 저항 계속
- 1996년 2월 이래 국민적 화해를 위한 정부측의 투항 유도 노력과 장기전에 염증을 느낀 크메르루즈 병사들이 계속 투항
- 1996년 8~11월 정부측과의 협상을 통해 크메르루즈 정권의 외교장관을 역임한 이엥사리(Ieng Sary)가 약 2,400명의 크메르루즈와 함께 투항 – 정부측 사면 조치를 받은 이엥사리는 이후 현실정치 불참을 선언하고 정파 간 중립적 입장 유지
- 1998년 4월 폴포트 사망, 1998년 12월 키우삼판(Khieu Samphan)과 눈체아(Nuon Chea) 투항, 1999년 3월 타목(Ta Mok) 체포 및 잔여 크메르루즈 간부의 투항으로 크메르루즈 세력 와해

유엔에서의 논의 경과

- 1997년 6월 크메르루즈 내부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을 때, 라나리드 제1총리와 훈센 제2총리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크메르루즈 지도자 재판 실시에 국제사회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
  - 1997년 7월 무력충돌 사태 이후 크메르루즈에 대한 재판 추진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크메르루즈 붕괴 과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크메르루즈 지도자에 대한 재판 실시를 강력히 요구
- 1999년 3월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국제전문가위원회가 임시국제재판소 설립 제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였으나, 중국의 반대로 채택 무산
- 1999년 6월 훈센 총리는 기본적으로 국내 특별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되, 외국인 판·검사 일부 충원 등 국제적 요소를 가미한 절충형 추진 제시
- 1999년 5월 토머스 함마버그(Thomas Hammaberg) 유엔 사무총장 인권특사가 훈센 총리를 면담하고, 유엔 법률전문가 파견 및 캄보디아 국내법 제정을 위한 협력 방안 협의
- 1999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랄프 재클린(Ralph Zacklin) 유엔 법률담당 사무차장보를 단장으로 하는 유엔 대표단이 캄보디아 방문
- 2000년 2월 유엔 사무총장은 혼합법원을 구성하되, 재판소 운영에 관해"▲과반수의 외국인 판사 참여 ▲독립적인 국제검사 기용 ▲재판부에 의해 기소된 사람은 전원 체포 ▲사면이 기소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4대 원칙을 캄보디아 정부에 제시했으나, 훈센 총리는 이를 거부하고 우호국 출신 검사가 참여하는 국내 재판정 구성 방안을 제시
- 2000년 7월 한스 코렐(Hans Corell) 유엔 사무차장보와 소칸(Sok An) 캄보디아 관방장관, 크메르루즈 지도자 특별재판소 캄보디아 사법부 내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와 캄보디아 국내법 초안 작성
  - 양해각서(안)에 재판관·검사·행정직원 임명 절차 및 국제재판관 등에 부여할 특권 면제, 유엔과 캄보디아 간 재정 분담에 관한 규정도 포함
- 2000년 12월 캄보디아 정부가 크메르루즈 재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 2001년 10월 캄보디아는 일방적으로 재판소 설립을 위한 국내법을 제정 및 공포하고 유엔 측에 통보
  - 2002년 2월 유엔은 재판소 설립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협상 중단을 발표하고, 같은 해 7월 훈센 총리는 유엔 사무총장 앞 교섭 복귀 희망 서한 송부

크메르루즈 지도자 처리를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과 재판 진행

- 2002년 8월 유엔 사무총장은 캄보디아 정부와 특별재판소 건의 지속적 협의를 위해서는 유엔 총회나 안보리의 명확한 위임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했으며, 2002년 11월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위임권을 부여하는 결의안 채택
  - 한국·일본·프랑스·호주·캄보디아 등 15개국 공동제안(컨센서스로 채택)
- 2003년 1월 소칸 관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디아 대표단이 유엔을 방문, 유엔 및 캄보디아 정부 간 관련 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
- 2003년 3월 유엔 대표단이 캄보디아 방문, 크메르루즈 전범 기소에 관한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 간 협정 문안에 합의
- 2003년 6월 6일 캄보디아 국내법에 의한 크메르루즈 전범 기소에 관한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 간 협정 체결
- 크메르루즈 전범 기소를 위한 캄보디아 법정 내 특별재판소 설치 관련 캄보디아 국내법 제정
  - 2004년 10월 5일 국회 통과, 8일 상원 통과
- 2006년 7월 3일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정식 출범 및 4개 사례 재판 계획
  - Case 001 : 깡 켁 이우(Kaing Guek Eav, 일명 Duch, 투슬랭 감옥 소장)
  - Case 002 : 크메르루즈 최고지도자 4인(Nuon Chea 부서기장, Ieng Sary 외교장관, Ieng Thirith 사회장관, Khieu Samphan 정부수반)
  - Case 003(Meas Muth)과 Case 004(Yim Tith), Case 004/01(Im Chaem), Case 004/02(Ao An) : 크메르루즈 중견 간부
- 재판 진행 동향과 전망
  - Case 001은 항소심에서 2012년 2월 깡 켁 이우 소장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재판 종료
  - Case 002는 01과 02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Case 002/01 1심 재판부는 2014년 8월 7일 피고 키우삼판과 눈체아에 대해 종신형(최고형)을 선고하였고, 최고재판부의 상소심(2016.11.23.)에서 종신형 확정
  - Case 002/02에 대해서는 2015년 8월 시작된 증거 수집 공판을 통해 2016년 3월까지 총 증인 76명, 시민단체 38명, 전문가 3명의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증거 수집 공판은 2016년 3/4분기까지 지속

- 이후 2017년 변론공판을 마치고 2018년 11월 16일 개최된 판결 선고에서 두 피고인(눈 체아, 끼우 삼판)에 대해 각각 종신형이 선고되었고, 두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상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눈 체아의 사망(2019.8.4.)으로 현재 끼우 삼판에 대한 상소심 절차가 진행 중
- Case 003(Meas Muth)에 대해 합동수사판사실의 국내/국제 합동수사판사는 각각 기각/기소 결정문을 2018년 11월 28일 제출하였으며, 2021년 4월 7일 전심재판부의 국내/국제 재판관 역시 각각 기각/기소 결정문을 발표
- Case 004(Yim Tith) 사건의 경우 상반된 수사종결 명령에 대한 전심재판부의 결정 지연
- Case 004/01(Im Chaem)은 ECCC의 인적관할권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국제 합동수사판사 양측으로부터 기각 결정(2018.6.28.)
- Case 004/02(Ao An)에 대해서 합동수사판사실은 2018년 8월 16일 수사종결 명령을 내렸으며, 2020년 8월 10일 최고재판부는 ECCC의 관할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 종결을 결정
- 2021년 말 최종심 재판부(SCC)가 Case003(meas Muth), 004(Yim Tith)에 대한 수사종결을 선고함에 따라 현재 끼우 삼판에 대한 상소심만 남아 있는 상황이며, 주요 기여국들의 조속한 판결 희망으로 2022년 4분기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

■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는 예산 구조상 어려움(자발적 기여금에 의존)과 캄보디아 정부의 소극적 입장으로 앞으로도 재판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기여국(일본·프랑스 등)은 2022년 4분기까지 모든 사법 절차가 종료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

- 현재는 Case 002/02 항소심 사건의 판결과 잔여 업무 처리 준비만을 남겨둔 상태
- 우리 정부도 특별재판소 운영에 매년 50만 달러의 기여금 지원 / 2019년까지 총 512.5만 달러 기여(제12위 재정기여국). 2022년 2월 추가 50만 달러 지원

※ 정창호 재판관(2011.8.~2015.2.)에 이어 백강진 판사가 2015년 6월부터 2021년 말까지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 PTC) 국제재판관직 역임

2) 무력충돌 사태

무력충돌 발생 배경

- 1997년 3~4월 훈신펙당 소속 의원 8명이 반(反)라나리드를 선언, 라나리드 제1총리에게 정치적 타격 초래, 훈신펙당은 국회 다수당 지위 상실
- 1997년 6월 라나리드 제1총리와 혹룬디(Hok Lundy) 경찰청장 양측 경호원 간에 총격전이 벌어지는 등 양 정파 간 긴장 고조
- 1997년 7월 5일 양 정파 간 무력충돌 발생
  - 훈센 제2총리는 라나리드의 무기 불법 반입과 크메르루즈와의 불법 협상, 크메르 루즈의 도심 투입 행위 응징을 위한 조치였음을 강조하고, 훈신펙당은 라나리드가 아닌 다른 인사를 제1총리로 추대할 것을 촉구
- 무력충돌 발발 직후 일부 군인과 군복을 착용한 도적의 약탈이 자행되었으나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도심 질서는 곧 회복되고, 내무부 산하에 외국 투자업체의 약탈 보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 태국·말레이시아·호주·필리핀 등은 특별기 등을 이용하여 프놈펜 내 자국민 철수
- 수도권 지역은 곧 안정을 회복했으나 바탐방, 시엠립, 시하누크빌, 반테이 맨체이 지역 등에서 양 정파 간 소규모 분쟁 발생
- 1997년 7월 10일 캄보디아 정부는 내각회의 소집, 행정 업무 정상화
  - 1997년 7월 28일 외교단과 내·외신 기자 참관 하에 국회 개원
- 1997년 8월 6일 캄보디아 국회는 비밀투표로 훈신펙당을 대표하는 제1총리로 응훗(Ung Huot) 외무장관 선출
  - 출석 의원 총 99명 중 찬성 86표, 반대 4표, 기권 6표, 무효 3표
- 1997년 8월 7일 체아심 국가원수대행은 신임 제1총리 최종 인준 절차인 칙령(Royal Decree)에 서명, 응훗 제1총리 겸 외무장관 정식 취임
  ※ 2차 총선 후 1998년 11월 30일 총리에서 사임
-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응훗 제1총리에 대하여 헌법 규정 해석 문제와 함께 정통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1997년 8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체아심 국가원수대행, 훈센 제2총리 등과 시하누크 국왕을 알현, 국왕의 추인으로 해소

III

외 교

1. 개관
2. 주요 외교 사안별 입장
3. 지역 협력
4. 다른 나라와의 관계
5. 국제기구 가입 현황
6. 주요 협정 체결 현황
7. 수교 및 공관 설치 현황

1. 개관

- 역사상 빈번한 외침과 내란의 경험으로 캄보디아 헌법은 영구중립·비동맹 정책과 세계 모든 국가와의 평화공존을 대외정책 기조로 천명
  - 캄보디아의 중립성을 해하는 군사동맹 또는 군사협정 비가입
  - 캄보디아 영토 내 다른 국가의 군사기지 불허 및 유엔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자국 군대 해외 파병 금지(단, 방위와 안보를 위한 군대 훈련 및 장비 지원 형태의 외국 원조는 수용)
  - 핵무기,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의 제조·사용 및 저장 금지

- 1999년 4월 아세안 가입을 통해 양자 외교에 대한 지나친 편중과 높은 의존도에서 탈피, 지역 및 국제사회 편입 지속적 추구
  - 유엔(1955), OIF(1993), 아세안(1999), WTO(2004), ASEM(2004), 세계은행, IMF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기구에 가입

- 2002~2003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 후, 2010년 CLV(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CLMV(캄보디아·라오스·말레이시아·베트남)·ACMECS(Ayeyawady-Chao Phraya-Mekong Economic Strategy, 에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 전략체) 정상회의 개최에 이어 2012년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여 아세안 내 캄보디아의 역할 및 위상 제고
  - 2011년 최초로 개최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적극 지지하는 등 메콩 소지역 협력을 통한 후발 아세안 회원국의 개발 격차 해소 및 2015년 아세안 공동체 달성에 적극적 관심 표명
    ※ 에야와디(Ayeyawady)와 짜오프라야(Chao Phraya)는 각각 미얀마와 태국의 강(江) 이름
  - 훈센 총리는 한-메콩 협의체의 정상급 격상을 지속 요청
    ※ 2019년 11월 25~27일간 부산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 캄보디아 경제발전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및 다변화, 캄보디아 상품의 수출 시장 확대, 캄보디아 방문 외국인 관광객 확대 등 경제외교 강화 추진 중
  - 자유무역 및 WTO를 통한 다자무역 체제 강화 지지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2022.1.1. 정식 발효), 캄보디아-중국 FTA(2020년 서명, 2022.1.1. 정식 발효), 한-캄보디아 FTA(2021년 서명) 등 양자 및 다자 FTA도 적극 추진 중

- 전통적 우방 중국과 실질 협력 강화 및 태국·베트남·라오스 등 인접 국가와 국경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 안정 달성에 주력하는 한편,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주요 원조공여국(한국·미국·일본·유럽·호주 등)과의 관계도 강화
  - 베트남과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획정에 관한 조약(1985) 및 부속 조약' 체결 문제를 마무리(2005.12월 비준서 교환), 베트남과의 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되어 온 국경문제 해결의 진전(일부 국경은 아직 미해결)
  - 태국과는 프레아 비헤아 사원 인접 지역 국경 문제를 둘러싼 이견 지속
    ※ 2013년 11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사원의 주변지역이란 사원의 돌출 지역을 의미하며, 태국은 이 지역에서 군병력 등을 퇴거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결

-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분쟁의 핵심인 4.6km^{2}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여 양국 간 국경 분쟁의 여지 존재

- 2017년 제1야당(구국당) 해산 결정 및 지도부 체포 이후 미국·EU와의 관계는 경색되고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
  - 미국·EU는 상기 구국당 해산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야당 인사 석방을 촉구한 반면, 중국은 국가안보를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

2. 주요 외교 사안별 입장

가. 한반도 문제

- 캄보디아는 한반도 문제 관련, 남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지지해 왔으며, 북핵 문제에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지지

- 남북 문제에서 대체로 아세안 등 지역무대에서 컨센서스에 동참하면서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북한의 4·5·6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독자 규탄 성명 발표
  - 2010년 천안함 사태 당시 훈센 총리의 친서로 무력행위 규탄
  - 2016년 4·5차 북핵 실험 및 2017년 6차 핵실험 후 독자 규탄 성명 발표
  - 북한 핵실험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언급
  - 2018년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환영 입장 표명

나. 동남아 지역 이슈

- 동티모르의 2011년 아세안 가입 신청 관련 지지

- 남중국해 문제 관련, 2002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 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DoC) 채택을 주도하는 등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중국과 경제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남중국해 문제 관련 중국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2012년 캄보디아가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할 당시, 남중국해 관련 조항을 삽입하고 관련 국가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으로써 아세안 설립 후 최초로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공동성명 발표에 실패

- 2016년 중국-필리핀 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 결과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성명 발표에 적극 반대

다. 미얀마 문제

- 캄보디아는 2022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총리 및 외교장관이 직접 미얀마를 방문하는 등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 중
  - 훈센 총리의 미얀마 방문(1.7.~8.), 쁘락 소콘 부총리 겸 외교장관의 아세안 의장국 특사 자격 미얀마 1차 방문(3.21.~23.) 및 2차 방문(6.29.~7.3.), 미얀마 인도적 지원 협의회 개최(5.6.) 등
  - 캄보디아 총리 및 외교장관의 미얀마 방문이 미얀마 군부를 정당화한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캄보디아측은 현재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폭력 중단, 인도적 지원, 대화를 위한 환경 조성 등 우선 과제 제시

라. 우크라이나 사태

-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무력 침공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엔 총회 결의 중 일부 결의에 대해서는 공동제안국 참여 및 찬성
  - 우크라이나 침공(2022.3.2.), 인도적 상황(3.24.)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에 대해 공동제안국 참여 및 찬성
  - 러시아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2022.4.7.)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기권했으며,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관계당사자 간 외교 노력과 협상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

마. 중동 분쟁

- 독립주권 국가로서 팔레스타인의 불가양의 신성한 권리를 지지하며, 관련국들이 증오와 역사적 적대감을 버리고 항구적으로 폭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
  - 1967년 국경선을 토대로 한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 지지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 재개 촉구(2011년 외교장관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시 언급)

바. 대만 문제

- 대만 문제는 중국뿐 아니라 지역 및 세계 전체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간주
- 대만은 분리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로서 '진정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며, 중국의 '1국가 2체제' 방식의 통일정책을 지지하여,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등 중국 본토로부터의 모든 분리 독립 시도에 반대
- 이외에도 홍콩, 신장위구르 등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중국측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

사. 유엔 개혁

- 오늘날 변화된 국제 현실을 반영하고 복잡한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의 확대 개편을 지지하며, 특히 안보리 내 개도국의 대표성 증진 필요성을 강조
- 일본·독일·인도가 상임이사국이 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지하며, 아시아·아프리카·중동·남미를 대변하는 비상임이사국도 늘려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15~25개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

3. 지역 협력

가. 개 요

- 1999년 4월 열 번째로 아세안에 가입한 이후 2002년에 의장국을 수임하고 2002년 11월 GMS 및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 ACD(Asia Cooperation Dialogue) 참여, ASEM 가입(2004.10.), 2012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 2020년 제13차 ASEM 정상회의 개최(2018.10. 확정) 등을 통해 지역 협력 무대에서 캄보디아의 위상 강화 노력
-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 5개국 경제협력전략 ACMECS, CLV 정상회의, CLMV 정상회의에 따라 장기적 안목에서 경제개발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
  - 2003년 11월 제1차 ACMECS(Ayeyawady-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정상회의 개최(태국·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 2004.5월 가입)
  - 2004년 11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제1차 CLMV 정상회의
-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태국·베트남·라오스와의 실질 협력에 걸림돌이 되어 온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개발삼각지대' 구상 실현을 통한 공동번영 추구

나. ASEAN 가입

- 1994년 아세안 옵서버 지위 획득
- 1995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및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가입
- 1996년 4월 아세안 회원국 가입 신청서 제출

- 1996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라오스·미얀마와 동시가입 원칙 결정
- 1997년 7월 23일로 예정되었던 아세안 가입이 1997년 무력충돌 사태 등으로 무산되면서 라오스·미얀마만 가입
- 1999년 4월 30일 아세안의 열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2002년, 2012년에 이어 2022년 아세안 가입 이래 세 번째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였으며, 의장국 목표로 Addressing Challenges Together (ASEAN A.C.T.) 제시

다. ASEM 가입

- 제5차 ASEM 정상회의에서 ASEM 미가입 3개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동시가입 지지를 표명했으나, EU 측이 미얀마에 민주화 및 인권개선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미얀마의 ASEM 가입 수용 불가 입장 표명
- 2004년 7월 훈센 총리는 미얀마가 ASEM에 가입하지 못하면 캄보디아도 ASEM 정상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
- 제5차 ASEM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SOM(Senior Officials' Meeting, 고위급 회의)에서 13개 신규 회원국 가입 문제 타결
- 2004년 10월 제5차 ASEM 정상회의에서 EU 10개국 및 아세안 3개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ASEM 동시 가입
- 2020년 ASEM 의장국을 수임하고 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순연, 2021년 11월 제13차 ASEM 정상회의를 온라인 개최

4. 다른 나라와의 관계

가. 인근 국가

1) 태 국

- 1991년 10월 파리평화협정 체결과 최고국가평의회(SNC)의 본격 활동에 따라 같은 해 11월 대사를 파견, 훈센 정부와 적극적 교류 추진
- 그러나 2003년 1월 프놈펜에서 반태국 시위가 발생하여 주캄보디아 태국대사관과 태국인 소유 사업체 다수가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시적으로 국경이 폐쇄되고 외교 관계가 공사급으로 격하
- 이후 캄보디아가 외교장관 파견을 통한 공식 사과와 피해보상(2,100만 달러) 등 관계개선 조치로 양국 관계 정상화
- 2009년 12월 캄보디아가 탁신(Thaksin) 前 태국 총리를 경제특별고문에 임명한 것으로 양국 대사 소환 등 관계 악화
  ※ 당시 탁신은 태국에서 국가반부패법 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2년형을 선고받고 해외 도피 중
- 2008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가 프레아 비헤아 사원을 캄보디아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에 반발하여 사원에 진입한 태국 시위대 3인을 캄보디아 군대가 억류하자, 태국도 군대를 파견하여 양측 군대 대치
- 2000년 양국은 국경문제 해결 위해 공동국경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9년까지 위원회를 6~7차례 개최
- 현재 태국 의회는 공동국경위원회에서 채택한 3개 합의의사록(내용 비공개)에 대해 미동의

- 2010년 8월 탁신 전 태국 총리가 경제고문직을 사임한 후, 2010년 9월 미국-아세안 정상회담, 2010년 10월 ASEM 정상회담 및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관계개선 및 국경선 획정 문제 협의

- 2010년 12월 프레아 비헤아 사원 부근 캄보디아 영토 표식 설치 및 캄보디아 국경 침범 태국 의원 등을 체포함으로써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2011년 2월 프레아 비헤아 사원 부근에서 무력충돌 발생
  - 이에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가 소집되었으며, 아세안 의장국 인도네시아의 옵서버 파견 등 아세안의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 등 추진
  - 2011년 4월 캄보디아는 1962년 판결 해석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 2012년 4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심리
  - 2013년 11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사원의 주변지역이란 사원의 돌출 지역을 의미하며, 태국은 동 지역에서 군 병력 등을 퇴거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결
  -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대상 지역이 제한적이고 확정한 것이 아니어서 양국 간 국경 분쟁은 지속

- 2014년 태국의 쁘라윳 총리 집권 이후, 훈센 정부는 과거 탁신 및 잉락 총리 일가와의 밀월 관계 문제를 극복하려 노력 중이나, 태국 체류 불법 노동자 문제, 국경 문제 등으로 관계 발전은 불투명

캄보디아의 對태국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 도	교 역 액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2014	49	1,047	-997
2015	346	1,561	-1,215
2016	419	1,910	-1,490
2017	429	2,354	-1,924
2018	313	3,222	-2,908
2019	507	3,234	-2,726
2020	653	2,868	-2,214
2021	510	3,256	-2,745

출처 : IMF

2) 베트남

- 캄보디아는 1930년대 이후 베트남과 항불 독립 투쟁에서 서로 협력하여 밀접한 관계를 유지
  - 1975년 초 구 월남과 캄보디아(당시 크메르공화국)가 패망할 당시에는 월맹과 크메르루즈 공산세력이 공동보조 아래 군사 공세 감행

- 이후 캄보디아(크메르루즈)가 베트남의 인도차이나 주도권 장악 시도에 대항해 독자적 공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경 충돌 등 양국 관계 악화
  - 1978년 12월에는 베트남이 캄보디아 침공

- 베트남은 강력한 인도차이나 연방을 실현하기 위해 소련의 지원 아래 친중국계 폴포트 정권 축출 및 헹삼린 정권 수립을 지원하고 15만~16만 명의 군대 주둔

  ※ 1979년 2월 캄보디아-베트남 우호협력조약 체결

- 베트남은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해 1982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철군(1989년 1월 철군 완료)

- 1990년대 이후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CLV) 3개국 협력 체제의 기본틀 속에서, 특히 베트남과 정상을 포함한 각급 인사 교류 및 경제협력 등 양자 차원 우호협력 관계 강화

- 매년 CLV 3개국은 경제·과학·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질협력 증진 방안 논의

- 베트남은 캄보디아에 무상원조와 기술협력 확대

- 2005년 12월 양국 관계 증진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국경 문제와 관련,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획정에 관한 조약(1985) 및 부속조약을 체결(2005.12.6. 비준서 교환)하고, 국가경계획정공동위원회가 조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이며, 2020년 말까지 국경 84% 획정에 대해 합의 완료 훈센 총리는 2022년 5월 현재 남은 국경 16% 중 6%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2022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전 베트남 총리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국경 6% 획정 합의 문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했다고 언급
  - 야당 측은 1985년은 캄보디아 정부가 베트남의 영향력 하에 있던 시기로, 이 시기에 체결한 조약과 이를 바탕으로 2005년에 체결한 조약은 베트남에 유리한 조약이라면서 정부·여당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 훈센 총리, 헹삼린 국회의장 등 정부·여당의 핵심 지도자들이 과거 베트남의 지원 하에 폴포트 정권을 축출하고 정권을 수립했던 경력 등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캄보디아 국민은 뿌리 깊은 반베트남 정서 보유
  - 야당은 이러한 반베트남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노력 중

캄보디아의 對베트남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 도	교 역 액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2014	96	870	-773
2015	185	926	-741
2016	229	1,415	-1,186
2017	325	1,682	-1,356
2018	361	2,220	-1,859
2019	359	2,724	-2,365
2020	387	2,656	-2,268
2021	1,560	2,986	-1,425

출처 : IMF

나. 주요 국가

1) 중 국

- 캄보디아는 오랜 역사 속에서 중국과 교류를 이어왔고, 독립 이후에는 원조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오늘날에도 중국과의 관계가 밀접
  1958년 양국 간에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친미·친서방 우익 노선의 론놀 정권(1970~1975) 기간, 친베트남·친소련 노선의 캄푸치아 인민공화국(1979~1993) 기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우호협력 관계 유지
  - 양국 상주 대사관은 폐쇄되었다가 1993년 재개

- 2001년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2002년 리펑 총리, 2009년 시진핑 부주석, 2016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문 등으로 양국 우호협력 관계 증진의 기반 강화

- 중국은 캄보디아에 2003년까지 연평균 500만~600만 달러의 소규모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2004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유·무상 원조 제공, 부채 탕감, 민간투자 확대 등으로 양국 실질 협력 관계가 급속도로 확대

- 2010년 12월 훈센 총리의 중국 공식 방문 시 양국 관계를 선린우호 파트너 관계에서 포괄적·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로 격상
  - 중국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특히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에 중국 남부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중점적 경제 지원

- 2017년 캄보디아 대법원의 제1야당(구국당) 해산 결정 및 지도부 체포에 대해 미국·EU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서방과 캄보디아 간 관계는 경색된 반면, 중국은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표명하면서 캄보디아-중국 간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
  - 2019년 1월 훈센 총리 중국 국빈방문, 2019년 5월 제2차 일대일로 포럼 참석 계기 훈센 총리 중국 방문 등을 통해 중국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시하누크빌 개발, 고속도로 건설 등 캄보디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중국의 투자 적극 유치

- 2020년 2월 훈센 총리는 코로나19 사태 관련 중국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중국 전격 방문(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중국을 방문한 첫 외빈),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면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강조
  - 캄보디아는 중국산 시노팜, 시노백 코로나19 백신을 대규모 지원 및 공급받아 2022년 6월 기준 전체 인구 94% 접종률 달성,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의 백신 접종 캠페인 성공은 중국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수차례 중국측에 사의 표시

- 중국은 매년 수억 달러의 원조를 캄보디아에 제공해 왔으며, 건설·인프라·농업 등의 분야에서 막대한 규모의 투자(국가 순위 1위) 진행
- 경제·개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남중국해 등 국제 이슈에 대해서도 양국은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캄보디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물론 홍콩, 위구르 신장 등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해 확고한 중국측 지지 입장 표명

캄보디아의 對중국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 도	교 역 액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2014	356	3,710	-3,353
2015	405	3,926	-3,520
2016	609	4,550	-3,941
2017	753	5,286	-4,533
2018	858	6,139	-5,280
2019	1,012	7,585	-6,573
2020	1,089	7,098	-6,009
2021	1,406	9,757	-8,351

출처 : IMF
※ 홍콩·마카오는 제외

2) 일 본

- 2차 세계대전 중반 이후 일본군이 프랑스 지배 아래 있던 캄보디아에 진주,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했으나 1945년 패전과 동시에 프랑스에 캄보디아 통치권 이양

- 1953년 시하누크 국왕의 일본 방문 후 11월, 캄보디아의 독립과 거의 동시에 외교 관계 수립
  - 1975년 민주캄푸치아공화국 수립(크메르루즈 정권) 이후 대사관이 폐쇄되었다가 1992년 3월, 17년 만에 다시 개설

- 일본은 1991년 캄보디아에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 이후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개발원조(무상원조 67.5%, 기술협력 23.9%, 차관 8.6%) 제공

- 일본은 1991년 평화협정 체결 이래 캄보디아 재건 및 국가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
  - 캄보디아에 대한 일본의 민간투자는 아직 적은 편이나 베트남·태국·캄보디아·미얀마·인도를 잇는 동남아 지역 수평축의 경제권 개발에 관심
  - 일본은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 예산의 약 50% 기여
  - 캄보디아 정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공개 지지

- 일본과 캄보디아는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2022년 4월 훈센 총리는 제4차 아시아태평양 물 정상회의 참석 계기 일본을 방문,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기시다 총리는 2023년 양국 외교 관계 수립 70주년 계기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화답

- 일본의 아세안 중시 정책에 따라 캄보디아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 내 경제적 여건 악화로 일본 기업의 對캄보디아 투자 규모 증가 추세

- 2013년 아베 총리 캄보디아 방문, 2014년 기시다 외상 캄보디아 방문, 2018년 고노 외상 캄보디아 방문, 2013년, 2015년, 2018년, 2019년, 2022년 4월 훈센 총리 일본 방문, 2022년 3월 기시다 총리 캄보디아 방문 등 고위급 인사 교류도 지속

캄보디아의 對일본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 도	교 역 액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2014	344	263	80
2015	571	422	146
2016	827	528	298
2017	850	583	266
2018	1,076	736	339
2019	1,140	887	252
2020	1,062	651	410
2021	1,140	809	331

출처 : IMF

3) 미 국

- 캄보디아는 미국과 1953년부터 10년간 약 4억 달러의 무상원조와 8,300만 달러의 군사지원을 받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1960년대 초반 관계가 악화되어 1965년 외교 관계 단절
- 1969년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으나, 1975년 크메르루즈 정권 수립과 함께 재단절

- 1991년 10월 파리평화협정 체결로 같은 해 프놈펜에 미국 대표부 사무소가 개설되고 1992년 미국은 그간 실시해 온 캄보디아 금수 조치 해제
  - 1993년 캄보디아 왕국이 수립됨에 따라 1994년 5월 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승격

- 1997년 훈센 당시 제2총리가 라나리드 제1총리를 축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 의회는 對캄보디아 정부 원조를 금지시키는 등 양국 관계 경색

- 2003년 무렵부터 양국 관계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해 2008년 8월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이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훈센 총리 및 호남홍 외교장관과 회담을 열고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지원과 對캄보디아 경제 지원 약속

- 캄보디아 정세가 안정되면서 9·11 사태 이후 캄보디아의 대테러 관련 협조 등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 캄보디아는 대테러, PKO 및 지뢰 제거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국제사회 협력에 참여

- 2010년 10월 클린턴 국무장관 공식 방문, 2011년 1월 제1차 미국-캄보디아 국방대화 개최, 2011년 3월 미국-메콩하류지역 협력 이니셔티브(LMI) 실무회의 프놈펜 개최 등 양국 관계 점진적 발전

- 론놀 정권 당시 약 2억 7천만 달러 규모(현재는 원리금 합계 약 7억 달러 규모 추산)에 이르는 對미국 부채 문제가 양국 현안으로 계류 중, 캄보디아 정부측은 동 부채를 개발원조로 전환해 줄 것을 희망

- 미국은 캄보디아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류의 최대 수출 시장이며 상당한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국은 우호 관계 유지

- 그러나 2017년 야당 해산 및 2018년 제6대 총선을 전후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었으며, 최근 미국은 캄보디아 레암(Ream) 해군기지의

중국군 기지화 가능성 등 역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 야당 인사 탄압 등 캄보디아 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 제기

- 레암 해군기지 관련, 미국측은 미국이 자금을 지원한 2개 해군기지 건물이 사전공지 없이 철거된 데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캄보디아 내 중국군 기지가 캄보디아 주권을 훼손하고 역내 안보를 위협하며 미-캄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반면, 캄보디아측은 동 사업은 중국의 무상원조를 통한 해군기지 현대화 사업이라고 반박하면서 캄보디아 영토 내 외국 군사기지 또는 외국군 주둔을 불허하는 캄보디아 헌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

  - 2012년 아세안 회의 계기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 캄보디아 방문, 2016년 케리 국무장관 캄보디아 방문, 2016년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훈센 총리 미국 방문, 2022년 5월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훈센 총리 미국 방문 등 양국 간 고위급 인사 교류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

캄보디아의 對미국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 도	교 역 액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2014	2,000	260	1,739
2015	2,136	229	1,907
2016	2,147	173	1,973
2017	2,408	196	2,211
2018	3,044	266	2,778
2019	4,414	318	4,095
2020	5,333	252	5,080
2021	7,069	303	6,765

출처 : IMF

4) 러시아

- 러시아는 1950년대에 캄보디아와 수교했으나 크메르루즈 집권기에 대사관을 철수

- 1979년 친소련 세력이 베트남을 앞세워 친중국 세력인 크메르루즈를 축출한 이후, 1980~1990년대 초반까지 각종 물자와 기자재 제공, 엔지니어 파견, 수천 명의 유학생 초청사업 등과 함께 총 15억 달러 규모(유상원조)의 차관 지원
  - 차관 상환 문제는 오랫동안 양국 간 현안이었으나, 2018년 10월 제12차 ASEM 정상회의(브뤼셀) 계기 훈센 총리와 메드베데프 총리 면담 시, 러시아가 15억 달러를 부채가 아닌 투자로 인정하는 데 동의 (사실상 상환 불이행에 합의)

- 현재는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나, 2016년 러시아-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러시아 공식 방문 시 훈센 총리는 푸틴 대통령, 메드베데프 총리와 농산물 수출 확대, 기존 무역협정 개정 등에 대해 협의하는 등 협력 확대 위해 노력 중

5. 국제기구 가입 현황

가. UN

- 1955년 캄보디아, 유엔 가입
- 199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포괄적 캄보디아 평화안 채택
- 1992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캄보디아 과도행정기구(UN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 UNTAC) 설립, 1992~1993년간 활동하며 UNTAC 주관 하에 제1차 총선(1993.5.23.~28.) 실시
- 1997년 7월 무력충돌 사태 이후, 주유엔 캄보디아 대표부에서 훈신펙당의 시소왓(Sisowath) 대사와 국민당의 욱 보리스(Ouch Borith) 차석대사 간에 대표권을 둘러싼 분쟁 발생
- 라나리드 왕자가 1997년 9월 개최된 제52차 유엔 총회에 참가 연설을 하겠다고 신청, 법적으로 누가 캄보디아를 대표하는지를 두고 혼선 초래

  - 무력충돌 사태 이후 라나리드 왕자 대신, 당시 외무장관이던 응홋이 제1총리로 임명된 상태

- 1997년 9월 2일 시하누크 국왕이 응홋 제1총리 및 훈센 제2총리를 유엔 총회 수석대표로 임명하여 캄보디아의 유엔 총회 대표권 문제는 일단락

  - 유엔 신임장위원회 심의 결과, 캄보디아 의석은 결석인 것으로 확인

- 1998년 12월 4일 유엔 신임장위원회는 캄보디아 정부가 제출한 욱 보리스 대사의 신임장 심사 후 만장일치로 승인

- 1998년 12월 7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위 신임장이 승인된 직후 캄보디아의 유엔 대표권 회복
  - 호남홍 외교장관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캄보디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유엔과 관심 국가들의 역할에 사의를 표명하고, 유엔인권센터의 캄보디아 내 임무 연장 등 유엔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요지로 연설
- 2001~2002년 제56차 유엔총회 부의장국 수임
- 2018~2019년 제73차 유엔총회 부의장국 수임
- 2019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이사국 수임(1년 임기)
- 캄보디아군은 유엔평화유지(PKO) 활동에 적극 참여
  - 2006년부터 유엔평화유지 활동에 참가하여 누적 8천 명 이상 파견
  - 2022년 4월 기준 말리(290명), 중앙아프리카공화국(225명), 레바논(180명), 남수단(85명), 아비에이(1명) 등 PKO 781명 파견

나. WTO 가입

- 1994년 12월 캄보디아 WTO 가입 신청 및 WTO 캄보디아 가입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설치
- 1999년 6월 캄보디아 정부, 대외무역제도에 대한 각서 제출
- 2001년 5월 이후 여러 차례 WTO와 W/G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일본·EU·호주 등과의 양자 협상도 개최
- 2001년 12월 캄보디아 정부, 상품 및 서비스 최초 양허안 제출
- 2003년 9월 WTO 각료회의에서 캄보디아의 WTO 가입 확정
- 2004년 9월 캄보디아 국회에서 WTO 가입안 비준하여 10월 가입
- 2017년 캄보디아는 WTO 내 최빈개도국(LDC) 그룹 의장직 수임

6. 주요 협정 체결 현황

- 아동권리협약 : 1992년 9월 22일 서명, 1992년 10월 15일 비준
- 무력분쟁 하 아동에 관한 선택의정서 : 2000년 6월 27일 서명, 2002년 5월 30일 비준
- 아동의 매매, 매춘,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 2000년 6월 27일 서명, 2002년 5월 30일 비준
- 여성차별철폐협약 : 1992년 9월 22일 서명, 1992년 10월 15일 비준
-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 2001년 11월 11일 서명, 2005년 8월 31일 비준
- UN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 2001년 11월 11일 서명, 2005년 11월 25일 비준
- 지뢰금지협약 : 1997년 12월 3일 서명, 1999년 7월 28일 비준

7. 수교 및 공관 설치 현황

가. 수교국

- 우리나라를 포함, 총 175개국과 외교 관계 수립
  - 유엔 회원국 171개국 및 비회원국 4개국(사하라 아랍민주공화국, 교황청, 팔레스타인, 몰타기사단)

나. 캄보디아 재외공관

- 대사관(28)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태국, 독일, 호주, 쿠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 프랑스, 북한,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얀마, 벨기에, 스위스(제네바 대표부 겸임, 제네바 소재), 쿠웨이트, 불가리아, 이집트, 세르비아, 튀르키예

- 대표부(3) : 유엔 대표부, 유네스코 대표부, 아세안 대표부

- 총영사관(12) : 홍콩, 상하이, 광저우, 충칭, 쿤밍, 난닝, 시안, 하이커우, 지난(이상 중국), 호치민(베트남), 사키우(태국), 빡세(라오스)

- 명예영사관(18) : 오사카, 나고야, 센다이(삿포로), 후쿠오카(이상 일본), 워싱턴, 펜실베이니아,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이상 미국), 취리히(스위스), 라호르(파키스탄), 이스탄불, 리옹, 툴루즈(이상 프랑스), 프랑크푸르크(독일), 왈롱(벨기에), 텔아비브(이스라엘), 밀라노(이탈리아), 토론토(캐나다)

다. 주캄보디아 외국 공관

- 상주 대사관(30) : 한국, 베트남,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러시아,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일본, 미국, 북한, 쿠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브루나이, 미얀마, 불가리아, 파키스탄, 스웨덴, 쿠웨이트, 튀르키예, 체코, 동티모르, 헝가리

- 대표부(1) : EU 유럽위원회

- 총영사관(3) : 베트남(시하누크빌, 바탐방), 라오스(스퉁트렝)

- 분관(5) : 중국(시엠립, 시하누크빌), 일본(시엠립), 캐나다(프놈펜), 스위스(프놈펜)

- 명예영사관(8) : 오스트리아(프놈펜), 벨라루스(프놈펜), 이탈리아(프놈펜), 벨기에(프놈펜), 프랑스(시엠립), 러시아(시엠립), 영국(시엠립), 영국(시하누크빌)

- 국제기구 상주사무소 : UNDP, UNFPA, UNICEF, UNESCO, UNOHCHR, UNAIDS, FAO, WHO, WFP, ILO, IFRC, ICRC, IOM, IMF, 세계은행 등

IV

경 제

1. 개관
2. 경제발전 전략
3. 경제 현황
4. 무역 동향
5. 투자 환경

1. 개 관

- 캄보디아는 2019년 이전까지 연 7%대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2021년부터 회복세
  - 2020년도 캄보디아의 경제성장률은 -3.1%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2021년도에는 3.0%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4~5%대로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
  - ADB·IMF·WB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캄보디아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의 높은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산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제언

- 2021년 1인당 GDP는 1,648달러(캄보디아 통계청)로, 저소득국을 벗어나 2015년부터 중저소득국 지위 획득
  ※ 세계은행 중저소득국 기준 : 1,046~4,095달러

- 캄보디아의 재정수지는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해 오다 2014년 이후 세수 현대화 전략 등의 시행으로 2018~2019년에는 흑자재정으로 전환되었으나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다시 적자로 전환
  - 캄보디아는 낮은 세수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의 80% 이상을 조세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나타냄에 따라 국제금융기구들은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재산세 확대, 자본소득세 신설 등을 권고

- 캄보디아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산업 다각화, 선진기술 도입, 고용창출 등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력

- 외국인투자 장려와 투자 안전 보장 위해 뉴욕 협약(1958)을 비준하고 국제 상업 중재에 관한 UNCITRAL Model Law 제정, MIGA 규정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시행법률 등 채택
- 1989년 시장경제 도입, 1994년의 외국인투자법 제정·시행 및 투자개발위원회(CDC)를 통한 투자 절차 간소화, 2003년 및 2021년 외국인투자법 개정 등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제도적 노력을 지속

• 위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캄보디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9년까지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여파,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크게 감소

연도별 캄보디아 투자 신고액

(단위 : 백만 달러)

2017	2018	2019	2020	2021
5,216.9	5,875.8	8,166.6	6,465.5	1,718.7

※ CDC 신고 집계된 캄보디아 투자 통계로 실투자 금액이 아닌 신고 금액으로 매년마다 변동이 큼.
※ 단, 캄보디아 투자개발위원회가 집계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통계보다 훨씬 높은데, 그 이유는 CDC가 투자 프로젝트 계획상의 총 고정자본 투자액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기 때문

- 캄보디아 투자개발위원회(CDC)에 따르면 캄보디아 전체 투자 신고액 중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2018년 기준)은 66.1%로 캄보디아는 투자의 대부분을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존
- 캄보디아 투자개발위원회(CDC) 및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에 따르면 2021년 말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가별 비중은 중국이 48.2%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싱가포르 8.3%, 한국 8.1%, 일본 5.9% 등의 순
- 업종별(2021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기준)로는 금융 부문이 전체 유입액의 1/3가량을 차지하며 금융 부문 이외에는 제조업, 건설·부동산 비중이 높음

- 캄보디아는 제조업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소비재와 자본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달러화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주력

-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및 집행의 투명성 부족, 비공식적 규제로 인한 부담, 제조업의 낮은 생산성, 전기 부족 등 취약한 인프라는 외국인의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2. 경제발전 전략

- 캄보디아 정부는 2004년 '국가전략개발계획(NSDP,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수립 이래 매 5년 주기로 '사각전략(RS, Rectangular Strategy)' 발표

- 캄보디아 정부는 2019~2023년 제4기 사각전략을 발표한바, 제3기 사각전략과 비교 시 기존 4개 기본 원칙 및 목표를 유지하면서 4대 전략 주요 내용은 다소 변화

가. 사각전략의 기본 원칙 및 목표

- 성장 : 기간 내 7% 경제성장 목표
  - 경쟁력 있고 다변화된 산업구조 조성, 안정된 성장, 물가 안정, 환율 안정, 외환보유고 안정적 확보, 안정적 부채 관리

- 고용 : 청년층의 질적·양적 고용 확보 목표
  - 젊은층에게 기술교육, 취업 정보 제공, 노동환경의 개선, 기업 창업 및 민간투자 기술 교육

- 형평성 : 빈곤인구 비율 10% 이하로 감축 및 빈곤층으로의 회귀 방지
  - 시장 메커니즘 참여 유도, 사회보호정책의 실행, 서민 생활비 절감,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 불공정 감축

- 효율성 : 국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제도적 능력 및 거버넌스 강화
  - 국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 체계 구축,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및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 추진

나. 사각전략 4대 전략 내용 변화

전략	3기 사각전략	4기 사각전략
1	농업(Enhancing Agriculture Sector)	인적자원개발(HRD)
2	인프라(Development of physical infrastructure)	경제 다변화 (Economic Diversification)
3	민간 및 고용(Development of private sector and employment)	민간 및 고용 (Enhancing Private Sector and Employment)
4	역량강화 및 인적자원개발 (Capacity Building and HRD)	지속적 포용적 발전(Sustainable and Inclusive Development)

다. 각 전략별 세부 주요 과제

- 인적자원 개발
  - 교육의 질 확보 및 과학기술(STEM) 교육 강화
  - 기술 및 직업교육
  - 공공보건 및 영양
  - 양성평등 및 사회보장제도

- 경제 다변화
  - 물류 개선 및 교통-에너지-디지털의 연결
  - 신경제성장 동력 개발
  - 디지털경제 및 4차 산업혁명 준비
  - 금융 및 은행 시스템의 발전
- 민간 및 고용
  - 노동시장 발전
  - 중소기업 및 창업 발전
  - 민관협력(PPP)의 준비 및 실행
  - 경쟁력 강화
- 지속적·포용적 발전
  - 농업 및 농촌 발전
  - 천연자원 및 문화 지속성 강화
  - 도시 관리
  - 지속가능한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3. 경제 현황

가. 주요 부문별 현황

1) 국내총생산(GDP)

- 캄보디아는 2019년 이전까지 연 7%대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부터 회복세

구 분	단 위	2017	2018	2019	2020	2021
GDP	억 달러	222	245	270	260	270
1인당 GDP	달러	1,429	1,555	1,694	1,606	1,648
GDP 성장률	%	7.0	7.5	7.1	-3.1	3.0

출처 : 캄보디아 통계청

2) 물가상승률

-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7~2019년에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2%대의 물가상승률을 나타냈으며, 2020년 및 2021년에도 3% 미만의 안정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 기록
  - 그러나 2022년에는 국제유가, 식량 가격 상승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음

(단위 :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소비자물가상승률	2.9	2.5	1.9	2.9	2.9

출처 : 캄보디아 중앙은행

3) 재 정

-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해 오다 2014년 이후 세수 현대화 전략 등의 시행으로 2018~2019년에는 흑자재정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로 전환

4) 환 율

-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1달러당 4,050~4,100리엘 수준에서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
  - 2021년 달러당 리엘 평균 환율은 4,099를 기록

나. 산업별 현황

1) 캄보디아 산업 구조

- 캄보디아 기업의 45%는 식품제조업, 35%가 의류·신발 등 단순 봉제업
  - 전체 7만 7천 개의 기업 중 영세기업이 97.3%, 중소 중견기업이 2.2%, 대기업이 0.6% 차지
  - 대기업이 인력의 63.3%를 고용하고 있으며, 대기업 중 63%가 외국계

2) 1차산업(농림수산업)

- 2018년 기준 캄보디아 1차산업의 생산 총액은 GDP의 23.5%이며, 전체 노동인구의 7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농업에 종사
- 캄보디아는 비교적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어 농작물 재배에는 유리하나 관개시설이 부족하고 농자재 생산 및 수급, 유통 구조 등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하여 전체 작물 생산성이 낮은 편
- 중심 작물은 쌀로 전체 경작지의 70%가량이 벼농사를 하고 있으며, 쌀 이외의 작물로는 고무, 옥수수, 카사바, 사탕수수, 슈가팜, 캐슈넛, 망고, 후추 등을 재배
  - 2019년 기준으로 총 27만 톤의 쌀을 수출했으며, 이 중 EU에 43% 가량을 수출
- 캄보디아는 농산물 수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022.1월 발효), 캄보디아-중국 자유무역협정(CCFTA, 2022.1월 발효), 한-캄 FTA 등을 통해 농산물의 수출 확대 도모

3) 2차산업

- 2018년 기준 제조, 건설업 등 캄보디아 2차산업의 생산 총액은 GDP의 34.4%를 차지

- 섬유·봉제산업은 최대 주력 산업으로 약 800개의 업체가 약 75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의 75%를 차지
  - 캄보디아는 섬유·봉제산업의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봉제업체들은 수입한 원자재를 단순 가공하여 재수출
  - 캄보디아는 전기요금, 물류비 등이 인근 경쟁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에 의존하여 봉제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
  - 그러나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그만큼 개선되지 못함에 따라 봉제산업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
    ※ 캄보디아 최저임금 인상 현황 : 61달러(2012) →194달러(2022)

- 건설업은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직접투자 자금이 유입되어 인프라, 주거 및 숙박 시설 건설이 호황을 이루며 캄보디아 고성장에 크게 기여
  - 그러나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팬데믹,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자금 유입이 크게 줄면서 성장세 둔화

4) 3차산업(서비스업)

- 2018년 기준 3차산업은 전체 GDP에서 42.1%를 차지

- 관광산업은 세계적인 관광자원인 앙코르와트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다양한 관광지 개발 투자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는 빠르게 성장

- 2018년 관광수입은 4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661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캄보디아를 방문
-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2020년 131만 명, 2021년에는 17만 명 수준으로 감소

캄보디아의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연도	한국	베트남	중국	라오스	일본	미국	전체
2015	395,259	987,792	694,712	405,359	193,330	217,510	4,775,231
2016	357,194	959,663	830,003	369,335	191,577	238,658	5,011,712
2017	345,081	835,355	1,210,782	502,219	203,373	256,544	5,602,157
2018	301,770	880,128	2,024,443	426,180	210,471	250,813	6,201,077
2019	254,874	908,803	2,361,849	363,951	207,636	248,863	6,610,592
2020	55,935	182,199	329,673	34,352	41,257	55,973	1,306,143
2021	6,074	22,120	45,775	282	2,011	6,535	196,495

출처 : 캄보디아 관광부

- IT 분야의 경우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
  - 2016년 기준 이동통신 보급률은 139%로 두 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보유한 인구가 다수
  -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배달서비스, 차량호출서비스, 온라인뱅킹 활발
- 금융산업의 경우 금융시장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매년 15~20%의 고성장세 시현

-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캄보디아의 빠른 경제성장, 큰 폭의 예대금리차 등 수익 기회를 찾아 2021년 말 현재 17개 금융기관 진출

※ 캄보디아 진출 한국 금융기관 현황 : 은행 8개, 소액 여신사 8개, 증권사 1개

다. 시장 특성

- 봉제업을 제외한 여타 제조업이 거의 전무하여 기본 소비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소비시장
- 베트남·태국·라오스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인도차이나 지역의 밀무역 중개시장 역할
- 세계 최빈국을 벗어나 중저소득국에 진입했으나, 여전히 생활용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구매력이 약하여 중고 제품 위주의 시장 형성
- 계층 간·도농 간 소득 불균형 심화로 전체 소득이 소수 계층에 집중
- 전 인구의 약 14%가 거주하고 있는 프놈펜에 소비시장이 집중되어 있고 운송 수단이 열악하여, 유통 구조가 취약하며 상권 확장에 한계
- ADB·세계은행·IMF 등 국제금융기구와 한·중·일 등의 지원으로 교통, 수자원,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활발
- 민간 저축률이 매우 낮아 자체 재원 조달이 불가능하여 외국 자본 및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 체제
- 내전으로 인한 캄보디아 화폐 가치 신뢰도 저하 등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달러화가 자유로이 통용되는 달러 경제권 형성

4. 무역 동향

가. 개 요

- 캄보디아는 대부분의 기본 소비재와 유류를 수입에 의존하는 소비 시장의 특성상 무역수지 만성 적자 상태
  - 2020년 16억 달러, 2021년 111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에 따른 달러화 수요를 외국인 직접투자, 무상원조 등의 자본유입으로 보완
- 주요 수출 품목은 섬유, 봉제, 농산물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직물, 원유 및 석유제품,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전기기기, 담배, 의약품, 기타 섬유제품, 철강제품 등
- 2020년에는 섬유, 봉제, 농산물 등 주력 품목 수출 호조로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2021년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으로 원유 및 석유제품 등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

캄보디아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 출	10,787	12,368	14,824	17,716	17,572
수 입	16,070	19,560	20,277	19,294	28,700
총 교역량	26,857	31,928	35,101	37,010	46,272
무역수지	-5,283	-7,192	-5,453	-1,578	-11,129

출처 : 한국무역협회

나. 수출 동향

- 최근 캄보디아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봉제의류가 총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하며 그 외에는 농산물이 주력 수출 품목

- 2020년 2월 EU는 캄보디아 정부가 민주주의 법치를 무시하고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군수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무관세 또는 일반특혜관세(GSP)를 부과하던 EBA(Everything But Arms) 자격을 부분 철회하면서 주력 수출 시장인 EU에 대한 수출 환경이 악화

- 그러나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의 캄보디아산 의류용품에 대한 수요 증가, 수출 경쟁 국가인 베트남·미얀마 등의 경제 봉쇄에 따른 반사효과로 2020년과 2021년은 수출이 호조를 나타냄

- 2021년 기준으로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중국, 일본 순이며 한국은 16위

다. 수입 동향

- 캄보디아 수입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소비재 수요 급증, 봉제용 직물 및 원·부자재 수입의 증가, 부동산 개발로 인한 건축자재 수입 증가가 주요인이며, 2021년 이후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요인도 가세

- 캄보디아 전체 수입 중 약 30%를 제3국 재수출용 수입 품목이 차지
  - 직물 등 원자재를 캄보디아로 무관세 수입·가공하여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물량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

- 2021년을 기준으로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순이며, 한국은 10위

라. 수출입 관리제도

1) 수입 부과금

- 캄보디아 수입관세는 기본적으로 5단계 세율로 구분
  - 농업 소도구, 비료, 스포츠 용품, 의료 및 교육 원자재 : 0%
  - 필수소비재와 기초 원재료 : 7%
  - 중간재, 기계 및 시설 : 15%
  - 기타 소비재 및 건축자재 : 20%
  - 사치소비재·담배·주류·승용차 : 35%

- 일부 수입품에는 수입관세 외에 특별세 부과
  - 5% : 원유(Topped Crudes)
  - 10% : 윤활유(기타), 에어컨, 화장품, 전화기, 비디오 및 카메라 장비, 기타 과일 음료
  - 15% : 자동차용 디젤 연료, 등유
  - 20% : 필터담배
  - 25% : 윤활유(차량용), 시가
  - 30% : 맥주, 승용차(1,000cc 이하)
  - 35% : 포도주
  - 40% : 상용차(트럭 및 여객 차량 전체)
  - 60% : 승용차(1,000cc 초과~3,000cc 이하)
  - 65% : 승용차(3,000cc 초과)

2) 수출입 제도

- 캄보디아는 ① 국가 안전, ② 공공질서와 도덕성 준수, ③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 ④ 예술, 역사적 가치의 보호, ⑤ 천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
  - 우측 핸들 차량, 중고 컴퓨터, 중고 신발, 중고 가방, 중고 배터리, 폐타이어, 종교 및 정치 서적, 외설물 및 기타 법으로 금지된 출판물, 지식재산권 저촉 상품, 위조 물품, 독점권 위반 상품 등은 수입 금지

- 목재·제재목·보석류·골동품 수출에는 정부의 수출 사전승인 필요
- 모든 수출입 품목 통관 시에는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상업송장(Invoice) 등을 제출해야 하며, 베트남에서 메콩강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통관승인서(Transit License) 필요
- 라벨링 부착 의무는 없으며, 마약류·폭발물·독성화학물질 등은 수입 금지
- 상무부 산하기관 CAMCONTROL이 표준규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수입 시 구체적인 규격 준수 여부 등 지침이 아직 미정비

5. 투자 환경

가. 개요

- 캄보디아는 자본과 선진기술 도입, 고용창출 등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력
- 외국인투자 장려와 투자 안전보장을 위해 뉴욕 협약(1958)을 비준하고 국제 상업 중재에 관한 UNCITRAL Model Law 제정, MIGA 규정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시행법률 등을 채택
- 1989년 시장경제 도입, 1994년의 외국인투자법 제정·시행 및 투자개발위원회(CDC)를 통한 투자 절차 간소화, 2003년 및 2021년 외국인투자법 개정 등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제도적 노력에 힘입어 투자 여건 점차 개선

-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일부에 국한되며, 100% 외국인투자 지분을 인정
  - 투자 금지 분야는 2005년 9월 27일 개정된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No. 111에 구체적인 분야를 명시하는 Negative List 제도로 운영

-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사유재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유화 정책을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캄보디아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은 투자자가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통제할 수 없도록 입법 조치

- 캄보디아 정부는 인센티브를 필요로 하는 투자에 대해서만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가받은 대로 투자를 이행할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령으로 규정

나.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1) 기 능

- 캄보디아개발위원회는 1994년 캄보디아 정부가 설립한 일괄 투자 서비스 기관(One-Stop Service)으로,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투자 관련 각종 정보 제공 및 투자 인센티브 승인 여부 업무 총괄

- CDC는 주요 관세 및 세금 면제를 승인할 권한이 있으며, 기업 등록, 비자 및 고용허가 등 외국인 투자가의 현지 기업 활동 관리·지원

- 또한 캄보디아의 복구·개발 및 투자 활동에 관해 평가하고 승인하며, 투자신청서 접수 후 28일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

- 일정 규모 이상의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Q2P(적격투자프로젝트) 인정을 받아 세제 혜택을 누릴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진행

2) 조 직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장 : 훈센 총리
  - 제1부위원장 : 선임장관
  - 제2부위원장 : 총리 직속 장관

- 조직 구조 : 공공 및 민간부문 투자를 담당하는 부서와 특별경제구역(SEZ)을 관할하는 3개 부서로 구성
  - 캄보디아 복구 및 개발위원회 : 공공부문 투자 및 개발협력 담당
  -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 민간부문 투자 담당
  - 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청 : 특별경제구역투자 담당

다. 투자유치 관련 법규

- 1989년 7월 최초의 외국인투자법을 채택했으며, 이 법은 총 44개의 개략적 조항만을 포함

- 1994년 8월 국회에서 새로이 채택한 외국인투자법은 ① 투자 승인 기업체 법인세 면제 기간 부여, ② 원자재 및 생산설비 수입관세 면제, ③ 이윤 송금 자유화 등 대폭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어 인근 동남아 국가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투자법으로 간주

- 2003년 4월 캄보디아 국회는 투자법을 전면 개정하여 ① 법인세 감면율의 단일화 등 인센티브 제도 정비, ② 투자 제한 부문의 완화, ③ 투자 보장 강화, ④ 외국인 고용 허가, ⑤ 투자 인센티브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도모

- 또한 2021년 10월 투자법을 개정하여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용 산업을 기존 제조업, 농산업, 인프라개발사업에서 중소기업, 그린산업, 서비스 및 교육 등으로 확대하고 법인세 면제 제도 또한 확대

- 특히 외국인 투자 관련 모든 사항을 캄보디아 투자개발위원회에 위임, 각종 서비스 제공 및 투자 승인 과정 단축, 등록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노력 중

- 그러나 여전히 인허가 행정처리 과정상 투명성 부족, 업무처리 지연, 부패 등의 문제가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라. 투자우대제도

- 금융상 특별우대는 없으나 세제 면에서 집중 우대하고 있으며, 외환 송금에 제약이 없는 특혜 부여

-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투자 분야로 명시된 이외의 프로젝트는 투자 분야 및 규모에 따라 최장 9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다음 용도에 쓰이는 공장 건설자재, 생산수단, 장비, 중간재, 새로운 원자재 및 부품은 수입관세 100% 면제

  - 승인 프로젝트 : 공장 건설 자재, 생산수단 및 장비
  - 수출 프로젝트 : 수출용 원부자재 및 부품

- 또한 외국인 경영진 및 그 가족의 체재 허가,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시 체재 허가 등의 발급 편의를 제공하는 등 우대제도 시행

對캄보디아 외국인 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승인 기준)

2017	2018	2019	2020	2021
2,041.0	3,551.6	3,504.3	3,643.3	655.1

출처 :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주요 국가별 캄보디아 투자 신고액

(단위 : 백만 달러, 승인 기준)

구분	2019		2020		2021	
	국가	신고액	국가	신고액	국가	신고액
1	중국	1,321.4	중국	1,093.0	중국	339.8
2	영국	821.5	한국	262.8	홍콩	129.4
3	대만	57.7	대만	107.3	대만	97.0
4	한국	25.1	홍콩	106.5	태국	37.5
5	태국	16.8	말레이시아	94.7	미국	21.0

출처 :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 봉제 분야가 저임금을 기반으로 중국 등 여타 지역으로부터 이전이 늘어나면서 꾸준한 투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단지 및 주상복합건물 건축 등 건설·부동산 분야, 대형 리조트 개발 등 관광 분야의 투자도 활발

마. 외국인투자 제한

- 캄보디아 투자법 시행령에는 아래 5개 분야가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음.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내국인 투자도 금지
  - 산림법에 의해 금지된 목재 벌목
  - 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생산
  - 향정신성 물질 및 마약 제조 및 가공
  - 수입한 폐기물에 의한 발전 및 가공
  -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된 투자

- 법인세와 수입관세 면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투자 분야
  - 무역업, 운송서비스업, 면세점, 음식점, 상점, 가라오케, 바, 마사지 클럽, 매스컴 관련 산업, 도·소매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등

- 수입관세는 면제받을 수 있으나 법인세 면제가 불가능한 분야
  - 통신 기본 서비스, 천연가스 및 유전 개발, 광물자원 개발 및 유전 개발 활동에 대한 공급 등 2개 분야

- CDC의 투자 승인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이 금지되지만 해당 투자 프로젝트를 양도하거나 인수·합병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의 양도·인수 및 합병 시에는 사전에 CDC에 서면 신청하여 승인 필요

- 법적 절차 없이 기업을 해산하려는 경우, 모든 채권과 채무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경제재정부에 증명 필요

- 투자자가 기업 해산 승인을 받은 후에는 잔여 장비나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캄보디아 기업에 대한 매각 불가
  - 사용 연도가 5년 미만의 면세 수입된 기계·기기는 해당 수입관세를 납부한 후에 처분 가능

V

사회·문화

1. 사회일반
2. 교육
3. 치안
4. 교통 및 통신
5. 언론
6. 보건

1. 사회 일반

- 총인구는 1,670만 명(2020, CEIC Data)이며, 인구밀도는 87.0명/km^2
- 전체의 약 97%가 크메르족이고, 그 밖에 베트남계, 중국계, 참족, 고산족 등 소수민족
  - 크메르족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중국계는 상업에, 참족 및 베트남계는 어업에 주로 종사
  - 고산족으로는 시엠립주 동북부와 캄퐁톰주에 걸쳐 거주하는 쿠이족(Kuy) 약 1만 6,256명, 라타나끼리주에 거주하는 탐푼족(Tampuan) 약 8,095명, 몬돌끼리주에 거주하는 스티엥족(Stieng) 약 3,358명, 프농족(Bunong) 약 1만 2,148명 정도
- 헌법에서 불교를 국교로 규정하고 있고 전 국민의 약 95%가 불교(남방불교) 신자이지만, 헌법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
  -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원은 신앙은 물론 교육 및 사회 활동의 장소 역할도 수행
  - 참족을 포함한 3%가량이 이슬람교도이며, 기독교도는 약 2%
- 캄보디아인은 앙코르 제국의 후예라는 강한 자부심 보유
- 일반적으로 온순하고 친절한 편이지만 자존심이 강하며 체면을 중시
  -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친근하게 대화하며 외국인들에게도 친절한 편
  - '압묵'이라는 급변하는 성미가 있어 현지인을 비하하거나 구박하는 행동을 하면 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 전통 의상으로 여성은 '사롱'이라는 큰 천으로 된 옷을 입고 머리에는 '끄로마'라는 천을 두르며, 남성은 '사롱솟'이라는 의복 착용

• 결혼식은 주로 건기인 12~5월 사이에 집 앞의 도로 또는 공터에 천막을 치고 이틀 정도 진행하는데, 아침에는 전통 혼례식을 치르고 저녁부터는 피로연 형식으로 진행

2. 교육

• 교육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크메르루즈에게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1979년 크메르루즈 붕괴 이후 다시 재건되고 있는 상황

- 전반적으로 교육시설·교사·교육 매체가 모두 부족한 상태
- 프놈펜의 경우 그나마 많이 복구되었지만 지방은 아직도 대부분이 열악한 상황
- 2009~2013년에 중·고등교육 향상을 위한 정책이 실행되면서 중·고등학교 수 증가 및 취학률 향상
- 최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사 신규 채용 확대, 임금 인상 등 진행 중

• 교육제도는 1996년부터 우리와 같은 6-3-3제 유지

• 공립학교는 고등학교(12학년)까지 무상교육이나 교육의 질이 다소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어 최근 사립학교 증가 추세

캄보디아 교육기관 현황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수(개)	4,493	7,304	1,716	554
학생 수(명)	229,092	2,010,286	632,303	351,794
교사 수(명)	5,717	57,300	33,274	17,879
수료율(%)	-	85.7	81.4	91.4

※ 2021년 기준

- 대학은 종합대학과 우리나라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Faculty가 운영 중
  - 종합대학 : 프놈펜 왕립대학, 왕립법률경제대학, 국립경영대학 등
  - Faculty : 법률·경영·의학·약학·공학 등 각 분야별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대학 수에 비해 규모가 작고 시설이 열악

3. 치안

- 최근 캄보디아의 치안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치기 강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캄보디아 여행 시 주의 필요

- 체류 시 유의사항
  - 야간에는 외출을 삼가고 개별 행동 자제(호객 행위를 하거나 심야시간대 길가에 정차되어 있는 택시, 툭툭 탑승 삼갈 것)
  - 외출 시에는 지인들에게 행선지를 알리고, 신분증 반드시 지참
  - 머무르고 있는 장소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될 시, 즉시 해당 장소 이탈
  - 집회, 시위, 정치적 성격의 회의 장소에 접근 삼가
  - 소매치기 강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고액권 화폐 과시 삼가
  - AIDS 보균자가 많으므로 유흥업소 출입 삼가
  - 경찰복이나 헌병 복장을 한 무장 강도에게 폭행과 금품 탈취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 차량 탑승 후, 차량 문 및 창문은 항시 잠금 상태를 유지하고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
  - 편도 1차선에서 저속 차량(대형 화물트럭 등)에 대해 무리한 추월 시도 자제(맞은편 차량과 정면 충돌 사고 위험 다대)
  - 심야시간대 지방을 이동하는 차량 운전 및 버스 이용은 자제

4. 교통 및 통신

- 교통수단
  - 최근에는 스마트폰 택시 어플리케이션(Grab, PassApp 등)이 다수 생겼으며, 출발지와 목적지를 지도에 표시하여 별도의 설명 없이 택시 이용이 가능하고 거리별 요금이 계산되어 가격 흥정이 필요 없는 이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
  - 프놈펜 시내 주요 교통수단으로 모토돕(오토바이), 툭툭(오토바이 개량차), 택시, 시내버스가 있음
    - 모토돕(오토바이) : 가장 저렴한 교통수단으로 오토바이 운전사 뒤에 앉아서 이동. 가격이 저렴하고 빠르나 사고 위험성 높음
    - 툭툭(오토바이 개량차) : 오토바이 뒤에 탈것을 끄는 형태로 4명 정도 탑승 가능하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교통수단이나, 최근 인도에서 수입된 세 발 오토바이도 많이 이용되는데 모두 툭툭이라는 명칭 사용
    - 택시 : 스마트폰 택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로 사용하며, 툭툭에 비해 약간 높은 가격
    - 시내버스 : 프놈펜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7호선까지 생겼으며 새 차량 도입 및 배차 시간 축소로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가격이 저렴하나 아직까지는 긴 배차 시간과 노선 부족으로 다소 불편
  - 지방 이동 교통수단 :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시외버스 및 란또리(승합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

- 통신(전화)
  - 유선보다는 무선이 더 발달되어 있으며 휴대전화 요금은 저렴한 편
  - 5개 정도의 통신사 중 선택하여 사용 가능하며, LTE 서비스를 제공하나 한국보다는 저속

- 휴대전화는 SIM 카드를 사용하는 GSM 방식으로 보통 선불 요금제 사용

• 우편제도

- 보통우편의 경우 국내 수·발송에 약 2~3주가 소요되며, 간혹 1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발생
- 분실 위험에 대비하여 중요한 우편물일 경우에는 EMS·DHL 등 속달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EMS의 경우 우체국으로 찾으러 가야 함

5. 언론

• 현지 TV 채널

- TVK(국영), CTN, Bayon TV, APSARA, TV3, TV9, Heangmeas TV 등 다수 TV 채널이 있으며, 연예 중심 채널(CTN, Heangmeas TV, ETV)의 인기가 높은 편

• 위성안테나 설치 및 유료 케이블 TV를 통해 KBS World, YTN, 아리랑 TV를 비롯하여 CNN, NHK 등의 방송 채널과 프랑스, 호주, 중국, 일본 및 인근 동남아 국가 방송 등 다양한 채널 시청 가능

• 주요 신문

- 영 자 신 문 : Khmer Times(일간), Phnom Penh Post(일간) 등
- 현지어 신문 : Rasmey Kampuchea, Kampuchea Thmey, Koh Santepheap 등

- 주요 라디오 채널
  - Phnom Penh Radio FM 103, Women's Media Centre Radio FM 102, Bayon Radio FM 95, Beehive Radio FM 105, Voice of America, Radio Free Asia 등 (지역마다 주파수 다름)
- 주요 인터넷 매체
  - 캄보디아에서는 페이스북(facebook)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젊은 층 중심으로 활발히 이용

6. 보건

- 현지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의료 수준이 매우 낮아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은 태국·베트남 등 인접 국가에서 치료받는 것이 일반적
  - 장티푸스·B형간염 등 예방접종 필요
- 프놈펜 및 주요 관광지(시엠립 등)에는 말라리아가 거의 없으나, 밀림 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말라리아 예방약(키니네) 구비 필수
- 풍토병 뎅기열 발생 가능
  - 뎅기열은 간헐적인 고열과 오한이 특징이며,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치사율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
- 다른 동남아 여행지와 마찬가지로 AIDS에 각별한 주의 필요

VI

개발협력

1. 개관
2. 연혁
3. 개발협력 실행 계획
4. 주요 원조공여국 지원 동향

KINGDOM OF CAMBODIA

1. 개 관

- 캄보디아 정부는 1990년대 초반 유엔의 대대적인 지원 아래 설립되었으며, 이후 세계은행·IBRD·IMF·ADB 등 국제금융기구(IFIs), 일본·미국·프랑스·호주 등의 유·무상 원조 및 기술 지원으로 국가 재건 추진
  - 1992~2020년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 총액(총액 기준)은 약 186억 달러에 이르며, 연간 지원 규모가 1992년 2억 달러에서 2020년 16억 달러 수준으로 약 8배 증가
    ※ OECD/DAC의 총액 기준 통계로 중국의 공여액은 제외

- 캄보디아의 원조 수혜 금액이 국민총생산액의 30~40%일 정도로 원조 의존도가 높았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GDP 대 원조 비율은 2005년 이후 10% 미만으로 하락

-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공적개발원조 외에 2021년 현재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집계 기준으로 215개의 외국 NGO, 101개의 캄보디아 NGO가 총 759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캄보디아 전국 발전에 크게 기여

2. 연혁

- 1992년 6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캄보디아 복구 및 재건에 관한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of Cambodia)'에서 주요 원조공여국 및 국제금융기구들이 1992~1993년간 약 8.8억 달러 지원을 공약
- 1993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캄보디아 재건·복구에 관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n the Reconstruction and Rehabilitation of Cambodia, ICORC)' 제1차 회의에서 1992~1993년간 캄보디아 지원금을 총 1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공약하였으며, 이후 1995년까지 총 세 차례 ICORC 회의 개최
  - 제1차 ICORC 회의(1993.9., 파리) : 10억 달러 지원 공약
  - 제2차 ICORC 회의(1994.3., 도쿄) : 7.7억 달러 지원 공약
  - 제3차 ICORC 회의(1995.3., 파리) : 5.2억 달러 지원 공약
- 1996년부터는 ICORC 대신 '캄보디아 원조공여국(Consultative Group for Cambodia, CG)' 회의로, 제8차 회의까지 개최
  - 제1차 CG 회의 (1996.7., 도쿄) : 5.01억 달러 지원 공약
  - 제2차 CG 회의 (1997.7., 파리) : 4.50억 달러 지원 공약
  - 제3차 CG 회의 (1999.2., 도쿄) : 4.71억 달러 지원 공약
  - 제4차 CG 회의 (2000.5., 파리) : 5.48억 달러 지원 공약
  - 제5차 CG 회의 (2001.6., 도쿄) : 5.56억 달러 지원 공약
  - 제6차 CG 회의 (2002.6., 프놈펜) : 6.35억 달러 지원 공약
  - 제7차 CG 회의 (2004.12., 프놈펜) : 5.04억 달러 지원 공약
  - 제8차 CG 회의 (2006.3., 프놈펜) : 6.01억 달러 지원 공약
- 2007년부터는 캄보디아 개발협력포럼(Cambodia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CDCF) 개최

- 제1차 CDCF(2007.6., 프놈펜) : 6.9억 달러 지원 공약
- 제2차 CDCF(2008.12., 프놈펜) : 9.51억 달러 지원 공약
- 제3차 CDCF(2010.6., 프놈펜) : 11억 달러 지원 공약
- 2011년 캄보디아 정부의 CDCF 연기 발표 이후 지금까지 미개최

3. 개발협력 실행 계획

• 캄보디아 정부는 2019~2023년 개발협력파트너십(DCPS)을 수립하여 사각전략(2019~2023) 중 개발협력 분야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수립

가. DCPS의 기본 및 전략 목표

• 모든 외부 원조가 캄보디아 정부의 국가개발 전략 틀 내에서 추진되도록 유도하며 대외 원조 유치 노력 필요

- 주인의식(Ownership) : 모든 외부 원조 재원은 캄보디아 정부의 리더십 하에서 유치되고 관리도록 함
- 동반자 정신(Partnership) : 조율되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의 제공 및 국내 시스템의 강화
- 성과(Result) : 확고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상호 책무성 원칙을 통한 근거에 기반한 파트너십 강화

나. DCPS의 이행 방안 및 원칙

• 외부 재원의 국내 예산 시스템과의 통합 운영

- 통합 방안 수립 예정
- 2021년까지 통합 운영 추진
- 3개년 예산 계획인 '중기예산 틀' 수립
- 각 부처의 공공재정관리 워킹그룹 및 기술 워킹그룹을 통해 추진

• 기술작업반(TWG) 운영

- 캄보디아개발위원회 재건발전이사회가 전반적 조율을 담당하고, 각 부처별로 기술작업반 운영

• 공동 모니터링 지표 운영

- 5년 주기 성과 도출, 1~3년 주기 산출 도출 체계 유지

• 분야별 다중이해 당사자 대화

- 정부, 공여기관, 시민사회, 기업, 학계가 참여하는 대화체 운영 추진

• 지방정부 파트너십 대화

- 빈곤 완화 및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중요성 고려
-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방정부 대화체 도입 추진

• 개발협력 파트너십 보고서

- 운영 리뷰를 위한 도구로 활용

• ODA 및 NGO 원조 실적 데이터베이스

-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캄보디아개발위원회에서 운영 중
- 對캄보디아 원조의 모든 프로젝트 내용 접근 가능

• 각 원조 공여기관과의 협의

- 캄보디아개발위원회 또는 경제재정부의 주관으로 양자 간 원조 협의회 추진
- 경제재정부는 유상원조 제공 기관 담당, 캄보디아개발위원회 재건발전이사회는 주로 무상원조 제공 기관 담당

- 부산 파트너십
  - 캄보디아는 개발협력 효과성에 관한 글로벌파트너십(부산 선언)에 적극 참여 중
  - 부산 정신인 주인의식, 성과, 포용적 파트너십, 투명성은 캄보디아 개발협력 파트너십 전략에도 반영

- DCPS 이행을 위한 각 정부 부처의 업무 분장
  - 캄보디아개발위원회 재건발전이사회 : 캄보디아 정부의 외부 재원에 대한 유치 및 조정 총괄 역할
  - 캄보디아개발위원회 투자이사회 : 정부-민간부문 포럼 역할
  - 경제재정부 : 유상원조, 예산 개혁 및 통합, 사각전략(RS4) 모니터링
  - 기획부 : 국가개발전략(NSDP), 캄보디아 SDGs, 공공투자 프로그램
  - 외교국제협력부 : 개발협력에 관한 공식 외교 채널
  - 각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 기술작업반 및 분야별 다중 이해당사자 대화체, 지방정부 대화체 운영
  - 원조 공여기관 및 NGO : 각 원조사업이 사각전략에 일치되도록 유도

4. 주요 원조공여국 지원 동향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통계 기준으로 2018년도 캄보디아가 외부에서 받은 원조 총액은 총 13.5억 달러로, 이 중 개발파트너(국제기구, 양자)가 85%, NGO가 15% 지원
  - 주요국 원조액(백만 달러) : 중국(257.6), 일본(169.0), 프랑스(148.9), EU/EC(62.6), 한국(52.9), 미국(49.2), 호주(46.8) 순
  - 다자기구 원조액(백만 달러) : ADB(164), UN(57.3), 세계은행(35.0) 순으로 총 2억 6,200만 달러

-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원조액이 급증하여 연 기준 최대 원조공여국 지위 차지
  - 2015년 3.5억 달러, 2016년 3억 달러, 2017년 3.1억 달러를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2.5억 달러를 지원하여 일본의 1.3~1.6억 달러를 상회
  - 중국 원조의 대부분은 가시성이 큰 인프라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소 생산형 사업 기반의 유상원조

- 일본은 1992~2012년간 총 22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이중 70%가 무상원조이고, 매년 1억 달러 이상 꾸준히 지원

- EU는 오랜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수원국의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형태의 원조를 진행하며, 2006~2015년간 총 4억 달러 공여

- 미국은 과거에는 평화 유지와 민주주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원조를 적극 진행했으나, 현재는 원조의 방향을 수원국 중심으로 변경하여 보건과 교육 분야 지원
  - 원조액은 연평균 6천만 달러로, 2006~2015년간 총 7.7억 달러 지원

2011~2018년 공여국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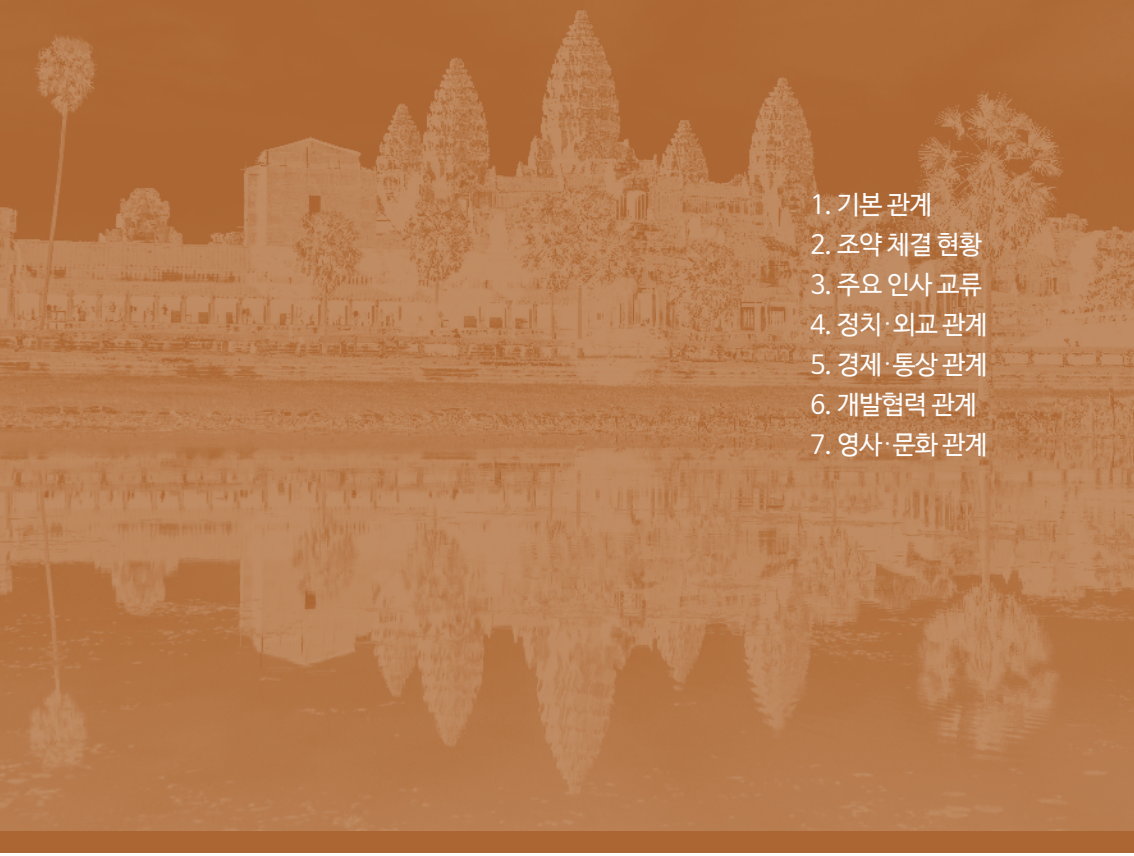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UN(core)	56.5	53.7	48.6	52.5	47.2	65.7	67.5	57.3
세계은행	73.8	66.0	35.5	50.6	17.6	17.5	31.4	35.1
ADB	126.9	82.0	171.4	129.8	137.2	118.2	131.4	164.5
GAVI	6.7	4.9	10.7	2.5	19.0	16.2	10.9	5.0
Global Fund	60.2	20.1	45.4	54.6	33.3	28.2	33.0	-
다자 지원 계	324.1	226.7	311.6	290.0	254.3	231.6	344.6	262.0
EU/EC	61.0	41.6	36.6	70.6	55.8	56.0	55.8	62.6
체코	0.0	0.0	0.0	1.2	1.2	1.3	1.2	0.4
프랑스	19.5	24.8	17.8	62.6	63.3	32.1	90.5	148.9
독일	43.7	44.6	34.4	28.9	25.8	46.9	38.3	38.6
아일랜드	0.7	0.3	1.2	0.7	0.6	0.6	0.7	0.7
스웨덴	28.6	30.2	33.8	41.1	21.8	30.1	33.7	26.7
영국	34.2	28.2	13.7	0.1	0.2	1.6	2.3	1.2
유럽국 소계	236.1	187.9	148.3	211.0	168.7	168.6	222.9	279.2
호주	78.2	79.5	59.3	66.2	55.9	51.9	58.1	46.8
캐나다	15.8	20.5	11.8	4.5	3.8	3.0	2.2	1.0
중국	332.0	460.7	436.6	343.0	339.4	307.2	313.2	257.7
일본	114.4	172.3	130.8	111.4	110.4	119.7	140.5	169.0
뉴질랜드	4.4	3.8	3.2	6.0	4.9	4.0	4.8	5.29
한국	45.3	46.2	50.1	77.9	61.7	34.2	56.2	52.9
스위스	4.5	4.3	7.8	11.8	13.0	15.8	14.6	12.9
미국	64.4	85.0	93.5	90.9	101.0	77.8	92.8	49.2
기타국 소계	661.8	872.3	793.1	711.7	690.1	613.8	682.5	595.0
NGO	200.7	212.3	225.9	231.3	237.7	250.3	211.3	236.8
총 계	1422.7	1499.2	1478.9	1444.0	1350.8	1278.7	1391.1	1373.1

출처 :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VII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기본 관계
2. 조약 체결 현황
3. 주요 인사 교류
4. 정치·외교 관계
5. 경제·통상 관계
6. 개발협력 관계
7. 영사·문화 관계

K I N G D O M O F C A M B O D I A

1. 기본 관계

• 외교 관계 수립

- 1962. 7.11. 주캄보디아 총영사관 개설 (총영사 : 이택근)
- 1967. 1.13. 주캄보디아 총영사관 철수
- 1970. 5.18. 한-크메르 공식 외교 관계 수립
- 1970. 7. 1. 주크메르 대표부 설치 (대표 : 이택근)
- 1970. 8.15. 주크메르 대사관 승격 (대사 : 이택근)
- 1972. 2.25. 김세원 대사 부임
- 1975. 4. 5. 주크메르 대사관 철수, 외교 관계 중단
- 1996. 5.15. 양국 간 대표부 설치 합의
- 1996. 9.18. 주캄보디아 대표부 공식 업무 개시
- 1997.10.30. 한-캄보디아 공식 외교 관계 재개
- 1998. 2.28. 주캄보디아 대표부, 대사관으로 승격
- 2001. 4. 2.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개설

• 역대 주캄보디아 대사

- 1997. 11. 박경태 초대 대사
- 1999. 3. 김원태 제2대 대사
- 2001. 3. 이원형 제3대 대사
- 2003. 7. 이한곤 제4대 대사
- 2006. 3. 신현석 제5대 대사
- 2009. 3. 이경수 제6대 대사
- 2010.10. 장호진 제7대 대사

- 2012. 4. 김한수 제8대 대사
- 2015. 2. 김원진 제9대 대사
- 2018. 1. 오낙영 제10대 대사
- 2019. 10. 박홍경 제11대 대사

• 역대 주한 캄보디아 대사

- 2001. 4. Chheang Vun 초대 대사
- 2004.12. Lim Samkol 제2대 대사
- 2010. 8. Chan Ky Sim 제3대 대사
- 2014. 7. Suth Dina 제4대 대사
- 2016. 7. Long Dimanche 제5대 대사
- 2021. 9. Chring Botumrangsay 제6대 대사

2. 조약 체결 현황

협정명	서명일	발효일
무역 및 지불협정	1964.10.16.	1964.12.8.
문화협정 ※ 2006.8.24. 신규 협정으로 대체	1973.1.29.	1973.1.29.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97.2.10.	1997. 3.12.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97.2.10.	1997.3.25.
무상 기자재 제공을 위한 교환각서	1997.5.15.	1997.5.15.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2001.4.10.	2001.4.10.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2001.4.10.	2001.5.10.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01.11.8.	2001.11.8.
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2001.11.29.	2001.11.29.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02. 6.5.	2002.6.5.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02.11.6.	2002.11.6.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수자원개발사업)	2006.3.21.	2006.3.21.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2006.7.31.	2006.8.24.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지방행정 정보망 확충사업)	2006.11.20.	2006.11.20.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2006.11.20.	2006.12.20.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3번 국도 개보수 2차)	2007.5.8.	2007.5.8.

협정명	서명일	발효일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2008.11.1.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2008.12.30.	2008.12.30.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2009.6.4.	2009.6.19.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2009~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2009.10.22.	2009.10.22.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2009.11.29.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2010.10.17.
범죄인인도협정	2009.10.22.	2011.10.1.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2013.6.3.	2013.6.3.
2013~201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2013.7.10.	2013.7.10.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2014.6.2.	2014.6.2.
2016~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2017.1.31.	2017.1.31.
캄보디아 48번국도 개보수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17.1.31.	2017.1.31.
2019~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2019.3.15.	2019.3.15.
형사사법공조조약	2019.11.25.	2021.2.24.
한-캄보디아 FTA	2021.10.26.	

3. 주요 인사 교류

가. 우리 인사 캄보디아 방문

- 2000. 2. 전두환 전 대통령 (친선방문)
- 2002. 4.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
- 2002.11. 김석수 국무총리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및 공식방문)
- 2002.11.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
- 2003. 6.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아세안 PMC 및 ARF)
- 2003. 9.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 2004.10. 김원기 국회의장 공식방문
- 2005. 3. 이홍구 전 총리 및 한승수 전 외교부 장관
- 2006. 7. 반기문 외교부 장관 공식방문
- 2006.11. 노무현 대통령 국빈방문
- 2007. 1. 이상수 노동부 장관
- 2007. 8.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 2009. 5. 송광호·최구식 의원 (대통령 특사)
- 2009.10. 이명박 대통령 국빈방문
- 2011. 3. 한승수 대통령 특사
- 2011. 3. 박희태 국회의장 (비공식)
- 2012. 5.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
- 2012. 7. 김성환 외교부 장관 (한·아세안, 아세안+3 ARF)

- 2012. 9.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 2012.11. 이명박 대통령 (아세안+3, 한·아세안, EAS 정상회의)
- 2013. 1. 하금열 대통령실장 (시하누크 국왕 조문 특사)
- 2015. 2.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 (UNWTO UNESCO 세계문화관광회의)
- 2015. 5. 정의화 국회의장 공식방문
- 2019. 3.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문

나. 캄보디아 인사 한국 방문

- 1996 . 7. Hun Sen 제2총리 공식 방한
- 1999. 9. Veng Sereyvuth 관광부 장관
- 2001. 4. Hun Sen 총리 공식 방한
- 2001.12. Norodom Ranariddh 국회의장 공식 방한
- 2002. 2. Lim Kean Hor 수자원기상부 장관
- 2002. 5. Veng Sereyvuth 관광부 장관 (제15차 2002 세계박람회)
- 2002. 5. Cham Prasidh 상무부 장관 (월드컵 개막식)
- 2003. 5. Neav Sithong 법무부 장관
- 2004. 3. Ith Samheng 노동부 장관
- 2004. 3. Mok Mareth 환경부 장관 (제8차 세계환경장관회의)
- 2004. 4. Veng Sereyvuth 관광부 장관 (제53차 PATA 연례총회)
- 2004. 5. Keat Chhon 재경부 장관 (제37차 ADB 연차총회)
- 2004. 6. Keat Chhon 재경부 장관 (2004 동아시아 경제장관회의)
- 2004. 6. Norodom Boppha Devi 문화예술부 장관
(앙코르 문화유산 전시회 개막식)

- 2004. 8. Suy Sem 산업광물에너지부 장관
- 2004. 9. So Khun 정보통신부 장관 (2004 ITU 텔레콤 아시아 참석)
- 2004. 9. Ing Kantha Phavi 여성부 장관
- 2005. 2. Norodom Sirivudh 부총리 겸 공동내무부 장관
- 2005. 5. So Khun 정보통신부 장관 (제9차 아시아·태평양 통신연맹회의)
- 2005. 5. Sok An 부총리 겸 관방부 장관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 2005. 5. Norodom Ranariddh 국회의장 (아시아정당회의 상임위원회)
- 2006. 3. Hun Sen 총리
- 2006. 9. Sok An 부총리 겸 관방부 장관 (제4차 아시아정당대회)
- 2007. 1. Reasmey 훈신펙당 당수 겸 부총리
- 2007. 8. Heng Samrin 국회의장 공식 방한
- 2008. 2. Hun Sen 총리, Hor Namhong 외교부 장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 2008.10. So Khun 정보통신부 장관 (방송통신장관회의)
- 2008.11. Sar Kheng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
- 2009. 1. Mok Mareth 환경부 장관
- 2009. 6. Hun Sen 총리 공식 방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 2009. 8. Khieu Kan Harith 공보부 장관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 사절)
- 2010.10. Tram Iv Tek 공공사업교통부 장관
- 2011. 6. Mok Mareth 선임장관 겸 환경부 장관
- 2011.10. Hor Namhong 외교부 장관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 2011.11. Ang Vong Vathana 법무부 장관 (아시아법제회의)
- 2012. 5. Cham Prasidh 선임장관 겸 상무부 장관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식)

- 2012. 6. Ang Vong Vathna 법무부 장관 (제2회 아시아 법제 포럼)
- 2012.10. Ith Sam Heng 사회보훈청소년갱생부 장관 (에스캅 정부간 고위급회의)
- 2013. 6. Mok Mareth 선임장관 겸 환경부 장관 (제3차 글로벌 녹색성장서밋)
- 2013.11. Sirivudh Norodom 왕자
- 2014. 6. Yim Chhai Ly 부총리 (KOICA 주관 초청 연수)
- 2014. 9. Ith Sam Heng 노동직업훈련부 장관
- 2014.12. Hun Sen 총리 공식 방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 2015. 5. Norodom Sirivudh 왕자
- 2015.10. Sok An 부총리 (경주 엑스포 참관)
- 2016. 5. Khieu Kanharith 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방송장관회의)
- 2017. 4. Ith Sam Heng 노동직업훈련부 장관
- 2018. 4. Ith Sam Heng 노동직업훈련부 장관
- 2018.10. Phoeurng Sackona 문화예술부 장관
- 2018.10. Say Samal 환경부 장관
- 2019. 5. Sar Kheng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
- 2019.11. Prak Sokhonn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2020. 2. Hun Sen 총리 (월드서밋 2020)
- 2021. 9. Prak Sokhonn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 2022. 2. Hun Sen 총리 (월드서밋 2022)
- 2022. 4. Say Chhum 상원의장

다. 다자회의 계기 정상회담

- 1999.11.27.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마닐라 아세안+3 계기)
- 2000.11.24.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싱가포르 아세안+3 계기)
- 2001.11. 4.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브루나이 아세안+3 계기)
- 2003.10. 7.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발리 아세안+3 계기)
- 2009. 6. 4.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 2014.12.13.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공식 방한 계기)
- 2016. 7.15.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ASEM 정상회의 계기)

4. 정치·외교 관계

가. 양국 관계 일반

- 한-캄보디아 양국 관계는 1997년 재수교 이래 단기간에 교역·투자·개발협력·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수준으로 발전
  - 2018년까지 한국은 캄보디아에 58억 달러 투자(신고 기준, 수출입은행), 캄보디아는 한국에 3,700만 달러 투자(신고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 2018년 기준 한국은 30만여 명이 캄보디아 방문, 캄보디아는 3만 7천여 명이 한국 방문, 코로나19로 인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축소 (2021년 기준 한국은 6,700여 명 캄보디아 방문, 캄보디아는 6,000여 명 한국 방문)
  - 개발협력 분야는 교육·인프라·보건·농업개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유·무상 원조사업 긴밀하게 협력
  -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은 약 1만 5,000명(공식 집계 : 2021년 기준 10,608명), 한국 내 캄보디아 국민은 약 4만 1,525명(2021년 기준)
    ※ 훈센 총리는 한국이 캄보디아 내에서 직접투자, 관광, IT, 직업훈련, 문화교류, 금융, 건설 및 항공 등 8개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평가
- 최근에는 경제발전 경험 공유, IT, 금융, 관광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 다변화

나. 지역 및 다자 외교 무대 협력

- 1998년 이후 양국 간 유엔 및 산하기구, 여타 국제기구 진출 관련 협력 지속
-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EAS, ARF 등 지역무대에서 협력

다. 양국 의원 외교

- 양국 의원 및 의회 간 인사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캄보디아 의회의 전산시스템 지원 등 양측 입법 및 정책 관련 정보 교류 지속
  - 정의화 국회의장(2015), 외통위 대표단(2015, 2018), 법사위 대표단(2018), 제27차 아태의회포럼 대표단(2019) 캄보디아 방문, Say Chhum 상원 의장 방한(2022) 등 의원 외교 활발히 진행 중
- 양국 내 각각 의원친선협회 구성, 활동 중

라. 캄보디아 총선 지원

- 1998년 7월 캄보디아 2차 총선에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 직원(10명)으로 구성된 참관단 파견
- 2002년 2월 캄보디아 지방선거에 우리나라 참관단 2명 파견
  - 선거 투표함 운반용 트럭 3대 지원
- 2003년 7월 캄보디아 3차 총선에 우리나라 행정자치부와 외교통상부 직원으로 구성된 참관단 파견
  - 총 5만 달러 상당의 선거요원과 장비수송용 오토바이 지원
- 2008년 7월 캄보디아 4차 총선에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구성된 참관단 파견
- 2013년 7월 캄보디아 5차 총선에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구성된 참관단 파견 및 민주당 의원 참관
- 캄보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17년 7월~2018년 7월간 KOICA 자문관 파견
  - 2018년 7월 6차 총선 시에는 별도 참관단 미파견

5. 경제·통상 관계

가. 교 역

1) 개 요

- 양국 간 교역 규모는 1998년 6,300만 달러에서 2019년 약 10억 3천만 달러로 16배 이상 증가

한-캄보디아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 출	603.8	660.4	696.5	567.2	623.6
수 입	261.3	314.5	335.9	318.1	341.5
무역수지	342.5	345.9	360.6	249.1	282.1
교역 규모	865.2	974.9	1,032.5	885.3	965.1

출처 : 한국무역협회

2)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수출

-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수출은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주요 수출품은 섬유, 자동차 및 식품으로 2021년 기준으로 58.2%를 차지
  - 섬유는 완제품 생산을 위한 편직물 등 원재료가 대부분을 차지

- 자동차 수출은 2021년 기준으로 화물차(44.8%), 승용차(25.8%), 자동차 부품(11.3%) 순
- 식품은 음료 및 주류가 대부분을 차지

• 향후 한-캄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 봉제산업 분야의 협력 등이 강화되면서 양국 간 교역 규모 증가 기대

품목별 對캄보디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2019			2020			2021		
	품 목	금 액	비 중	품 목	금 액	비 중	품 목	금 액	비 중
1	자동차	188	27.0	섬 유	136	24.0	섬 유	150	24.0
2	섬유	170	24.4	자동차	106	18.6	자동차	112	18.0
3	식품 (음료 등)	99	14.2	식품 (음료 등)	94	16.5	식품 (음료 등)	101	16.2
4	전기기기·기계류	66	9.4	철강공업	60	10.7	화학공업 생산품	91	14.5
5	철강공업	46	6.6	전기기기·기계류	54	9.6	원피·가죽·모피	48	7.7
6	화학공업 생산품	42	6.1	화학공업 생산품	43	7.7	전기기기·기계류	47	7.5
7	원피·가죽·모피	38	5.5	원피·가죽·모피	29	5.1	철강공업	26	4.1
8	플라스틱과 고무	18	2.6	플라스틱과 고무	20	3.4	플라스틱과 고무	21	3.4

출처 : 한국무역협회

3)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수입

-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서 봉제 완제품을 주로 수입하며(편직제 및 직물제의류 수입이 전체 수입의 약 절반 차지), 그중 섬유제품은 한국 봉제공장에서 생산된 품목이 대부분
  - 최근 우리 가방업체의 진출로 인해 기타 가죽 등 원부자재의 수출과 가방 완제품의 수입이 증가

품목별 對캄보디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2019			2020			2021		
	품 목	금 액	비 중	품 목	금 액	비 중	품 목	금 액	비 중
1	섬유	191	56.9	섬 유	171	53.8	섬 유	169	49.4
2	신발·모자 등	41	12.3	신발, 모자 등	51	16.0	신발·모자 등	57	16.7
3	전기기기·기계류	35	10.5	전기기기·기계류	48	15.1	전기기기·기계류	44	12.8
4	원피·가죽·모피	25	7.4	원피·가죽·모피	21	6.5	원피·가죽·모피	24	6.9
5	식품	15	4.5	플라스틱과 고무	7	2.2	플라스틱과 고무	20	5.9
6	철강공업	12	3.5	철강공업	4	1.3	철강공업	11	3.3
7	플라스틱과 고무	6	1.8	완구·운동용구	4	1.2	완구·운동용구	3	0.9
8	화학공업 생산품	3	0.9	식품	4	1.1	자동차	3	0.9

출처 : 한국무역협회

나. 투자 진출

1)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 현황

-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는 2007~2008년 부동산 개발 활황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금융산업 및 봉제업체의 진출로 증가 추세

  ※ 대부분의 기업은 저임금을 활용한 봉제·섬유·신발 관련 기업이며, 근래에는 금융업·부동산업 등 우리 기업의 진출 분야 다각화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 현황

(단위 : 건, 천 달러)

연도	신고 건수	투자 금액
2015	134	47,029
2016	171	215,232
2017	152	137,130
2018	156	452,458
2019	154	243,559
2020	153	933,171
2021	114	545,460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1997~2021년간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투자 누적액은 신고 기준으로 3,657건, 약 76억 달러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업종별 진출 현황

(단위 : 건, 천 달러)

업종 분류	2020			2021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제조업	30	24,460	11,728	16	10,466	9,118
금융 및 보험업	13	830,140	797,940	11	452,500	438,558
농/임/어업	8	7,669	5,569	14	5,550	5,110
부동산 및 임대업	30	26,218	27,420	15	62,659	3,198
도매 및 소매업	22	10,368	9,306	14	3,656	3,249
건설업	42	83,516	80,117	34	82,922	83,320
기 타	8	2,910	1,092	10	1,676	2,908
합 계	153	985,281	933,171	114	619,428	545,460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캄보디아에 투자한 다수의 우리 기업은 저임금을 활용한 봉제·섬유·신발 관련 기업
- 또한 캄보디아의 성장 잠재력, 금융기관 수익성이 높게 평가됨에 따라 금융기관 진출도 활발

2) 진출 형태

- 우리 업체가 캄보디아 투자 진출 시 과거에는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를 선호하였으나 최근에는 현지인과 합작투자 방식 증가 추세
- 또한 봉제 등 노동집약형 산업 투자 외에 금융기관, 농업 투자, 주택단지 및 부동산 건설 등으로 투자 분야도 확대

3) 투자 전망

-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등 긍정적 요인 점차 증가
  - 1994년 8월 외국인 투자자에게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신규 외국인투자법 제정, 2003년 및 2021년 투자법 개정
  - 최대 9년간 법인세와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
  - 1999년 4월 아세안 가입으로 상권 확대
  - 미국·일본·캐나다 등에서 GSP(일반특수관세제도) 수혜
  - 외국 정부 및 국제금융기구 지원 하에 사회간접자본 확충

- 반면 기업 활동 관련 법 체제 정비 및 집행력 미비, 자본·기술·인적자원 부족, 전력·운송·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취약, 국내시장 규모 협소, 정부 관리의 행정 능력 미흡 및 부패, 빈약한 정부 재정 등 저해 요인도 상존

- 캄보디아 내 우리 주요 진출 업체
  - 봉　제 : 한솔섬유, 좋은사람들, 인재가먼트, 가원어패럴 등
  - 금융계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전북은행 등
  - 건설계 : 롯데건설, 금호건설, 석우종합건설, 계룡건설, 부영 등
  - 가전/전자 : 삼성(직접 판매 X), LG(직접 판매 X), 경신 등
  - IT : 코사인(결재시스템), 모바일 씨앤씨(SW,교육) 등
  - 법률/회계 : 지평(법률), 우리회계(회계) 등
  - 기타 : 한화(조림), 현대종합상사(망고) 등

다. 인력 송출 현황

- 2002년 8월 신규 송출 국가로 지정되어 2006년까지 약 2,500명이 산업연수생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

- 2007년 외국인력도입제도는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로 일원화

- 2006년 11월 20일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간에 고용허가제 MOU 체결 이후 그 후속 작업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EPS-TOPIK) 시행 위한 합의서 체결

  ※ 고용허가제 : 양국 정부 간 체결된 MOU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과 건강검진을 통과한 캄보디아 인력을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산하의 인력훈련 해외송출청이 구직자 명부에 등록하여 한국의 사업주가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고용허가제 이후 캄보디아 근로자의 도입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2년부터는 7,000~8,000명 수준

  -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천여 명, 2021년 3천여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6개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가 중 1위 유지 중이며, 2022년부터 도입 정상화 진행 중

- 고용허가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 후 우리나라에 송출된 캄보디아 근로자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약 8만 1천 명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비교

산업연수생제	기 준	고용허가제
연수 1년 + 취업 2년	체류 가능 기간	취업 3년 (재고용 시 1년 10개월 연장)
민간기관 - 접수국 정부	도입·관리 주체	송출국 정부 - 접수국 정부
도입기관(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사업체에 배정	연수생 선정	사업주가 인력풀에서 선택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	노동권 보장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노동권 보장
내국인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외국인 고용 제한	내국인 고용 기회 보장	7일간 내국인 우선 구인 노력

6. 개발협력 관계

가. 무상원조

1) 개 요

- 對캄보디아 무상협력사업은 과거 최빈국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물자 중심으로 소규모 지원 활동 시작

- 1997년 한-캄보디아 외교 관계 재개 후 무상협력사업이 대폭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에는 매년 3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캄보디아는 무상 분야 개발협력국 162개국 중 다섯 번째로 규모가 큰 국가

- 2001년 11월 한-캄보디아 해외봉사단 파견에 관한 각서 교환, 2003년 9월 캄보디아 KOICA 사무소 개설, 2009년 6월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에 이어 2013년 6월 연간 무상원조 기본약정에 서명, 보다 체계적인 무상협력사업 수행 체계 마련

- 캄보디아는 우리 제1기, 제2기 및 제3기 ODA 중점대상국 중 하나로서 2021년 기준 약 4,140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지원

- 양국은 '한-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CPS) 2018-2023'을 채택하고 이 전략에 따라 4대 중점 지원 분야 (① 교통, ② 물관리 및 보건위생, ③ 교육, ④ 지역 개발)에 집중 원조
  - 도로·댐·건설 등 경제 인프라와 교육·보건 분야의 사회 인프라 지원에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형 사업 및 다양한 기술협력사업(봉사단 파견, 국내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통해 우리나라 개발 경험을 공유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19.11월) 계기 체결한 '한-동남아 5개국 간 개발협력 MOU'를 기반으로 디지털 파트너십, 고등교육, 미래평화공동체, 스마트시티 및 교통 분야 사업 등도 추진

-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동남아 5개국과 디지털, 고등교육, 미래평화공동체, 스마트도시 개발, 교통 등 5대 분야의 중점 프로그램 추진을 합의

2) KOICA 무상원조 실적

• 1991~2000년간 총 343만 달러의 비교적 소규모 무상원조를 제공하였으나, 2001년 이후 무상원조 규모가 대폭 증가해 2001~2009년간 연평균 547만 달러(1991~2009년 총 5,264만 달러), 2010년 이후로 매년 1천만 달러 이상 지원, 2012~2016년 2,000만 달러 규모까지 확대

KOICA의 캄보디아 무상원조 현황

(단위 : 만 달러)

연도	1991~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지원액	18,938	2,321	2,140	2,111	1,890	1,709	1,857	30,966

출처 : KOICA

- KOICA 외에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 개별 부처/산하기관 및 지자체에서 무상 원조 사업을 별도 시행 중

•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지원 사업은 4대 중점 지원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술협력 및 우리나라 개발 경험 공유를 위한 컨설팅 사업, 민간기업 및 단체와의 파트너십 등을 적절히 활용해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개발 지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천만 달러 규모의 EDCF 코로나19 긴급자금에 더하여, 무상 분야에서도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COVID-19 Comprehensive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진단키트 등 지원, 의료인력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 160만 달러 상당 코로나19 대응 지원

나. 유상원조

1) 개 요

• 2001년 4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여 기본협정 체결 및 발효 이후, 2022년 5월 현재 총 31건의 사업 승인·진행(승인액 기준 12.7억 달러 규모)

- 분야별로는 도로 등 교통 인프라(49.7%), 댐 건설 등 수자원 개발(34.7%), 병원 건립 등 보건(9.2%)이 대부분을 차지

• 또한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캄보디아를 EDCF 중점지원 국가로 선정

• 2019년 3월에 체결한 7억 달러 규모의 '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에 따라 협력 진행 중

유상원조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사 업 명	연도	승인액
1	행정전산망 구축사업	2001	20.0
2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2002	27.7
3	캄포트-트라팡로포 도로 개보수 사업	2002	17.1
4	크랑폰리강 수자원개발사업	2005	26.7
5	지방행정정보망 확충사업	2006	31.0
6	3번 국도 개보수사업(2차)	2006	36.9

	사 업 명	연도	승인액
7	시엠립 하수처리 및 하천정비사업	2008	30.0
8	국도 및 지방도로 개보수, 캄포트 우회도로 건설사업	2008	30.0
9	GMS 캄보디아 북서부도로 개선사업	2009	29.9
10	몽콜보레이댐 개발사업	2010	18.7
11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	2010	21.0
12	캄보디아 21번 국도 개보수사업	2011	52.5
13	살라타온댐 개발사업	2012	36.6
14	다운트리댐 개발사업	2013	46.7
15	2번 22번 국도 개보수사업	2014	56.1
16	지방도로 개선사업 2차	2014	41.0
17	시엠립 하천정비사업 2차	2014	13.3
18	48번 국도 개보수사업	2014	67.4
19	반테민체이 관개 개발 및 홍수 피해 저감사업	2016	85.1
20	타크마우시 하수처리시설 구축 및 하천정비사업	2016	63.9
21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2016	2.5
22	21번 국도 개보수사업(보충융자)	2017	11.6
23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사업	2018	66.6
24	지방도로 개선사업 3차	2019	60.0
25	기후탄력적 농촌 인프라 개발사업	2019	57.0
26	48번 국도 개보수 사업 보충융자	2020	20.0
27	캄보디아 코로나19 긴급대응 프로그램	2020	50.0
28	청정시엠립 우회도로 건립사업	2021	72.8

	사 업 명	연도	승인액
29	청정시엠립 하수처리시스템 개선사업	2021	97.0
30	다운트리댐 개발사업 보충융자	2021	24.3
31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연결성 개선사업	2021	60.0

7. 영사·문화 관계

가. 재외국민 현황

- 2007년까지 급속히 증가했던 캄보디아 거주 우리 재외국민 수는 미국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불황기를 겪으면서 다소 감소했으나, 2010년 하반기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9년 10월 기준 약 1만 5,000명으로 추산, 이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감소하여 2022년 6월 현재 1만 1,000명 정도 추산

- 직업군별로 선교사, 봉제 및 건설업체, 금융, 상사 주재원 및 직원, 식당업·관광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며, 거주지별로 프놈펜 및 인근 지역에 약 8,000명, 시엠립 및 인근 지역에 약 1,000명, 그 밖의 지역에 1,000명 정도 거주

- 특히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 선교 거점 국가로 선교사 다수가 거주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부터 일부 선교사들이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하였다가 최근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6년 6월 캄보디아 종교부는 노상 선교 및 방문 전도 활동 등을 제한하는 법령 시행 중

• 재외국민 소식지

- 뉴스브리핑 캄보디아, 한캄뉴스, 라이프 캄보디아, 캄푸치아 등

재외국민 등록 현황

구 분	인원 수(명)	비 중(%)	합 계(명)
거 주	2,200	29.5	7,461
공공/상사 주재원	854	11.4	
자영업	1,296	17.3	
취 업	1,084	14.5	
유 학	101	1.4	
기 타	1,926	25.9	

출처 :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2022. 6월 기준)

나. 한인단체

• 재캄보디아 한인회 (회장 : 정명규)

- 창립 : 1996년 5월
- 회원 : 250여 명

• 재캄보디아 시하눅빌 한인연합회 (회장 :오창수)

- 창립 : 2022년 1월
- 회원 : 약 19명

• 재캄보디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 이용만)

- 창립 : 2007년 10월
- 회원 : 약 170명

• 캄보디아 한인섬유협회 (회장 : 김준경)

- 창립 : 1997년 6월
- 회원사 : 40개사

• 재캄보디아 한인선교사회 (회장 : 이증재)

- 창립 : 1996년 2월
- 회원 : 856 명 (선교사회 회원 등록 기준)

• 재캄보디아 농산업협회 (회장 : 신일형)

- 창립 : 2011년 8월
- 회원 : 45명

• 재캄보디아 개발 NGO협의회 (회장 : 류기룡)

- 창립 : 2010년 8월
- 회원 : 37개 단체

• 재캄금융기업협의회 (회장 : 김현종)

- 창립 : 2018년 9월
- 회원 : 19개 기관 정회원 97명, 특별회원 3명

• 한캄중소기업연합회 (회장 : 박상호)

- 창립 : 2021년 2월
- 회원사 : 130개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캄보디아 지회 (회장 : 박광복)

- 창립 : 2019년 8월
- 회원 : 135명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캄보디아 지부 (회장 : 엄경희)

- 창립 : 2019년 6월
- 회원 : 142명

• 한국스피치웅변협회 (회장 : 최봉석)

- 창립 : 2012년 8월
- 회원 : 100여 명

• 프놈펜 한글학교 (교장 : 안혜경)

- 설립 : 1998년 1월
- 학생 수 : 약 90명

• 프놈펜 한국국제학교 (교장 : 이상빈)

- 설립 : 2019년 3월
- 학생 수 : 약 46명

다. 관광 교류

•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문자가 감소하였으나, 2022년 3월부터 캄보디아 입국 정책이 완화되고, 최근 관광비자 및 단기 방문비자 발급이 재개되면서 양국 간 방문자가 증가 추세로 변화 중

한국-캄보디아 인적교류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한국→캄보디아	395,259	357,194	345,081	301,770	254,874	55,935	6,074
캄보디아→한국	28,453	33,278	34,276	36,780	45,713	12,447	6,511

출처 : 캄보디아 관광부,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라. 문화·예술 교류

날짜	문화·예술 교류
2001. 4.	한-캄보디아 문화교류계획서 서명(2001~2002년간 예술·교육·영화 등 양국 간 문화교류 시행)
2001. 12.	한국 전통예술 공연단 방문 공연
2003. 11.	국악공연단 방문 공연 (동남아 지역 순회공연 일환)
2003. 11.	허트리오 캄보디아 방문 공연
2004. 6.	앙코르와트 유물전시회 개최 (2004.6.29.~9.12., 서울역사박물관) ※ 노로돔 라타나 데비 공주가 압사라 댄스 무용단과 함께 내한
2004. 8.	캄보디아 로열발레 방한 공연 (2004.8.31.~9.5.)
2004. 11.	인천시립무용단, 한국 전통무용 공연 (아시아 순회공연의 일환)
2006. 9.	제1회 한국영화제 개최 ※ 〈서편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말아톤〉, 〈태극기 휘날리며〉 상영
2006. 9.	앙코르-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06.11.21.~2007.1.9., 시엠립) ※ 노무현 대통령 캄보디아 국빈방문 (11.19.~22.)
2006. 12.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방문 공연 (시엠립 2회, 프놈펜 1회 공연)
2007. 2.	김해 시립 가야금 연주단 방문 공연
2007. 8.	타악 그룹 '공명' 방문 공연 (외교 관계 재개 10주년 기념 일환)
2007. 10.	제2회 한국영화제 개최 ※ 〈각설탕〉, 〈엽기적인 그녀〉, 〈국경의 남쪽〉, 〈취화선〉 상영
2007. 12.	베이비복스 공연
2007. 12.	강릉 단오제팀, 캄보디아 고대 전통춤 축제 참가
2008. 10.	제3회 한국영화제 개최 ※ 〈피아노 치는 대통령〉, 〈플란다스의 개〉, 〈식객〉, 〈괴물〉 상영
2008. 11.	경기도립전통무용단 공연

날짜	문화·예술 교류
2009. 11.	제4회 한국영화제 개최 ※ 〈과속스캔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8월의 크리스마스〉 상영
2010. 4.	2010년 문명의 자취 행사를 계기로 정동극장 무용단 전통 공연
2010. 10.	캄보디아 레인보우협회 주관, 한국음악가 초청 콘서트 개최 ※ 서울대 김인혜 교수, 연세대 유영욱 교수 등
2010. 11.	한국농수산식품무역협회 주관 한국 농수산식품 캄보디아 판촉전
2010. 12.	제6회 아시아 정당 국제회의 계기 우리 전통공연단 '축제의 땅' 판굿 공연
2010. 12.	제5회 한국영화제 개최 ※ 〈해운대〉, 〈라디오스타〉, 〈천년학〉, 〈킹콩을 들다〉 상영
2011. 1.	문화자선단체 〈뷰티풀마인드〉 자선공연
2011. 2.	캄보디아 레인보우협회 주관, 제2회 한국 음악가 초청 콘서트 개최
2011. 5.	대사관, 캄보디아 레인보우협회 공동주관 왕실콘서트 개최 ※ 시하모니 국왕 및 왕실 관계자 등 참석
2011.10.	제6회 한국영화제 개최 ※ 〈국가대표〉, 〈전우치〉, 〈맨발의 꿈〉, 〈애자〉 상영
2011. 11.	국립국악원 방문 공연
2011. 12.	한식 홍보 행사 (Korea Food Festival)
2012. 2.	아시아오페라단 갈라콘서트 개최
2012. 11.	국립발레단 방문 공연
2013. 6.	2013 Quiz on Korea 캄보디아 지역 예선
2013. 7.	2013 K-Pop World Festival 캄보디아 지역 예선
2013. 10.	제7회 한국영화제 개최 ※ 〈7번방의 선물〉, 〈아라한 장풍 대작전〉, 〈헬로우 고스트〉, 〈마당을 나온 암탉〉 상영
2014. 5.	'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 초청 공연 (사물놀이·B-boy·태권도)

날짜	문화·예술 교류
2014. 6.	2014 Quiz on Korea 지역 예선
2014. 7.	2014 K-Pop World Festival 지역 예선
2014. 10.	2014 한마음축제 개최
2014. 10.	한-캄보디아 '문화체육 교류의 날' 행사
2014. 10.	제8회 한국영화제 개최 ※ 〈늑대소년〉, 〈고령화 가족〉, 〈거인〉, 〈괴물〉, 〈광해〉 상영
2015. 6.	2015 K-Pop World Festival 지역 예선
2015. 6.	캄보디아-한국 친선 클래식 콘서트
2015. 6.	2015 Quiz on Korea 지역 예선
2015. 11.	제9회 한국영화제 개최 (이준익 감독 특별전) ※ 〈사도〉, 〈왕의 남자〉, 〈라디오스타〉, 〈소원〉, 〈즐거운 인생〉 상영
2015. 12.	2015 Korea Day for Cambodian Friends (한마음축제)
2016. 5.	국립발레단 초청 발레공연 ※ 시하모니 국왕 참석
2016. 10.	제10회 한국영화제 ※ 〈관상〉, 〈도둑들〉, 〈수상한 그녀〉, 〈국제시장〉 상영
2017. 3.	가수 비 콘서트 개최
2017. 6.	2017 K-Pop World Festival 지역 예선
2017. 7.	2017 Quiz on Korea 캄보디아 지역 예선
2017. 9.	제11회 한국영화제 ※ 〈부산행〉, 〈럭키〉, 〈검사외전〉, 〈은밀하게 위대하게〉 상영
2017. 10.	한-캄보디아 재수교 20주년 기념 정가악회 초청 국악 공연
2017. 11.	한-캄보디아 재수교 20주년 기념 한식 축제
2017. 12.	가수 CL(전 2NE1 멤버) 콘서트 개최
2018. 6.	2018 K-Pop World Festival 지역 예선
2018. 7.	2018 Quiz on Korea 캄보디아 지역 예선

날짜	문화·예술 교류
2018. 9.	2018 대사배 태권도 대회
2018. 9.	제12회 한국영화제 ※ 〈계춘할망〉, 〈청년경찰〉, 〈공조〉,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 〈신과 함께 2-인과 연〉 상영
2018. 10.	한식 홍보행사
2018. 11.	2018 Korea Cultural Festival 행사
2019. 1.	아시아문화위원회 출범 계기 문화 공연 행사
2019. 6.	2019 K-Pop World Festival 지역 예선
2019. 6.	2019 대사배 태권도 대회
2019. 6.	2019 K-Pop World Festival 지역 예선
2019. 6.	2019 상반기 한국 주간 행사 '한국문화축제' 개최
2019. 6.	2019 대사배 태권도 대회
2019. 11.	2019 하반기 한국 주간 행사 '한국문화축제 나들이' 개최
2019. 12.	제13회 한국영화제 ※ 〈엑시트〉, 〈기생충〉, 〈가장 보통의 연애〉, 〈범죄와의 전쟁〉,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 상영
2020. 10.	한국 주간 행사 3부작 영상 제작 〈헹비살과 한식 만들기〉, 〈한-캄 문화 교류〉, 〈한-캄 코로나19 대응 협력〉
2020.10.	국경일 계기 태권도 격파 시범 행사
2020. 10.	국경일 기념 출판물 제작 및 보도 (현지어, 영어)
2020. 10.	국경일 계기 K-방역 관련 영상 프놈펜 시내 상영
2021. 7.	2021 K-Pop World Frstival 지역 예선
2021. 7.	2021 캄보디아 한류 홍보 서포터즈 선발
2021. 9.	2021 대사배 태권도 대회
2021. 10.	2021년 국경일+한국주간 행사, '캄보디아 평화지도' 제막식

날짜	문화·예술 교류
2021 .10.	한-메콩 교류의 해 10주년 기념 한국어 말하기 대회
2021. 11.	한-캄 보건의료 협력 다큐멘터리 방영
2021.12.	한국문화제 〈한국어말하기대회〉, 〈K-pop contest〉, 〈Photo contest〉, 〈Quiz on Korea〉
2021.12.	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 협력 영상 제작 및 삼륜택시(툭툭)에 영상 광고 게재
2022. 6.	2022 캄보디아 한류 홍보 서포터즈 선발
2022. 6.	2022 K-Pop World Festival 지역 예선

마. 스포츠 및 방송 협력

-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여자 태권도 종목에서 첫 금메달 획득을 계기로 캄보디아에서 태권도 인기 급상승
  -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태권도 종목에서 손 시브메이 선수가 아시안게임 출전 60년 만에 최초로 금메달 획득(2016년 리우 올림픽에 자력 출전했으나 메달 획득에는 실패)
  -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태권도 사범(1996~현재 : 최용석 사범)이 캄보디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활동 중(캄보디아 태권도 국가대표팀은 2022년 제31회 동남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획득)
  - 현재 전국 50여 곳의 태권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략 1만여 명의 캄보디아인이 태권도 수련
  - 정기적인 태권도 용품 지원 및 매년 주캄보디아 대사배 태권도 대회 개최 중
  - 태권도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매년 태권도 해외 활성화 사업 진행 중
- 스롱 피어비 캄보디아 국적 당구 선수는 2017년 1월 한국에서 정식 선수로 등록한 뒤 데뷔 5개월 만에 한국 랭킹 1위에 올랐으며, 2018년

에는 세계선수권 4강 및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세계 랭킹 3위로 등극

- 캄보디아 프로축구 리그 12개 팀 중에 2018년 기준 8명의 한국 선수가 활약하는 등 한국 선수들의 캄보디아 진출이 증가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귀국

  ※ 2010~2012년, 2013~2017년에 이태훈 감독이 캄보디아 국가대표팀 감독 역임

- 그 외 한국에서 파견된 김수길 감독이 2014년부터 캄보디아 레슬링 국가대표팀을 지도

- 2009년 10월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MOU 및 T-DMB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4편을 공동 제작했으며, 2009년 12월 T-DMB 시범방송 개시

- 2009년 이후 캄보디아 국영방송 TVK에 40만 달러 상당의 방송장비를 지원했으며, 2011년 5월 KBS 사장 캄보디아 방문을 계기로 KBS-TVK 협력 양해각서 서명

- 우리 영화진흥위원회는 2013년 5월 개관한 캄보디아 최초의 영화 촬영소에 230여 개의 조명 장비 기증(영화진흥위원장, 2013.4. 전달식 참석)

바. 한국어 및 한국학 진흥

- 캄보디아 내 대학에 한국학과 및 한국어 강좌 개설(다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2022년간 일부 대학은 한국어 강좌 미운영)
  - 왕립프놈펜 대학 : 2007년 한국학과 개설, 학생 200여 명으로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규모
  - 라이프 대학 : 2006년 한국어과 개설, 학생 40여 명
  - 바탐방 대학 : 2007년 한국어과 개설, 학생 40여 명
  - 반티민체이 대학 : 2008년 3월 한국어과 개설, 학생 60여 명

- 앙코르 대학 : 2007년 비학위 한국어과 개설, 2015년 4년제 학위과정 신설
-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 : 2005년 5월 개교, 전교생(3,000명)이 교양과목(1~2학년 필수, 3~4학년 선택)으로 한국어 수강
- 웨스턴대학 : 2022년 영남대와 협업하여 새마을경제개발 학위과정(2년 캄보디아+2년 한국에서 공부) 개설, 학생 25명
- 그 외 프놈펜 왕립예술대학교, 깜뽕참 농업대학교, 시엠립 교육대학 등에서 한국어를 교양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왕립프놈펜대학 내 한-캄보디아 협력센터(CKCC), 시엠립 세종학당(희망의 노래 어학센터), 포이펫 세종학당(종로구청 운영), 프놈펜 세종학당(왕립농업대학교-덕성여대 협업으로 2022년 세종학당 신규 지정, 아직 공식 운영 전)에서 한국어 강좌를 운영 중
- 2020년 양국 교육부 간 한국어 교육협력 MOU 체결에 따라 2021년 프놈펜 내 3개 고등학교에서 방과후 한국어 수업 최초 개설, 2022년 하반기에는 총 6개 고교에서 방과후 한국어 수업 개설 예정

• 국립국제교육관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 한국어능력시험은 통상 연 3회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1,031명, 2018년 1,091명, 2019년 1,177명이 응시하는 등 최근 증가 추세, 2020~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어능력시험 미실시, 2022년 4월 코로나19 이후 첫 한국어능력시험에 501명 응시(2022년 중 총 3회 실시 예정)

※ 이와는 별개로 산업연수생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도 매년 4만~5만 명이 응시

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 2004년 7월 수원시-시엠립주 자매결연 체결

- 2007년 시엠립 프놈크롬 마을을 수원마을로 지정 후 현재까지 총 4단계에 걸쳐 지원사업 진행

- 1단계 : 학교, 공동 화장실, 우물, 마을회관, 도로 등 건립
- 2단계 : 취약계층 주민 일자리 창출, 유아보육센터 운영
- 3단계 : 수원중·고등학교 건립, 기초 진료소 개소
- 4단계 : 기술교육을 통한 소득 창출, 아동 교육권 보장 활동 전개

• 2008년 6월 충청남도-시엠립주 자매결연 체결
- 시엠립 주지사 2010년 9월 세계대백제전(충남 부여) 참석, 충남지사 2011년 10월 시엠립주를 방문하여 중고 컴퓨터(100대) 기증
- 2017년 10월 외국 지방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프로그램 진행

• 2008년 10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프놈펜시와 협력하여 프놈펜 시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대구경북문화센터(PGCT) 건립

• 2009년 3월 인천시-캄보디아 자매결연 체결
- 프놈펜 시 도시개발, 주택건설,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천과의 협력 강화 협약 체결

• 2009년 6월 부산시-프놈펜시 자매결연 체결
- 이후 부산시는 소방차량 양여, 프놈펜시 공무원 초청 연수 등 지원 사업을 실시했으며, 2010년부터 캄보디아 한글학교 운영 지원
- 2010년 제1차, 2012년 제2차 전문인력 초청 환경기술 연수 프로그램 실시

• 2013년 11월 경기도 남양주시-캄퐁참주 자매결연 체결
- 2016~2018년 캄퐁참주 공무원 농업기술 연수단 방한
- 봉사단 파견 및 상호 교류 프로그램 운영

• 2019년 7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 반띠민쩨이 포이펫시 자매결연 체결

• 2019년 8월 경상북도, 캄보디아 국가 음원 제작 지원
- 경상북도가 음원 제작비를 제공하고, 경북 도립교향악단의 연주와

캄보디아 왕립합창단의 합창으로 캄보디아 국가 음원을 50여 년 만에 새로 녹음

아. 민간단체 교류 및 지원

- 민간단체 다수가 캄보디아와 교류 협력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캄보디아 한국개발NGO협의회(회원 기관 29개)가 결성되어 운영 중

VIII

북한과의 관계

1. 기본 관계
2. 최근 동향
3. 주요 인사 교류
4. 경제협력 관계

1. 기본 관계

- 1964. 4. 2. 영사 관계 수립
- 1964.12.28. 외교 관계 수립, 상주 대사관 교환 설치
  ※ 크메르루즈 집권(1975)으로 관계 단절
- 1970~80년대 시하누크 망명 시기에 김일성의 배려로 각별한 개인적 친분 관계 유지
- 1991.11. 외교 관계 재수립
- 1997.10. 한-캄보디아 공식 외교 관계 재수립 이전까지 친북 노선 및 우호협력 관계 유지
- 1997년 이후 한-캄보디아 외교 관계 재개 및 관계 발전에 따라 일반적 외교 관계 유지
- 공관장
  - 주캄보디아 북한 대사 : 장윤곤 대사 (2016.6월 부임)
  - 주북한 캄보디아 대사 : Sieng Bunvuth 대사(2020.6월 임명,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미부임)

2. 최근 동향

- 시하누크 전 국왕 사망 후, 시하누크-김일성 간 개인적 친분에 기초하여 왕실 중심으로 이어져 온 캄보디아-북한 관계가 점진적 축소 경향
- 최근 캄보디아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및 한반도의 평화 위협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핵 문제에 대한 비판 입장 견지 중
-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수년간 북한과의 고위급 인사 교류 자제
- 다만 캄보디아 부총리가 북한 정권 수립일 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2018.9.)하였으나 이후에는 눈에 띄는 고위급 접촉은 없는 상황
- 대북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 차원에서 2019년 캄보디아 내 북한 식당 6개(프놈펜 4개, 시엠립 2개) 및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시엠립 소재) 폐쇄

3. 주요 인사 교류

날 짜	주요 인사 교류
2000. 7.29.~31.	백남순 외무상 캄보디아 방문 (방콕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2001. 7.17.~21.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캄보디아 방문
2002.12.14.~17.	호남홍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 북한 방문
2004. 4.	시하누크 국왕, 평양 방문 약 4개월간 체류
2004. 7.29.~8.2.	김영일 외무성 부상, 캄보디아 방문 ※ 캄보디아·북한 수교 40주년 계기 전통 우호협력 관계 재확인
2007.11.1.~4.	김영일 총리, 캄보디아 방문 ※ 인적교류 증진, 경제협력 증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논의
2010. 12 1.~4.	김영일 당 국제부장, 캄보디아 방문 (제6차 ICAPP 정기총회 참석차)
2011. 3.27.~30.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캄보디아 방문
2012. 6. 4.~6.	호남홍 캄보디아 외교장관, 북한 방문
2012. 7. 1.~16.	박의춘 외무상, 캄보디아 방문
2012.10.20.~22.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캄보디아 방문 ※ 시하누크 전 국왕 조문 및 훈센 총리 예방
2015. 2. 3.~5.	리길성 외무성 부상 캄보디아 방문
2015.12.15.	북한 최고인민회의대표단(안동춘 부의장) 캄보디아 방문 - 캄보디아 개최 제8차 아시아의회 회의 참석
2016.12.1.	북한 최고인민회의대표단(박명국 외무부상) 캄보디아 방문 - 캄보디아 개최 제9차 아시아의회 총회 참석
2018. 9.	호남홍 캄보디아 부총리,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계기 북한 방문
2019.11.	리길성 외무성 부상 캄보디아 방문

4. 경제협력 관계

• 무역 규모

(단위 : 만 달러)

연 도	대북 수출	대북 수입	총계
2012	50	0	50
2013	96	14	110
2014	68	30	98
2015	80	97	177
2016	188	15	203
2017	79	4	83
2018	21	3	24
2019	-	11	11
2020	5	8	13
2021	5	12	17

출처 : IMF

• 북한의 對캄보디아 투자

-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 : 약 2,500만 달러(추정)
- 2011년 7월 착공, 2015년 12월 개관, 2019년 11월 폐쇄

※ 북한의 유일한 對캄보디아 투자

IX

부 록

1. 주요 인사 인적사항
2. 제6기 내각 명단
3. 캄보디아 공휴일
4.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5.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6. 캄보디아 왕국 헌법

1. 주요 인사 인적사항

가. 국왕

성 명	노로돔 시하모니 (His Majesty Preah Bat Samdech Preah Boromneath Norodom Sihamoni, King of Cambodia)	
생년월일	1953년 5월 14일	
학 력	• 1962~1975 체코 체재(프라하 예술아카데미) • 1975~1976 북한 영화학교 수학	
경 력	• 1981 프랑스 파리 Marius Petipa 예술학교 및 Gabriel Faure 예술학교 고전무용 교수 • 1984 Ballet Deva 감독 • 1990 크메르 영화사 감독 • 1992~1993 최고국가평의회(Supreme National Council) 유엔 상주대표 • 1993~2004 주UNESCO 대사 • 2004 왕위 등극	
가족 관계	미혼	
방한 경력	없음	
취미/기타	• 프랑스어·체코어가 유창하며, 영어와 러시아어도 구사 가능 • 음악·무용·영화 등 예술 방면의 재능과 관심 다대 • 1967년 시하누크 국왕이 직접 제작한 영화 〈어린 왕자〉에 왕자 역으로 출연	

나. 총리

성 명	훈 센 (Samdech Akka Moha Sena Padei Techo Hun Sen)	
생년월일	1952년 8월 5일	
출생지	캄퐁참(Campong Cham)	
학 력	• 1991 하노이대학 명예박사 • 1994 남가주대학 명예박사 • 2006 순천향대 명예박사 • 2009 우석대 명예박사, 고려대 정치학 명예박사	
경 력	• 1979 캄보디아 국민군과 함께 크메르루즈 정권 전복 후 귀국, 외교장관 취임 • 1981 부총리 겸 외교장관 • 1985 총리 겸 외교장관 • 1986 외교장관 겸임 사임 (총리직 전념 목적) • 1987 외교장관 겸임 복귀 (평화협상 시 역할 목적) • 1989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 입안 및 실행 • 1991 시하누크·손산·크메르루즈와 파리평화협정 서명 • 1993 총선 패배로 라나리드 왕자(제1총리)와 연정 구성, 제2총리 취임 • 1998~ 2~6차 총선 승리 및 총리 취임	
가족 관계	부인과 3남2녀	
방한 경력	• 1996. 7. 제2총리 재직 시 방한 • 2001. 4. 공식 방한 • 2006. 3. 공식 방한 • 2008. 2.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참석 • 2009. 6.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공식 방한 • 2014.12.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공식 방한 • 2020. 2. 비공식 방한(문재인 대통령 면담) ※ UPF 월드서밋 2020 참석 • 2022. 2. 비공식 방한(문재인 대통령 면담) ※ UPF 월드서밋 2022 참석	
참고사항	골프, 배구, 축구, 체스, 독서, 작사·곡 등 취미 다양. 김치 애호가	

다. 상원의장

성 명	사이 춤 (Samdech Vibolsena Pheakdei Say Chhum)	
생년월일	1945년 2월 5일	
출생지	캄퐁참	
학 력	• 프놈펜교육대학 교육학 졸업 • 미국 국립대학 정치행정학 박사	
경 력	• 1979~1984 캄보디아국민당본부 조직국장 • 1983~1986 캄퐁스프주 주지사 • 1986~1988 농업부 장관 • 1988~1993 관방부 • 1993~2012 캄퐁스프주 의원 • 2008~2012 국회 제2부의장 • 2012~2015 국회 제1부의장 • 2015. 6. 상원의장, 국민당 부대표	
가족 관계	부인과 1남1녀	
방한 경력	2022.4월 박병석 국회의장 초청으로 공식 방한	
참고사항	종교 : 불교	

라. 국회의장

성 명	헹 삼린 (Samdech Akka Moha Ponthea Chakrei Heng Samrin)
생년월일	1934년 5월 25일
출생지	캄퐁참
학 력	• 하노이 고위정치훈련과정 • 2009년 전주대학교 명예박사
경 력	• 1959 캄푸치아 인민혁명군 입대 • 1970 캄푸치아 동부지역사령부 사령관 • 1978.12. 캄푸치아 구원을 위한 연합전선 회장 • 1979. 1.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의원 • 1979. 1. 캄푸치아 인민혁명협의회 의장 • 1981. 5. 국회의원, 캄푸치아인민혁명당 중앙위 위원 • 1981. 6. 캄푸치아인민공화국 국가평의회 회장 • 1981.12. ▲캄푸치아 구원·방위를 위한 연합전선협의회 명예회장 ▲캄푸치아 인민혁명당 중앙위 총서기 • 1985.10. 캄푸치아인민혁명당 중앙위 총서기 • 1993 캄보디아국민당(CPP) 명예총재 제1대 국회의원(깐달) 캄보디아 국왕 고등자문관 • 1998. 6. 제2대 국회의원(캄퐁참) / 국회 제1부의장 • 2003. 6. 제3대 국회의원 • 2004. 6. 국회 제1부의장(재선) • 2006. 3.~ 현재 국회의장
가족 관계	부인과 자녀 4명
방한 경력	2007. 9월 공식 방한
참고사항	취미 : 골프, 독서 종교 : 불교

마. 외교장관

성 명	쁘락 소콘 (Prak Sokhonn)	
생년월일	1954년 5월 3일	
출생지	프놈펜	
학 력	• 1989 헝가리 부다페스트국제학교 언론학과정 수료 • 1993 파리 공공행정국제연구소 수료 • 2001 파리 외교전략학센터 수료	
경 력	• 1986 국방신문 부편집장 • 1993 국방부 대변인 • 1993 총리 고문 • 1999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 2003 총리 고문 • 2004 총리 고문 겸 관방부 차관 • 2009 총리 직속 특임장관 겸 총리 고문 • 2013 우정통신부 장관 • 2016 선임장관 겸 외교장관 • 2018~현재 부총리 겸 외교장관	
방한 경력	• 1996 훈센 제2총리 최초 공식 방한 시 수행 • 2019.11. 훈센 총리 대행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방한 • 2020.2. 훈 센 총리 (비공식) 방한 시 수행 • 2021.9.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 공동 주재	
가족 관계	부인과 자녀 3명	
구사 언어	크메르어, 프랑스어, 영어	
참고사항	군 서열 : 4성 장군	

2. 제6기 내각 명단

총 리		
Samdech Akka Moha Sena Padei Techo Hun Sen (훈 센)		
부총리		
1	Sar Kheng (싸 켕)	내무장관 겸임
2	Bin Chhin (븐 츤)	관방장관 겸임
3	Tea Banh (띠어 반)	국방장관 겸임
4	Hor Namhong (호 남홍)	
5	Men Sam An (멘 삼 얀)	상하원 관계/ 감찰부 장관 겸임
6	Yim Chhay Ly (염 차이 리)	
7	Ke Kim Yan (께 끔 량)	
8	Prak Sokhonn (쁘락 소콘)	외교장관 겸임
9	Aun Porn Moniroth (온 뽄 모니로앗)	재경장관 겸임
10	Chea Sopara (찌어 소파라)	국토관리도시계획 건설장관 겸임
선임장관		
1	Chhay Than (차이 턴)	기획장관
2	Pol Sareun (뽈 사른)	(특임)
3	Kun Kim (꾼 낌)	(특임)
4	Mea Sophea (미어 소피어)	(특임)
5	Cham Prasidh (쩜 쁘라섯)	산업과학기술 혁신장관

선임장관		
6	Khun Haing (쿤 항)	(특임)
7	Ly Thuch (리 톳)	(특임)
8	Sun Chanthol (순 짠톨)	공공사업운송장관
9	Om Yentieng (아옴 옌띠응)	(특임)
10	Ieang Mouly (이응 몰리)	(특임)
11	Var Kimhong (와 끔홍)	(특임)
12	Yim Nolla (염 놀라)	(특임)
13	Chin Bunsean (찐 분시은)	(특임)
14	Ho Sithi (호 섯티)	(특임)
15	Osman Hassan (오스만 핫산)	(특임)
각 부 장관		
1	관방부 (Council of Ministers)	Bin Chhin (븐 츤)
2	내무부 (Ministry of Interior)	Sar Kheng (싸 켕)
3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ea Banh (띠어 반)
4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Prak Sokhonn (쁘락 소콘)
5	경제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un Porn Moniroth (온 뽄 모니로앗)
6	농림수산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Veng Sakhon (웽 사콘)
7	농촌개발부 (Ministry of Rural Development)	Ouk Rabun (옥 라분)

각 부 장관		
8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Pan Sorasak (빤 쏘라삭)
9	산업과학기술혁신부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ham Prasidh (쩜 쁘러섯)
10	광물에너지부 (Ministry of Mines and Energy)	Suy Sem (수이 사엠)
11	기획부 (Ministry of Planning)	Chhay Than (차이 턴)
12	교육청소년체육부 (Ministry of Education, Youth and Sports)	Hang Chuon Naron (헝 쭈은 나론)
13	사회보훈청소년갱생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Veteran and Youth Rehabilitation)	Vong Sauth (봉 쏫)
14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Chea Sophara (찌어 소파라)
15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Say Sam Al (싸이 썸알)
16	수자원기상부 (Ministry of Water Resource and Meteorology)	Lim Keanhor (름 낀하오)
17	공보부 (Ministry of Information)	Khieu Kanharith (키으우 깐냐릇)
18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Koeut Rith (까웃 릇)
19	상하원관계/감찰부 (Ministry of National Assembly- Senate Relations and Inspection)	Men Sam An (멘 삼 언)
20	정보통신부 (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	Chea Vandeth (찌어 반뎃)

각 부 장관		
21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Mam Bunheng (멈 분헹)
22	공공사업교통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Sun Chanthol (순 짠톨)
23	문화예술부 (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s)	Phoeung Sakona (프응 싸꼬나)
24	관광부 (Ministry of Tourism)	Thong Khon (타옹 콘)
25	종교부 (Ministry of Cults and Religions)	Chhit Sokhon (츳 소콘)
26	여성부 (Ministry of Women's Affairs)	Ing Kantha Phavi (응 껀타 파비)
27	노동직업훈련부 (Ministry of Labor and Vocational Training)	Ith Samheng (읏 섬헹)
28	인사부 (Ministry of Civil Service)	Phrom Sokha (쁘롬 소카)
29	민간항공사무처 (State Secretariat of Civil Aviation)	Maeu Havannal (마으 하반날)
1	총리 직속 특임장관 (Ministers Delegate Attached to PM)	Sok Chenda Sophea (쏙 쩐다 소피아)
2		Mam Sarin (멈 사른)
3		Sry Thamarong (쓰리 타미롱)
4		Chhieng Yanara (치응 얀나라)
5		You Sunlong (유 선롱)
6		Som Soeurn (싸옴 쓰은)
7		Sun Kunthor (쏜 꾼토)
8		Kao Kim Hourn (까으 큼 후은)

각 부 장관		
9	총리 직속 특임장관 (Ministers Delegate Attached to PM)	Uch Kim An (옷 끔언)
10		Keo Remy (까에우 레미)
11		Svay Sitha (스와이 시타)
12		Phay Siphan (파이 시판)
13		Keo Rattanak (까에우 로따나)
14		Hun Sitha (훈 시타)
15		Chhim Phal Virun (츰 펄버룬)
16		Norinarith Anandayat (노라나릇 안다얏)
17		Hary Sam At (하리 섬앗)
18		Keo Ba Phnom (까에우 바프놈)

3. 캄보디아 공휴일 (2022년 기준, 매년 다소 상이)

날 짜	공휴일
1. 1.	신년
1. 7.	학살 정권에 대한 승리의 날
3. 8.	국제 여성의 날
4.14.~16.	캄보디아 신년
5. 1.	노동절
5.14.	시하모니 국왕 탄생일
5.15.	부처 탄생일
5.19.	왕실 농경의 날
9.24.	제헌절
9.24.~26.	캄보디아 추석
10.15.	시하누크 선왕 서거일
10.23.	파리평화협정 기념일
10.29.	시하모니 국왕 즉위 기념일
11. 9.	독립기념일
11.7.~9.	물 축제

4.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 소	Phum No.14, Sangkat Tonle Bassac, Khan Chamkarmon, Phnom Penh, P. O. Box 2433, Kingdom of Cambodia
전 화	(+855-23) 211-900~3
팩 스	(+855-23) 219-200
시 차	-2시간 (우리나라보다 두 시간 늦음)

5.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20길 12
전 화	(02)3785-1041
근무시간	9:00-17:00 (월~금)

6. 캄보디아 왕국 헌법(1993.9.24. 최초 제정)

* 이후 총 10차례 개정

전 문

우리 캄보디아 국민은 숭고한 문명과 풍요로운 국가, 광활한 영토, 그리고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명성을 익히 보유하였으나,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치욕스러운 고통과 참사를 가장 유감스러운 방법으로 겪은 지난 20년 동안 절망적인 쇠퇴의 나락으로 떨어진바, 돌연한 자각 끝에 결연한 각오로 일어나 하나로 뭉치고, 국가 결속을 강화하며, 캄보디아 영토를 수호하고, 소중한 주권과 경이로운 앙코르 문명을 보전하며, 국가를 재건하여 복수정당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근간을 둔 '평화의 오아시스'를 다시 한 번 이룩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법에 대한 존중을 확보하는 한편, 진보·발전·번영을 향하여 영원히 진화하는 국가적 숙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 확고부동한 의지에 따라, 우리는 캄보디아 왕국의 헌법을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제1장 주권

제1조

캄보디아는 헌법과 복수정당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왕이 그 역할을 다하는 왕국이다. 캄보디아 왕국은 독립, 자주, 평화, 영구 중립 및 비동맹 국가이다.

제2조

캄보디아 왕국의 영토는 1933년부터 1953년 사이에 만들어진 10만 분의 1 축척 지도에 명시되고, 1963년부터 1969년 사이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캄보디아 국경 내에서 절대 불가침이다.

제3조

캄보디아 왕국은 분단할 수 없는 국가이다.

---

* (역자 주) 캄보디아는 헌법상 입헌군주국인바, 영문 번역상의 '정부'를 'Royal Government'로 하고 있으나, 본 한글 번역문에서는 '정부'로 표기함

제4조
캄보디아 왕국의 표어는 국가, 종교, 왕이다.

제5조
공식 언어와 문자는 크메르어이다.

제6조
프놈펜은 캄보디아 왕국의 수도이다. 국기, 국가 및 나라 문장(紋章)은 부속서 1, 2 그리고 3에서 정의한다.

제2장 국왕

제7조
캄보디아의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아니한다.
국왕은 평생 국가원수(元首)이다.
국왕의 인격은 불가침이다.

제8조
국왕은 국가 결속과 영속의 상징을 체현하여야 한다.
국왕은 캄보디아 왕국의 독립, 주권, 그리고 영토 보전의 보증인이며, 국민의 권리·자유 존중과 국제 조약의 보증인이다.

제9조
국왕은 공권력의 규칙적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최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제10조
캄보디아 왕정은 선출 왕정이다.
국왕은 왕위에 자신의 후계자를 임명할 수 없다.

제11조
국왕이 중대한 질병으로 인하여 국가원수로서 자신의 직무를 평소와 같이 수행할 수 없는 때로서, 이를 상원의장, 국회의장 및 총리가 선임하는 전문 의료진이 확인한 때에는, 상원의장이 국왕을 대리하여 섭정으로서 국가원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 문단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국왕이 중대한 질병 중인 때에 상원의장이 섭정으로서 국왕을 대리하여 국가원수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회의장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 문단의 경우, 그 밖의 고위 인사가 다음의 순서로 국가원수를 대리하는 섭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가 - 상원 제1부의장
나 - 국회 제1부의장
다 - 상원 제2부의장
라 - 국회 제2부의장

제12조

국왕의 서거 시에는, 상원의장이 캄보디아 왕국 섭정의 지위에서 임시 국가원수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상원의장이 섭정의 지위에서 임시 국가원수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1조의 제2 및 제3 문단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3조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캄보디아의 새로운 국왕은 국왕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국왕선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 상원의장
- 국회의장
- 총리
- 마하니까야와 담마유티카니까야 등, 두 종파의 종정(宗正)
- 상원 제1, 2부의장
- 국회 제1, 2부의장

국왕선출위원회의 조직과 역할은 법률로 정한다.

제14조

캄보디아 국왕은 왕가의 일원 중 최소 30세에 이른 자로서, 앙 두옹 왕, 노로돔 왕 또는 시소왓 왕의 후손인 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왕위에 오르기 전에 국왕은 부속서 4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제15조

국왕의 배우자는 캄보디아 여왕의 칭호를 가진다.

제16조

캄보디아 여왕은 정치에 관여하거나, 국가·정부 사무에서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거나, 행정 또는 정치적 역할을 담당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캄보디아 여왕은 사회적·인도적·종교적 이익에 부합하는 직무에 전념하여야 하며 의전과 외교적 책무에서 국왕을 보좌하여야 한다.

제17조
헌법 제7조 제1문단에서 정하는,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어느 때에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
국왕은 왕실 조서(詔書)로 상원 및 국회와 소통한다.
이러한 조서는 상원과 국회에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9조
국왕은 제119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총리와 내각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20조
국왕은 국정 상황에 대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는 총리와 내각에 월 2회의 공식 접견을 허용한다.

제21조
내각의 요청에 따라, 국왕은 고위직 일반 및 군인 공무원, 특명전권대사의 임명·전보·해임에 대한 명령에 서명하여야 한다.
최고사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국왕은 법관의 임명·전보·해임에 대한 명령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22조
국가가 위기에 직면한 때 국왕은 총리, 국회의장 및 상원의장 모두의 동의를 받아 국가비상사태의 선포를 일반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
국왕은 캄보디아 국군의 통수권자이다. 캄보디아 국군의 총사령관을 임명하여 군을 지휘하도록 한다.

제24조
국왕은 법률로 설치하는 국방최고위원회의 위원장이다.
국왕은 국회와 상원의 승인을 받아 전쟁을 선포한다.

제25조
국왕은 캄보디아 왕국에 파견되는 외국 특명전권대사의 신임장을 제정받는다.

제26조
국왕은 국회와 상원의 승인을 받아 국제 조약과 협정에 서명하고 이를 비준한다.

제27조
국왕은 법원의 형(刑)을 감할 권리와 사면의 권한을 보유한다.

제28조
국왕은 헌법을 공포하는 왕실 법률과 국회가 채택하고 상원이 면밀하게 심사한 법률을 비롯하여, 내각에서 제출하는 명령에 서명한다.
와병 중 또는 국외 치료 시, 국왕은 왕실 법률과 명령에 서명할 그의 권한을 임시 국가원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서명권의 위임은 명시한다.

제29조
국왕은 국가 영전(榮典)을 신설하고 수여한다. 국왕은 법률로 정하는 체계에 따라 군사 및 민간 분야별 등급과 칭호의 수여를 결정한다.

제30조
국왕의 부재 시, 상원의장이 임시 국가원수의 직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국왕의 부재 시에 상원의장이 임시 국가원수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1조 제2 및 제3 문단에 따라 해당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캄보디아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1조
캄보디아 왕국은 「국제연합 헌장」,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인권, 여성의 권리 및 아동의 권리와 관련한 모든 조약과 협정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인권을 인정하며 존중한다.
캄보디아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신앙, 종교, 정치 성향, 출생지, 사회적 신분, 부(富) 또는 그 밖에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동일한 권리와 자유 그리고 의무를 향유한다. 누구든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행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

제32조
모든 사람은 개인의 생명,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상황에서도 사형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캄보디아 국민은 상호 합의하지 아니하고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추방되거나

추방 목적으로 체포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외에 거주 중인 캄보디아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향유한다.
캄보디아 국적의 취득은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캄보디아 국민은 양성(兩性) 모두 투표할 권리와 선거에서 입후보할 권리를 향유한다.
캄보디아 국민은 양성 모두 최소 18세부터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캄보디아 국민은 양성 모두 최소 25세부터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권리를 가진다.
캄보디아 국민은 양성 모두 최소 40세부터 상원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권리를 가진다.
투표할 권리 및 선거에 입후보할 권리를 철회하는 규정은 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5조
캄보디아 국민은 양성 모두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모든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은 충분히 심사하고 해결 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6조
캄보디아 국민은 양성 모두 자신의 능력과 사회의 수요에 따라 어느 직업이든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캄보디아 국민은 양성 모두 동등한 업무에 대하여는 동등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가정주부의 가사 업무는 가정 외부에서 급여를 받고 하는 업무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캄보디아 국민은 양성 모두 사회보장 및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회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캄보디아 국민은 양성 모두 노동조합을 신설하고 조합원으로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조합의 조직 및 역할은 법률로 정한다.

제37조
파업 및 평화적 시위를 조직할 권리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제38조
법률은 개인에 대한 신체 학대를 금지한다.
법률은 국민의 생명, 명예 및 존엄성을 보호한다.
개인에 대한 기소, 체포, 구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르는 때를 제외하고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구금자나 수용자의 형벌에 가중하는 강박, 체벌 또는 그 밖의 처우는 금지한다. 그러한 행위의 정범, 공동정범 및 공범은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신체의 고문이나 정신적 압박을 통하여 받아낸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아니한다.

의심은 피의자의 이익으로 한다.
피의자는 법원의 종국 평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개인은 누구든 사법 제도를 통하여 자신을 항변할 권리를 가진다.

제39조
캄보디아 국민은 국가 및 사회기관 또는 그러한 기관의 직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발하거나, 제소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소송의 해결 및 손해의 배상은 법원의 권한으로 한다.

제40조
국민의 원거리 또는 근거리 이동 및 합법적 거주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캄보디아 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본국으로 귀국할 권리를 가진다.
주거의 불가침 및 우편·전보·텔렉스·팩시밀리·전화 통신의 비밀에 대한 권리 보호는 보장되어야 한다.
주거·사유지의 수색 및 신체 수색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41조
캄보디아 국민은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표현할 자유,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 이러한 권리를 남용하여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과 관습, 공공질서 및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언론단체는 법률로 규율하여야 한다.

제42조
캄보디아 국민은 협회와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정당은 국익을 우선시해야 하며, 캄보디아와 캄보디아 국민들의 이익을 해칠 만한 그 어떠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활동도 해서는 아니 된다.
캄보디아 국민은 상호 원조 및 국가 실현·사회질서의 보호를 위한 대중 조직에 참여할 수 있다.

제43조
캄보디아 국민은 양성 모두 온전한 신앙의 권리를 가진다.
신앙의 자유와 종교 활동은 국가에서 보장하여야 하며, 다만 그 자유와 종교 활동은 다른 신앙이나 종교, 공공질서와 안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교는 국교(國敎)이다.

제44조
모든 개인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캄보디아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만이 토지를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개인의 합법적 소유권은 법률로 보호하여야 한다.
수용은 법률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수요가 있으며 사전에 적정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진 때에만 가능하다.

제45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은 제거하여야 한다.
여성 노동의 착취는 금지한다.
남성과 여성은 모든 분야, 특히 결혼과 가족과 관련한 분야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결혼은 법률로 정하는 조건에 따르고 상호 동의와 일부일처제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46조

인신매매, 성매매 착취 및 여성의 존엄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설은 금지한다.
임신을 이유로 한 여성 노동자의 해고를 금지한다. 여성은 온전한 임금을 받고 직장에서의 경력과 그 밖의 사회 혜택을 보장받는 출산휴가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사회는 여성, 특히 벽지(僻地)에 사는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 의료, 자녀의 취학 및 적정 생활조건 등에 대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7조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며 선량한 국민이 되도록 교육할 의무를 진다.
자녀는 자신의 연로한 부모를 봉양하고 캄보디아 관습에 따라 극진히 보살필 의무를 진다.

제48조

국가는 아동에 대한 협약에서 명시하는 아동의 권리, 특히 생명에 대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전시(戰時)에 보호받을 권리 및 경제적·성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의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는 아동의 교육과 취학 또는 아동의 건강과 안녕에 해로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노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9조

모든 캄보디아 국민은 헌법과 법령을 존중하여야 한다.
모든 캄보디아 국민은 국익을 우선시해야 하며, 캄보디아와 캄보디아 국민들의 이익을 해칠 만한 그 어떠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활동도 해서는 아니 된다.
모든 캄보디아 국민은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조국을 수호할 의무를 진다.
조국을 수호할 의무는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50조
캄보디아 국민은 양성 모두 국가 주권 및 복수정당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캄보디아 국민은 양성 모두 공공 재산 및 법적으로 취득한 사유재산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4장 정치 제도

제51조
캄보디아 왕국은 복수정당 자유민주주의 정책을 채택한다.
캄보디아 국민은 국가 운명의 주인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은 그 권력을 국회, 상원, 정부 및 사법권을 통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권력은 입법권, 행정권 및 사법권으로 분리하도록 한다.

제52조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 왕국의 독립, 주권 및 영토보전과 수호, 국가 결속을 확보하기 위한 거국적 화해 정책의 시행, 그리고 국가의 선량한 풍속과 관습 보호 등에 결연히 헌신하여야 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법을 수호하고 공공의 질서와 안보를 확립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활조건과 복지의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제53조
캄보디아 왕국은 영구중립 및 비동맹 정책을 결연히 유지한다. 캄보디아 왕국은 인접국 및 전 세계 다른 국가와 평화롭게 공존한다.
캄보디아 왕국은 절대 어느 국가를 침략하거나 다른 국가의 내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캄보디아 왕국은 아국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모든 형태의 내정간섭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캄보디아 왕국은 군사동맹에 참여하거나, 아국의 중립 정책과 양립할 수 없는 군사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캄보디아 왕국은, 국제연합의 요청에 의하는 때를 제외하고, 아국의 영토에 외국군의 기지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국외에 아국군의 기지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캄보디아 왕국은 군장비·무기·탄약, 국군의 훈련 등에 대한 외국의 원조를 비롯하여 그 밖에 자주국방 및 영토 내 공공질서와 안보 확보를 위한 원조를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제54조
핵무기나 생화학무기의 제조, 사용 및 저장은 절대 금지한다.

제55조
캄보디아 왕국의 독립, 주권, 영토보전, 중립 및 국가 결속과 양립할 수 없는 조약과 협정은 무효이다.

제5장 경 제

제56조
캄보디아 왕국은 시장경제제도를 시행한다.
이러한 경제제도에서의 조직과 역할은 법률로 정한다.

제57조
조세는 법률로 허용하는 때에만 징수할 수 있다. 국가 예산은 법률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통화관리 및 금융제도는 법률로 정한다.

제58조
국유재산은 대표적으로 토지, 지하, 산, 바다, 해저, 심해저, 해안, 영공, 도서, 강, 운하, 하천, 호수, 산림, 천연자원, 경제·문화원, 국방기지, 그 밖에 국가 소유의 건물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국유재산의 관리, 활용 및 양도는 법률로 정한다.

제59조
국가는 특히 토지, 물, 대기, 공기, 지질, 생태계, 광산, 에너지, 석유 및 가스, 암석, 모래, 귀금속, 산림과 산림 부산물, 야생, 어종 및 해양자원 등의 관리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 및 천연자원 균형을 보전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60조
국민은 자신의 제품을 자유로이 판매하고 교환할 권리를 가진다. 제품을 국가에 판매하여야 하는 의무 또는 국가에 의한 개인의 재물이나 소유물 사용은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금지하며, 다만 법률에서 명시하여 허용하는 조건에 따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경제발전을 진흥하여야 하며, 특히 농업, 수공업, 산업 등에 중점을 두는 한편, 가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시작하여야 하고, 수자원 정책, 전기, 운송 도로와 수단, 현대 기술 및 신용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2조
국가는 생산수단의 해결, 농산물 및 수공예품의 가격 유지, 그리고 이러한 제품의 판매를 위한 시장 개척 지원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3조
국가는 국민의 적정 생활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규율에 힘써야 한다.

제64조
국가는 불법 약물, 위조품,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기한이 경과된 물품 등을 개인이 수입하여 오는 것을 금지하여야 하며, 그러한 자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제6장 교육, 문화 및 사회

제65조
국가는 모든 수준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진흥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에게 이러한 교육을 점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국가는 모든 캄보디아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체육과 스포츠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66조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조건 개선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의 자유와 학교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등의 원칙을 보장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통일된 교육 제도를 전국에 걸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67조
국가는 기술 및 외국어 등의 교육을 포함하는 교육과정과 현대적 교수 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모든 단계의 공립 및 사립 교육시설과 수업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68조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공립학교의 초·중등 교육을 무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국민은 최소 9년의 학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가는 팔리어 학교와 불교 교육을 전파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제69조
국가는 민족문화 보전 및 발전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필요에 따른 크메르어 보호 및 발전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고대 유적과 유물의 보전 및 보호, 그리고 사적지 복원 등의 의무를 진다.

제70조
문화유산과 예술유산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에 관련된 범죄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제71조
국가문화유산 및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의 주변은 군사 활동을 금지하는 중립 지대로 본다.

제72조
국민의 건강은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질병 예방 및 의학적 치료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소득층은 공립 병원, 진료소 및 산부인과에서 무상으로 의료 상담을 받아야 한다. 국가는 벽지에 진료소와 산부인과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3조
국가는 어린이집의 설치를 장려하고 도움 없이 다자녀를 돌보는 여성 지원에 힘쓰는 등 아동과 어머니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74조
국가는 장애인을 비롯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전사자의 유가족 등에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5조
국가는 노동자와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7장 국회

제76조
국회는 최소 120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보통·자유·평등·직접선거와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재선(再選)이 가능하다.
투표권이 있는 최소 25세에 이른 자로서, 출생에 의하여 취득한 캄보디아 국적이 있는 캄보디아 국민은 양성 모두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가진다.
선거의 준비를 담당하는 조직과 그 조직의 절차 및 역할은 「선거법」으로 정한다.

제77조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주민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국민 전체의 대표이다.
명령적 위임은 무효로 본다.

제78조

국회의 임기는 5년이며, 차기 국회가 그 직무를 개시하는 날에 종료한다. 국회는 그 임기의 종료 전에는 해산할 수 없으며, 다만 정부가 12개월 이내의 기간에 2회에 걸쳐 투표로 해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국왕은 총리의 건의와 국회의장의 승인에 따라 국회를 해산하여야 한다.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 해산일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기간 중, 정부는 일상 사무의 처리만을 담당한다.

전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국회가 국왕의 건의에 따라 1회 1년의 정회(停會)를 선언할 수 있다.

국회의 정회 선언은 최소 재적의원 3분의 2의 의결로 채택하여야 한다.

제79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공직과 그 밖에 헌법에서 정하는 기관의 일원으로서의 직무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겸할 수 없으며, 다만 정부의 내각에서 수행하는 직무는 예외로 한다.

이때, 해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은 유지하되,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각종 위원회에서 직위를 맡아서는 아니 된다.

제80조

국회의원은 의회 면책특권을 향유한다.

국회의원은 어느 때에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표명한 의견 또는 표결을 이유로 기소, 체포, 구류 또는 구금될 수 없다.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 체포, 구류 또는 구금은 회기 사이의 기간에 국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만 가능하며, 다만 현행범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소관 부처는 국회나 상임위원회로 급히 보고하여 결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회기의 국회에 제출하여 재적의원 3분의 2의 의결로 채택하여야 한다. 전술한 모든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구금, 기소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3으로 중단을 의결하는 때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81조

국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한 자체 예산을 가진다.

국회의원은 수당을 받아야 한다.

제82조

국회의 첫 회기는 선거일부터 60일 이내에 국왕이 소집하여 개회하도록 한다.

그 직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회는 각 국회의원 임기의 유효성을 선언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절대다수결로 의장, 부의장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모두를 각각 선출하여야 한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 캄보디아 단일 국적 보유자에 한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국회는 의사규칙을 재적의원 절대다수결로 채택하여야 한다.
임기 시작 전에, 모든 국회의원은 헌법 부속서 5에 기재된 문구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제83조
정기회는 1년에 2회 집회하여야 한다.
각 회기는 최소 3개월간 지속하여야 한다. 국왕의 요청 또는 총리의 건의 또는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세부 안건 및 해당 회기의 일자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4조
국회 회기 사이의 기간에는 상임위원회가 국회의 사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및 모든 국회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제85조
국회의 회기는 캄보디아 왕국 수도의 의사당에서 진행하도록 하되, 사정에 따라 집회 시 달리 정하여 명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술한 사례를 비롯하여 집회 시 명시하는 장소와 일자 이외의 국회 회기는 위법이며 그 자체로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제86조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에서, 국회는 무기한으로 매일 집회하여야 한다. 사정상 가능하다면 국회는 전술한 특수한 상황을 종료할 권한을 가진다.
외국 군대의 영토 점령 등과 같이, 부득이한 이유로 국회가 집회할 수 없다면, 비상사태 선언은 자동으로 연장한다.
국가비상사태 중에는 어느 때에도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제87조
국회의장은 국회의 회기를 주재하고, 국회가 채택하는 법률과 결의안을 인정하며, 의사규칙의 시행을 책임지고 국회의 국제 사무를 총괄한다.
국회의장이 건강상 이유로, 또는 임시 국가원수나 섭정의 직무를 담당하게 된 이유로, 또는 국외 출장 중인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이를 대신하여야 한다.
의장이나 부의장의 사임 또는 사망 시, 국회는 새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88조
국회의 회기는 공개한다.
국회는 의장,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 국왕 또는 총리 등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집회할 수 있다.

국회의 회기는 다음의 의사정족수가 있는 때에만 유효하다.

가 - 재적의원 3분의 2를 요구하는 의결인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를 초과하는 의사정족수

나 - 재적의원 절대다수를 요구하는 의결인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의 의사정족수

제89조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국회는 특별히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출석하여 설명할 특정 분야 전문가인 고위 인사가 수행하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정부 관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90조

국회는 입법권을 부여받은 조직으로 헌법과 현행 법률의 조항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는 국가 예산, 국가 계획, 차관의 도입·제공, 각종 재무보증 서약 및 조세의 신설·변경·폐지 등을 의결한다.
국회는 행정부 계좌를 승인한다.
국회는 「사면법」을 의결한다.
국회는 국제 조약이나 협정의 승인 또는 무효를 의결한다.
국회는 전쟁을 선포하는 법률을 의결한다.
전술한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절대다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국회는 재적의원 절대다수결로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를 진행한다.

제91조

상원의원, 국회의원 및 총리는 법률안 발의권을 가진다.
국회의원은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그 개정안이 공공 소득의 감소 또는 국민의 부담 증가를 의도하는 때에는 발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92조

캄보디아 왕국의 독립·주권·영토보전 수호 원칙에 반하고, 국가의 정치적 결속이나 행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 채택 사항은 무효로 본다. 헌법위원회는 그 무효를 선언할 권한을 가지는 유일한 조직이다.

제93조

국회가 의결하고 상원의 심사를 거친 뒤, 국왕이 공표하는 법률은 수도인 프놈펜에 대하여는 그 공표일부터 기산하는 10실질일* 이내에, 그리고 나머지 전국에 대하여는

---

* (역자주) 실질일(clear days)이란 초일과 말일을 산입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출처 :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1-205-5108?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

그 공표일부터 기산하는 20실질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것으로 선언하는 법률은 그 공표일부터 기산하여 국가의 전 영토를 대상으로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국왕이 서명하여 공표하는 법률은 관보에 공표하여야 하며 전술한 바와 같이 정하는 기한에 따라 국가의 전 영토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94조
국회는 필요한 여러 위원회를 설치한다. 국회의 조직과 역할은 국회의 의사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95조
국회 임기의 종료를 최소 6개월 앞두고 국회의원이 사망, 사임하거나 그 직을 상실하는 때의 보궐 절차는 국회의 의사규칙과 「선거법」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진행하여야만 한다.

제96조
국회의원은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권리를 가진다. 질문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국회의장을 통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안건이 1인 또는 수인의 장관 소관인지에 따라 1인 또는 수인의 장관이 답변을 제공하여야 한다. 안건이 정부의 정책 일반에 대한 것인 때에는 총리가 직접 답변하여야 한다.
장관이나 총리의 답변은 구두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상기 답변은 질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구두 답변 시, 국회의장은 논의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논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관이나 총리의 답변으로 해당 질문을 종료한다.
국회의장이 논의를 허용하는 때에는 질문자, 그 밖의 발언자, 관계 장관 또는 총리가 회의 1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시간 이내로 그 견해를 논하고 교환할 수 있다.
국회는 주 1일을 질문 시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질문 시간으로 확보된 회의에서는 어느 때에도 이를 대신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제97조
국회의 위원회는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여 장관의 책무와 관련이 있는 사안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98조
국회는 불신임 동의(動議)에 대하여 재적의원 절대다수결로 정부의 구성원을 해임하거나 정부를 해산할 수 있다. 정부가 국회에 의해 해산될 경우, 해산된 정부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일상 업무 수행의 책임만 있다.
정부 불신임 동의(動議)는 해당 불신임 동의의 심사에 앞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 국회로 제출하여야만 한다.

제8장 상원

제99조

상원은 입법권을 부여받은 조직으로 헌법과 현행 법률의 조항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한다.
상원의원의 의석수는 국회의원 총 의석수의 절반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원은 임명된 의원과 제한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상원의원은 신규 임명되거나 재선이 가능하다. 투표권이 있는 최소 40세에 이른 자로서, 출생에 의하여 취득한 캄보디아 국적이 있는 캄보디아 국민은 양성 모두 상원의원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00조

2인의 상원의원은 국왕이 임명한다.
2인의 상원의원은 국회가 상대 다수결로 선출한다.
그 밖의 상원의원은 제한선거로 선출한다.

제101조

상원의원의 임명과 선출을 위한 조직의 절차 및 역할을 비롯하여 투표자, 선거인단 및 선거구 등에 대한 결정은 법률로 정하여야만 한다.

제102조

상원의 임기는 6년이며 차기 상원이 그 직무를 개시하는 날에 종료한다.
전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상원이 국왕의 건의에 따라 1회 1년의 정회(停會)를 선언할 수 있다.
상원의 정회 선언은 최소 재적의원 3분의 2의 의결로 채택하여야 한다.
전술한 상황에서, 상원은 무기한으로 매일 집회하여야 한다. 사정상 가능하다면 상원은 전술한 특수한 상황을 종료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국가가 비상사태에 놓인 특수한 상황에 대한 종료 결정은 상원과 하원 총회에서 상원과 하원이 같이 결정해야 하며, 단, 헌법 제86조의 이행은 예외로 한다.
외국 군대의 영토 점령 등과 같이, 부득이한 이유로 상원이 집회할 수 없다면 비상사태 선언은 자동으로 연장한다.

제103조

상원의원의 임기는 공직,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그리고 그 밖에 헌법에서 정하는 기관의 일원으로서의 직무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겸할 수 없다.

제104조

상원의원은 의회 면책특권을 향유한다.

상원의원은 어느 때에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표명한 의견 또는 표결을 이유로 기소, 체포, 구류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상원의원에 대한 기소, 체포, 구류 또는 구금은 회기 사이의 기간에 상원 또는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만 가능하며, 다만 현행범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소관 부처는 상원이나 상임위원회로 급히 보고하여 결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상원 상임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회기의 상원에 제출하여 재적의원 3분의 2의 의결로 채택하여야 한다.
전술한 모든 경우, 상원의원에 대한 구금·기소는, 상원에서 재적의원 4분의 3으로 중단을 의결하는 때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105조
상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한 자체 예산을 가진다.
상원의원은 수당을 받아야 한다.

제106조
상원의 첫 회기는 선거일부터 60일 이내에 국왕이 소집하여 개회하도록 한다.
그 직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상원은 각 상원의원 임기의 유효성을 선언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절대다수결로 의장, 부의장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모두를 각각 선출하여야 한다.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중 캄보디아 단일 국적 보유자에 한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임기의 시작 전에, 모든 상원의원은 헌법 부속서 7에 기재된 문구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제107조
상원의 정기회는 1년 2회 집회하여야 한다.
각 회기는 최소 3개월간 지속하여야 한다. 국왕의 요청 또는 총리의 건의 또는 상원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상원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08조
상원 회기 사이의 기간에는, 상임위원회가 상원의 사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상원의장, 상원부의장 및 모든 상원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제109조
상원의 회기는 캄보디아 왕국 수도의 의사당에서 진행하도록 하되, 사정에 따라 집회 시 달리 정하여 명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술한 사례를 비롯하여 집회시 명시하는 장소와 일자 이외의 상원 회기는 위법이며 그 자체로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제110조
상원의장은 상원의 회기를 주재하고, 상원이 채택하는 법률과 결의안을 인정하며, 의사 규칙의 시행을 책임지고 상원의 국제 사무를 총괄한다.
상원의장이 건강상 이유로, 또는 임시 국가원수나 섭정의 직무를 담당하게 된 이유로, 또는 국외 출장 중인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이를 대신하여야 한다.
의장이나 부의장의 사임 또는 사망 시, 상원은 새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11조
상원의 회기는 공개한다.
상원은 의장,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 국왕, 총리, 국회의장 등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집회할 수 있다.
상원의 회기는 다음의 의사정족수가 있는 때에만 유효하다.
가 - 재적의원 3분의 2를 요구하는 의결인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를 초과하는 의사정족수
나 - 재적의원 상대다수 또는 절대다수를 요구하는 의결인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의 의사정족수
헌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 채택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상원의 채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12조
상원은 국회와 정부 간의 사무를 조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113조
상원은 국회가 1차 독회로 채택한 정부 제출 법안이나 의원 발의 법안을 비롯하여, 국회에서 제출한 모든 질문 등을,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내야 한다. 긴급 시에는 앞의 기한을 5일로 단축한다.
상원이 주어진 기한 내에 찬성 의견을 내거나 의견을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존에 국회에서 채택한 법률안은 공표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원이 정부 제출 법안이나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한다면, 국회는 이를 2차 독회로 즉시 심사하여야 한다. 국회는 상원에서 제안한 단독 수정안의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결 또는 부결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상원과 국회 간에 오가는 절차는 1개월의 기한 이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이 기한은 예산안 및 재정 관련 법률에 대하여는 10일, 그리고 긴급 선언 시에는 2일로 단축하도록 한다.

국회가 심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초과하거나 연장한 때에는, 양원 간의 합의 도출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할당된 기한 역시 그만큼 증가한다.
상원에서 완전히 부결된 정부 제출 법안이나 의원 발의 법안은 1개월이 지나기 전에 국회에서 2차 독회로 심사할 수 없다. 이 기한은 예산안 및 재정 관련 법률에 대하여는 15일, 그리고 긴급 선언 시에는 4일로 단축하도록 한다.
국회는 정부 제출 법안이나 의원 발의 법안을 2차 독회로 심사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기명투표를 통하여 재적의원 절대다수결로 채택하여야 한다.
전술한 방법에 따라 채택한 정부 제출 법안이나 의원 발의 법안은 공표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
상원은 필요한 여러 위원회를 설치한다. 상원의 조직과 역할은 상원의 의사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의사규칙은 상원의 재적의원 절대다수결로 채택한다.

제115조
상원 임기의 종료를 최소 6개월 앞두고 상원의원이 사망, 사임하거나 그 직을 상실하는 때의 보궐 절차는 상원의 의사규칙과 상원의원의 임명과 선출과 관련하여 법률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진행하여야만 한다.

제9장 국회와 상원 합동회의

제116조
필요에 따라, 국회와 상원은 국가 중대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합동회의에 집회할 수 있다.

제117조
제116조의 국가 중대 사안을 비롯하여, 합동회의의 조직과 역할은 법률로 정한다.

제10장 정부

제118조(구 제99조)
내각은 캄보디아 왕국의 정부이다.
내각의 수장은 총리로 하며, 그 구성원인 부총리와 선임장관, 장관의 보좌를 받는다.

제119조(구 제100조)
국회 제1당의 추천에 따라 국왕은 고위 인사 한 명을 총리로 지명하여 정부를 구성하도록

한다. 국회 제1당의 이와 같은 추천은 국회의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총리로 지명될 이 고위 인사는 캄보디아 단일 국적 보유의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국회 제1당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지명된 고위 인사를 비롯하여, 그의 협력자로서 국회의원이거나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인사로 정부의 부처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국회의 신임투표를 받아야 한다. 이 신임투표는 전체 내각의 명단에 대해서 이행되어야 한다. 국회가 신임투표를 의결한 때에는 국왕이 내각을 일괄 임명하는 명령에 서명한다.
임기의 시작 전에, 내각은 부속서 6에 기재된 문구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매 국회의 임기 종료 시마다 직위가 종료된 정부는 새 직위의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일상 업무 수행의 책임만 가진다.

제120조(구 제101조)
정부 구성원의 직무는 상거래·산업 분야 직업 활동 및 다른 공무상 직위 보유 등과 겸할 수 없다.

제121조(구 제102조)
정부의 모든 구성원은 국회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 일반의 공동 책임을 진다.
정부의 각 구성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총리 및 국회를 상대로 개별 책임을 진다.

제122조(구 제103조)
정부의 구성원은 누군가로부터의 서면 또는 구두 명령을 이유로 자신의 고유한 책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23조(구 제104조)
내각은 매주 정례회의 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례회의는 총리가 의장이 된다.
총리는 임시회의의 의장직을 부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각의의 의사록은 국왕에게 제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4조(구 제105조)
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부총리 또는 정부 구성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5조(구 제106조)
총리의 일시적 부재 시, 총리는 임시로 내각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질 부총리 한 명을 지명하여 총리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한다.
사망 또는 사임으로 인해 총리직의 공석이 확정된 경우, 본 헌법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새로운 내각을 긴급히 구성하여야 한다. 국회의장은 국회 제1당의 건의를 받은 후 긴급히 국회를 소집하고 최대 7일 내에 필요한 일들을 신속히 처리한다.

사망으로 인해 총리직의 공석이 확정된 경우, 직위에서 물러난 내각은 총리 권한대행으로 지명된 부총리의 지도 하에 새로운 직위의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일상 업무 수행의 책임만 가진다.
총리직 사임은 국왕에게 사임 서한을 송부함으로써 이행되며 국회의장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경우, 직위에서 물러나는 내각은 새로운 직위의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정부의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해야 한다.

제126조(구 제107조)
정부의 각 구성원은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기소 대상인 중·경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때, 그리고 정부의 구성원이 직무 수행 중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때에는, 국회가 그에 대한 관할권 확보를 결정할 수 있다.
국회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비밀투표를 통하여 재적의원 절대다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27조(구 제108조)
내각의 조직과 역할은 법률로 정한다.

제11장 사법부

제128조(구 제109조)
사법권은 독립된 권력이다.
사법권은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한다.
사법권은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소송을 범위로 한다.
이 권력은 대법원과 여러 종류 및 각급 법원에 일임한다.

제129조(구 제110조)
정의는 법적 절차와 현행법에 따라 캄보디아 국민의 이름으로 구현한다.
오직 법관에게만 사법 기능을 부여한다. 법관은 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정직과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0조(구 제111조)
입법부 또는 행정부 소속 조직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31조(구 제112조)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132조(구 제113조)
국왕은 사법부 독립의 보증인이다. 최고사법위원회는 이러한 직무와 관련하여 국왕을 보좌한다.

제133조(구 제114조)
최고사법위원회 위원은 해임할 수 없다. 그러나 최고사법위원회는 비위를 저지른 위원에 대하여 징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134조(구 제115조)
최고사법위원회는 그 구성과 권한에 대하여 정하는 조직법에 따라 설립하여야 한다.
최고사법위원회는 국왕의 주재 하에 둔다. 국왕은 최고사법위원회를 주재할 자신의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
최고사법위원회는 각급 법원의 법관 및 검사의 임명안을 국왕에게 제출한다.
법관 및 검사에 대한 징계 결정 시, 해당 사건이 법관 또는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최고사법위원회를 대법원장 또는 검찰총장의 주재로 소집한다.

제135조(구 제116조)
법관 및 검사 그리고 사법 조직에 대한 규정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제12장 헌법위원회

제136조
헌법위원회는 헌법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며, 헌법을 비롯하여 국회가 채택하고 상원이 면밀하게 심사한 법률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다.
헌법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 및 상원의원 선거와 관련한 소송을 심리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37조(구 제118조)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9년으로 제한한다. 위원의 3분의 1은 3년마다 교체하도록 한다. 위원 중 3인은 국왕이 임명하며,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3인은 최고사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출생에 의하여 취득한 캄보디아 국적이 있는, 캄보디아 단일 국적 소지자인 헌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헌법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선출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38조(구 제119조)
헌법위원회의 위원은 법학·행정학·외교학·경제학 고등교육 학위를 소지하고 풍부한 전문 경력을 보유한 고위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39조
헌법위원회 위원의 직무는 상원의원, 국회의원, 정부의 구성원, 현직 최고사법위원회 위원, 공직자, 정당의 대표·부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부대표자 등의 직무와 겸할 수 없다.

제140조
국왕, 총리,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 10분의 1, 상원의장이나 상원의원 4분의 1은 국회가 채택한 법률이 공표되기 전에 이를 헌법위원회로 송부하여 심사를 구할 수 있다.
국회의 의사규칙, 상원의 의사규칙 및 조직법은 공표에 앞서 헌법위원회로 송부하여 심사받아야만 한다. 헌법위원회는 법률, 국회의 의사규칙 및 상원의 의사규칙 등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30일의 기한 이내에 발표하여야 한다.

제141조
법률이 공표된 뒤, 국왕, 상원의장, 국회의장, 총리, 상원의원 4분의 1, 국회의원 10분의 1, 또는 법원 등은 그 법률의 합헌성 심사를 헌법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은 전술한 문단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 국회의장, 상원의원 또는 상원의장 등을 통하여 법률의 위헌성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제142조(구 제123조)
헌법위원회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선언하는 조문의 규정은 공표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헌법위원회 결정은 불복 절차 없이 종국적이다.

제143조(구 제124조)
국왕은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와 협의한다.

제144조(구 제125조)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역할은 조직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13장 행정구역

제145조
캄보디아 왕국의 영토는 수도, 주, 시, 군, 구, 면, 그리고 동으로 구분한다.

제146조
수도, 주, 시, 군, 구, 면, 그리고 동은 조직법으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운영한다.

제14장 전국회의

제147조(구 제128조)
전국회의는 국민이 다양한 국가 사무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접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 기관에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캄보디아 국민은 양성 모두 전국회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48조(구 제129조)
전국회의는 연 1회 집회하여야 하며, 총리가 12월 초에 소집한다.
전국회의는 국왕의 주재 하에 진행한다.

제149조
전국회의는 상원, 국회 및 국가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할 제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전국회의의 조직과 역할은 법률로 정한다.

제15장 선거 조직

제150조
국가선거위원회는 상원의원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하여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선거를 실시·규율·운영할 권한을 가지는 조직이다.
국가선거위원회는 복수정당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고 정확하며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독립적이고 치우침 없이 행사하여야 한다.
국가선거위원회 위원의 직무는 공직과 그 밖에 헌법에서 정하는 기관의 일원인 직무와 겸할 수 없다. 국가선거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의 당원 또는 비정부단체·협회·노동조합·영리회사의 장이 될 수 없다.
국가선거위원회는 그 운영을 위한 자체 예산을 가진다.

제151조

국가선거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위원 4인은 정부를 구성하는 정당에서 선출하며, 위원 4인은 국회에 의석을 확보한 정당 중 정부와 연합하지 아니한 정당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위원 1인은 국회에 의석을 확보한 모든 정당의 동의로 선출하여야 한다.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국가선거위원회 위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국가선거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 재적 국회의원 절대과반수로 의결하여야 하는 신임투표에 부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선거위원회의 위원은 칙령으로 임명한다.

국가선거위원회의 위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는 때,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그러한 지위를 상실하는 날부터 15일의 기간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새로운 보궐위원의 선출을 위한 세부 절차는 별도 법률로 정한다.

국가선거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할 때는, 기존의 국가선거위원회 위원이 그 직을 유지하며 법률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권한을 가진다.

국가선거위원회의 조직과 역할은 법률로 정한다.

제16장 헌법의 효력, 수정 및 개정

제152조(구 제150조)

헌법은 캄보디아 왕국의 최고법이다.

모든 법률 및 모든 국가기관의 결정은 반드시 헌법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제153조(구 제151조)

헌법의 수정 또는 개정에 대한 발의권은 국왕, 총리 및 국회의 재적의원 4분의 1의 제안이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있다.

헌법의 수정 또는 개정은 반드시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다수결로 채택하는 개헌 법률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54조(구 제152조)

헌법의 수정 또는 개정은 제86조에서 정하는 국가비상사태 중에는 금지한다.

제155조(구 제153조)

복수정당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입헌군주제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의 수정 또는 개정은 할 수 없다.

제17장 경과 규정

제156조(구 154조)
본 헌법은 채택된 이후, 캄보디아 국왕에 의해 공포됨으로써 즉시 발효된다.

제157조(구 155조)
본 헌법의 효력 발생 이후, 제헌의회는 국회가 된다.
국회의 의사규칙은 국회에서 채택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가 아직 개원되지 않은 경우, 국가 상황의 필요에 따라 제헌의회의 의장과 제1 및 제2부의장은 국왕선출위원회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8조(구 156조)
본 헌법의 효력 발생 이후, 제13조 및 제14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왕이 선출된다.

제159조(구 157조)
첫 상원 의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차기 상원 의회가 개시하는 때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첫 상원 의회는;
- 총 상원의원들의 수는 61명으로 하고,
- 왕은 두 명의 상원의원과 의장, 제1 부의장 및 제2 부의장을 선임하며,
- 그 외의 상원의원들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구성원들 중 국회 의장과 상원의장의 추천에 따라 왕이 임명하고,
- 국회와 상원의 총회는 공동의장의 주재로 개최된다.

제160조(구 158조)
캄보디아에서 국가 재산과 권리, 자유와 개인의 법적 재산을 보장하고 국익에 준거하는 법과 규범은 이를 개정 혹은 폐지하는 다음 문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 단, 본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조항은 예외로 한다.

본 헌법은 1993년 9월 21일 프놈펜 2차 총회에서 제헌의회에 의해 채택됨

1993년 9월 21일 프놈펜
의장
손 산 (SON SANN)

국가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헌법

제1조

헌법은 모든 상황에서 국가의 필요에 따라 자유 다당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기관들이 잘 기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

각 임기 초기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 국회 최고의원의 주재 하에 국회는 각 의원들의 권한을 확인한 뒤 전술한 제1조에 명시된 목표 내에서 헌법 혹은 입법적 성격의 문서를 채택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에서 채택된 문건은 국회 최고의원의 조치에 의해 문서가 공포 및 발효될 때까지 해당 문서를 위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제3조

헌법 제82조 및 제119조(10차 개정)에 명시된 절차가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 국회는 정부에 신임을 부여함과 함께, 국회 제1당의 추천에 따라 의장 및 부의장을 비롯한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4조

선출 및 신임 투표를 위한 후보자 명단의 준비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한다:

- 국회의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명단은 국회 제1당에 의해 작성 및 추천되어 국회의 최고의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국회의장은 단일 국적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 국회 제1당의 추천을 따라 국왕은 고위 인사 한 명을 총리로 선임하여 정부를 구성하도록 한다. 총리로 지명될 이 고위 인사는 국회 제1당에서 선출된 캄보디아 단일 국적 보유의 의원이어야 한다.** 이 선임된 고위 인사는 정부 내 각 부처별 직위에 따른 인사를 준비한 후, 정부 전체 구성원의 명단을 국회 최고위원에게 전달한다.
- 국회 최고위원은 지체하지 말고 긴급히 국회의장과 부의장, 국회의 전체 전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국왕이 선임한 총리 및 정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포함된 하나의 명단으로 통합하여 투표를 위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 국회 최고위원은 전체 국회의원 중 가장 연령이 높은 의원으로 선출한다. 이 국회 최고위원이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회 최고위원의 직위는 연령 순으로 순차적으로 국회 위원에게 위임된다.

---

* (역자주) 2021년 11월 3일 개정

** (역자주) 2021년 11월 3일 1차 개정, 2022년 7월 28일 2차 개정

제5조

투표 진행 중 토론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투표 결과의 공표 이후 어떠한 설명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최고의원이 제안한 통합 명단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한다. 본 투표는 거수로 진행한다.

제6조 추가 헌법의 신규 조항

전술의 통합 투표는 전체 국회의원의 절대다수결을 따른다.

첫 번째 투표에서 결정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절차가 추후 투표들에서도 적용된다.

제7조

본 추가 헌법은 긴급 선언되며, 현 임기 초부터 시행한다.

2004년 7월 13일 프놈펜

국가수반 대행

녁 분차이

최고위원 겸 국회 총회 의장

서명

찌어 솟

추가 헌법은 2004년 7월 13일자 Kram No NS/RKM/0704/001로 공포됨.

본 헌법은 즉시 공포된다.

캄보디아 개황

발 행 일 2022년 8월
발 행 처 외교부 동남아2과

편집디자인 나무와숲 (02-3474-1114)
인 쇄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ISSN 2005-4017

※ 이 책의 내용은 http://www.mofa.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2000-000073-14

ISSN 2005-4017